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한 번의 참기도 위해선
만 번 헛절 해야"
8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9월 9일) · 주간

제1012호 2014년 10월 2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마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10월 서울은 '불교'로 물든다

서울시, 10월 10~12일 '2014 전통사찰 Week' 개최

서울 전통사찰 58곳서 진행
사찰 5곳서 무료 템플라이프
10일 선포식… 곳곳서 행사
"불교문화 향유층 확대 기대"

가을이 찾아오는 10월, 서울 전역에서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불교문화 체험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시와 조계종 총무원과 전통사찰 보유 종단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2014 서울시 전통사찰 Week'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2013년 6~9월 서울 전통사찰 58곳의 현황을 점검하고 요청사항을 청취해 △전통사찰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전통사찰 관광자원화 △전통사찰 시설정비 △전통사찰 제도적 기반 구축의 4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전통사찰위크는 전통사찰의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하고, 계승 · 발전시키는 사업의 일환이다.

전통사찰 주간은 서울시의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행사다. 전통사찰 주간은 10월 10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의 선포식으로 시작되며 선포식 이후 서울 시내 전통사찰 58곳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로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짝 열린다.

특히 조계사 · 봉은사 · 화계사 · 금선사 · 묘각사 등 서울시내 템플스테이 사찰 5곳에서는 1일 사찰 체험 과정인 템플라이프가 무료로 진행된다. 선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박원순 서울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내 주요 전통사찰 주지 스님들과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불교 체험 프로그램 '다채'

먼저 전통사찰 주간에는 각 사찰에서 각종 투어 및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서울 조계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화축제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전래놀이 체험'을 진행한다. 종립학교 학생과 서울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은 지화만들기, 단청문양 팬던트 만들기, 전래놀이, 불교중앙박물관 '봉은사와 추사 김정희 특별전' 관람 등이 진행된다. 이와함께 서울의 대표 사찰인 봉은사와 조계사는 불교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전통사찰 투어'를 진행한다. 사전 접수된 90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10일 봉은사 투어 후 조계사로 이동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선포식에 참여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서울 진관사는 11일과 12일 오전 10시 중요무형문화제 126호인 국행수륙재가 열리며 사찰순례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에게 연잎밥 등 사찰음식을 제공한다. 진관사는 인근 삼천사와 함께 북한산 둘레길 9구간인 마실길을 걷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진관사와 삼천사 주변 약 2.5km를 문화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역사를 듣는 일정이다.

서울 흥천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경내 느티나무 광장에서 예로부터 불화를 제작해 온 흥천사 불화소를 개방해 불화장 스님과 함께 불화, 또는 단청을 직접 그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회향을 기해 12일 오후 3시 작은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모든 프로그램 체험은 전액 무료다.

SNS 홍보하면 푸짐한 상품이

전통사찰 주간에는 행사에 참여한 내용을 SNS에 홍보하면 다양한 상품도 주어진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전통사찰 가Go! 인증샷 찍Go!'는 전통사찰 주간 동안 58곳의 전통사찰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증사진을 가지고 10월 12일 흥천사 회향식에 참여하면 합장주와 스마트폰 거치대 등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사전 접수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 서포터를 대상으로 하는 'I Love Seoul, I Like Temple 스토리 콘테스트'도 진행된다. 사전접수된 국제 대학생 팀이 전통사찰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동영상과 사진 등으로 SNS에 홍보하고, 이를 선정해 상금을 수여한다.

조계종은 "이번 '2014 서울시 전통사찰 Week'를 계기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청소년 · 외국인들의 활발한 참여로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지지층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서울시 전통사찰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자승 스님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직책 부실장 스님들은 9월 22일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촌에 마련된 불교관을 방문해 펜싱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구본길 선수와 파이팅을 외쳤다. 이날 불교계 주요인사 40여 명은 인천 아시아게임 경기대회 선수촌 및 계양체육관을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단을 격려했다. 방문단은 오전에는 선수촌 한국선수단을 방문해 양학선 체조선수와 21일 금메달을 딴 구본길 선수를 만나 단주를 주면서 격려했다. 또한 불교관을 방문해 예불을 올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차담을 나눴다. 인천=이나은 기자

인천아시안게임, 불자 선수 '金·金·金'

9월 19일 개막한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불자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가장 두드러진 성적은 낸 것은 펜싱이다. 사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펜싱은 한국의 펜싱사를 새로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국 펜싱 대표팀은 당초 7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했으나 선수들의 노력으로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일궈냈다. 이 중심에는 불자선수들의 '금빛 찌르기'가 있었다.

'미녀검객'에서 '주부검객'이 된 남현희 불자선수는 여자 펜싱 플뢰레 단체전 금메달을, 가수 왕배의 연인으로 알려진 전희숙 불자선수는 여자 펜싱 플뢰레 개인 · 단체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이 됐다. 특히 돈독한 불심으로 잘 알려진 남현희 선수는 지난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이후 열린 불자 선수 환영식에 참가해 '자랑스러운 불자 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불자선수가 나란히 금 · 은을 놓고 맞붙은 경우도 있었다. 이라진 · 김지연 불자선수는 여자 펜싱 사브르 단체 금메달을, 개인전에서는 이라진 선수가 금메달을 김지연 선수가 은메달을 모두 가져갔다.

펜싱 불자선수 '금빛 찌르기'
金8 · 銀6 · 銅3 '아시아 최강'

배드민턴 이용대 단체전서 金
'부상 투혼' 양학선, 아쉽게 銀

구본길 불자선수도 남자 펜싱 사브르 개인 · 단체를 휩쓸며 2관왕이 됐다. 구본길 선수와 같은 종목에서 활약한 김정환 불자선수는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고, 구본길 선수와 맞붙은 개인전에서는 석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비운의 검객' 신아람 불자선수와 최인정 불자선수는 여자 펜싱 에페 단체전에서 중국에게 아쉽게 져 은메달을 따냈다. 또한 최인정 선수는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지난해 도핑 테스트 파문으로 마음 고생을 했던 배드민턴의 이용대 불자선수는 단체전에서 금빛 스매싱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이용대 선수는 불교 법회에도 자주 모습을 비추는 등 돈독한 불심을 자랑한다.

독실한 불심을 지닌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자가 된 체조의 양학선 선수는 허벅지 부상의 여파로 도마에서 아쉽게도 은메달에 머물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포교, 스토리텔링 · 동선 활용부터"

조계종 포교원, 9월 23일 포교종책연찬회서 주장

문화의 시대에 걸맞게 현대인의 삶과 문화에 가깝게 다가가는 포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9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감성과 감동의 시대 문화포교를 말한다'를 주제로 제59차 포교종책연찬회를 열었다.

이날 '사찰의 문화포교에 대한 제언과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자현 스님(월정사 교무국장)은 "오늘날의 관광사찰은 '수행'과 '입장료수입'이라는 두 가지의 상호모순된 양자를 모두 안고 가야하는 현실에 존재해 포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현 스님은 불교적 특징에 입각해 현대인에게 포교할 수 있는 방법은 '동선활용'과 '스토리텔링'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과거 승려들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진 넓은 영역의 사찰이 내방객들에게는 효율적인 동선구조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찰과 관련된 명확한 동선처리와 친절한 설명으로 사찰을 속속들이 둘러보고 알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교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자현 스님은 "현대는 귀로 듣는 것 보다는 눈으로 보는 시대"라며 "해리포터 시리즈가 인기를 얻을 수 있던 이유는 책이라는 문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미지의 시각화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사찰 또한 이미지와 문화유산을 시각화하는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9월 23일 '감성과 감동의 시대 문화포교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포교 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
사찰 이미지 시각화 필요"

스님 발제에 앞서 고명석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문화포교의 지향과 종단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명석 연구원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법회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언급하며 "현대인들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는 다양한 불교문화포교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적 정서'의 중요성도 강조한 그는 "불교의례와 음악도 현대인의 문화적 정서를 고려해 이 시대의 언어와 멜로디로 재창조 돼야 한다"며 "특히 일상 종교행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의례문이나 경전은 한글로 정착시켜 음원을 만들어 보급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템플스테이 내년 예산 6% 증액된다

문체부, 2015년 예산안 발표… 오대산 명상센터 건립도

한국의 대표 전통문화관광 콘텐츠인 템플스테이의 내년도 예산이 6%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문화 재정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통문화체험 지원' 분야의 템플스테이는 내년 292억여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전년보다 약 6% 증액된 금액이다. 이를 통해 불교계는 사찰음식관광자원화, 템플스테이 특화프로그램 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제23회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오대산 명상센터도 건립이 가시화된다. 문체부는 현재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에 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오대산 월정사와 평창군은 오대산 일대를 자연명상특구로 지정해 이 이제 3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평창 동계 올림픽을 '문화 올림픽'으로 승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문화 분야 재정규모는 5조 9천772억원으로 올해 대비 정부의 각 부문별 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10.4%)을 보여준다. 문체부의 내년 예산은 10.2% 증액된 4조 8천752억원으로 서울 강북권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190억원이 신규 책정되는 등 생활 속 체감 문화융성 실현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신성민 기자



“송담 스님 탈종, 종도들이 막자”

탈종 반대 모임, 23일 기자회견… 원로의원 등 면담 계획

한국불교 선지식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과 문도 스님들의 탈종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담 대선사 조계종 탈종 반대 모임’은 9월 23일 조계종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담 스님이 탈종을 제고하고 다시 종단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송담 스님께서는 종도들의 등불이시다. 진실로 참회하고 청원 드리니 탈종의 결단만은 거둬 달라”면서 “스님의 탈종 선언은 미혹한 종도들을 깨우는 사자후라고 생각하며 참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출가수행자가 스승을 잃어버리는 것은 칠흑 같은 밤 천길 벼랑에서 횃불을 잃는 것과 같다”면서 “한시 지체 없이 종단으로 돌아오셔서 미혹한 후학들에게 역대 조사께서 지켜오신 간화선 수행을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스승을 잃어버린 종단이 조선시대 승과 폐지를 당한 것과 같은 충격에 빠져 있다고 토로한모임은 “‘송담 대선사 조계종 탈종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원로 대덕 스님이 나서주길 바라며 송담 스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전국 수좌들은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송담 대선사 조계종 탈종 반대 모임’은 수덕사 前 주지 옹산 스님과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부산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과 前 해인사 주지 도성 스님, 불국사 前 주지 설조 스님 등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모임은 향후 종정 진제 스님과 원로의원 25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면담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송담 대선사 조계종 탈종 반대 모임’은 9월 23일 조계종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수원사 신도 “주지 교체 이유 무엇인가”

24일 초하루 법회서 재차 입장문… “수원사 지키겠다”

갑작스러운 수원사 주지 교체에 반발한 수원사 신도들이 조계종 총무원과 해당 교구본사인 용주사에 “수원사 주지 교체 이유를 밝히라”며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수원사 신도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는 9월 24일 수원사에서 자체적으로 초하루 법회를 열고 일방적 주지 인사를 성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법회에는 수원사 신도 800명이 참석했다.

비상대책위는 당일 오전 총무원을 항의 방문해 신임 주지 임명 철회와 인선 기준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 주지 성관 스님의 만류로 자체 초하루법회를 여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날 비상대책위는 2차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월 18일 신도회가 총무원장과 용주사 주지 스님에게 신임 주지 임명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신임 주지를 임명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는 신도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떠한 불리한 인사에도 신도들은 숨죽이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냐”며 “성관 스님이 수원사를 떠나야 하는 이유와 주지 인선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 공개 답변해달라”고 재차 되물었다.

이와 함께 비상대책위는 이날 30년 간 성관 스님과 함께 수원사를 일궈온 한 신도의 애끓는 편지도 공개했다.

신도는 편지에서 “성관 스님이 부임하면서 콘테이너에서 시작된 금강경 강의가 이제는 기초교리반으로 운영돼 52기를 맞았고, 자리를 깔고 법회를 보던 수원사가 이제는 불교회관으로 탈바꿈했다”면서 “수원사 사태를 보며 우리 모두는 비통의 도를 넘어 분노를 참지 못해 서로 부둥켜 울고 있다. 이제 전국의 불자들이 부처님 정법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비상’ 준비… 불교센터·공연장 건립

〈飛上〉

동국대 역점 추진하는 108주년기념관 살펴보니

한국의 대표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총장 김희옥, 이하 동국대)가 건학 108주년을 맞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기념관 건립불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국대는 젊고 역동적인 대학 이미지를 구현하고 부족했던 대학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동국대는 9월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건학 108주년 기념관’ 불사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동국대가 추진하는 건학 108주년 기념관은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혜화문 부지에 연면적 26,890.38㎡(8,134평)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된다.

불교종립대학인만큼 건학 108주년 기념관에는 국제선센터, 불교학술원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 시설들이 들어선다. 특히 동국대는 기념관에 불교 대중화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동국불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국불교센터는 불교대학 발전 비전과 첨단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터넷 불교학습 시스템 구축, 종무행정 · 불교복지 · 불교문화콘텐츠 전문가 양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동국대 박물관도 새롭게 정비된다. 대학이 소장한 불교 유물 중 문화재적 가치가 우수한 것들이 적지 않았으나 박물관 시설이 낙후돼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었다. 동국대는 건학 108주년 기념관 내 박물관과 전시시설을 만들어 다양한 문화적 산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1000명을 수용해 국제 컨퍼런스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홀과 다목적 회의시설, 간화선 집중수행을 하고자 국제선센터를 찾는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기념관의 주요시설로 들어선다. 또한 영화, 음악, 공연, 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동문 출신 대중문화예술인과 인문, 정관계, 재계 등에서 명성을 떨친 동문인을 위한 ‘동국 스타광장’도 자리 잡는다.

연면적 8천여 평에 기념관 건립
450억 원 불사… 내년 초 착공
동국불교센터 등 불교시설부터
컨벤션홀 · 동문회관 · 박물관까지
완공시 지역 대표 랜드마크 기대

25만 동국 동문인을 위한 총동문회관도 자리잡는다. 총동문회관 시설에는 회의실과 세미나실, 총동창회장 집무실과 사무실로 구성되며 동문 전용공간도 별도로 마련될 계획이다.

기념관의 외경 디자인은 불교를 모티브로 했다. 불교와 동국대를 연상시키는 숫자 108을 국제선센터 하부에 염주를 모티브로 한 108개 기둥을 세우며, 또 기념관 외관을 불교를 상징하는 ‘卍’ 자를 형상화해 삼라만상이 인연으로 연결돼 있다는 연기사상을 표현할 계획이다.



동국대는 9월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건학 108주년 기념관’ 불사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동국대가 추진하는 건학 108주년 기념관은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혜화문 부지에 연면적 26,890.38㎡(8,134평)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된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한국 최대 뮤지컬 공연장 건립도 추진한다. 지난 9월 4일 설앤컴퍼니와 협약을 맺고 장충 수영장 부지를 뮤지컬 공연장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7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는 뮤지컬 공연장은 1900석 규모로 지어진다. 동국대는 최종적으로 대학로-동대문 DDP-동국대 공연장-한남동 블루스퀘어로 이어지는 서울 문화공연 벨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웅 동국대 전략홍보실장(국어교육과 교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현대적인 랜드마크 건물 건립을 통해 ‘108년 역사와 전통’으로 상징되는 기존 학교 이미지에 ‘젊고 역동적이며 변화하는 대학’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부족한 교육 · 연구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국대 건학 108주년 기념관은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들어서는 만큼 새롭게 완성되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 공연 · 체육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는 오는 10월 8일 저녁 7시 108주년기념관 건립불사 선포 및 후원의 밤 행사를 서울 중구 그랜드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6곳 교구 경선… 중앙종회의원 선거 본격화

조계종 중앙선관위 9월 22~24일 후보등록 마감

직할교구 등 16곳 경선 치열
신흥사 등 교구 8곳 ‘무투표’
명진 스님 쌍계사로 출마해
종회 입성시 야권 강화 전망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질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9월 24일로 최종 마감됐다.

9월 22~24일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결과 제3교구본사 신흥사와 제4교구본사 월정사, 제7교구본사 수덕사. 제13교구본사 수덕사 등은 교구 정원인 2명의 후보가 입후보해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무투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가장 많은 의석인 4석이 배정된 직할교구를 비롯해 2명을 선출하는 제8교구본사 직지사는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제5교구본사 법주사와 제6교구본사 마곡사 제12교구본사 해인사는 각각 5명이 입후보해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무투표 당선이 가능해진 교구는 8곳이며 치열한 경선을 통해 종회의원을 선출하는 교구는 모두 16곳이다.

또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 회장 영담 스님과 함께 제13교구본사 쌍계사에 입후보한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명진 스님의 경우 자격심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투표없이 당선된다. 명진 스님이 삼화도량에 합류하게 되면 야권 세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20명을 선출하는 직능대표에는 전 초심호계원장 혜자 스님과 적광, 심우 스님 등이 21명이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1명은 탈락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등록 막판까지 계파별로 치열한 ‘눈치작전’이 계속됐던 직능직 종회의원은 마감 30분을 남겨두고 윤곽이 드러났다.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직능직에는 호산(양평 용문사) · 영배(현 종회의원) · 각림(현 종회의원) · 혜자(전 초심호계원장) · 혜초(서울 사자암) · 성행(현 종회의원) · 수암(현 종회의원) · 지홍(현 종회의원) · 적광(진주 청곡사) · 이암(전 종회의원) · 정도(현 종회의원) · 탄원(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 도견(전 총무원 기획국장) · 범해(현 종회의원) · 정산(현 종회의원) · 진화(현 종회의원) · 초격(현 종회의원) · 성문(전 동화사 주지) · 지현(현 종회의원) · 심우(현 종회의원) · 법상(현 종회의원)스님이 등록했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는 지홍 · 지성 · 명준 · 혜정 · 도수 · 묘주 · 혜범 · 희유 · 인수 스님으로 지난 22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했다.

한편, 후보자 자격심사는 9월 30일부터 10월1일까지 진행되며, 10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직능대표와 비구니대표 중앙종회의원은 10월 13일에 열리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최종 선출한다.

신성민 기자

국태안민 남북통일 / 창조경제 민족화합 / 나라위한 대법회
불기 2558년 율맥대본산 아일다율원

제1회 범종단 용화사 금강계단 구족계 / 국제보살계 戒

석가여래咐囑 : 불자여! 율법의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제방불자 승가여! 재가여! 좋은인연 맺어가는 보살의길 향해
종단을 초월하여 한국불교 계율의 율법을 지키고저 서원세워
갑오년 부처님 지혜력 · 자비력 · 가피력 나라위한 서원 대법회에
깊은 뜻과 마음으로 청정계단에 동참하여 무루복락 지으소서.

● 삼 화 상 / 전계화상 수진대율사 갈마사 혜남대율사 교수사 무관대율사
● 칠 증 사 / 활안. 수법. 수광. 수혜. 수오. 수각. 수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화상

◆ 일 시 : 2014년 10월 16일(음 9. 23) (목) (2박 3일) (구족계)
10월 18일(음 9. 25) (토) 10시 (보살계)
◆ 장 소 : 전남담양 용화사 아일다율원
◆ 문 의 : 061)381-2683, 055)334-1122 / 팩스 055)328-2762
010-7316-4789(섭외위원장 수월)
1부] 오전 - 불자위한 보살계 2부] 오후 - 나라위한 수륙재(영가수계)
◆ 공 연 : 중국소림무술단 시범 / 한국태극권단 시범

주 최 : 해동율맥법홍대율사문회 / 주 관 : 한국불교승가단체협의회
계 단 장 법 민 대 회 장 대 광
집행위원장 법 장 봉행위원장 대 풍
협 찬 : 동참종단 / 승가단체 / 각사암 / 현대불교 / 법보신문 / 주간불교

일제는 불국사를 왜 변화시켰나

국가기록원, 불국사 청운 · 백운교 설계도 원본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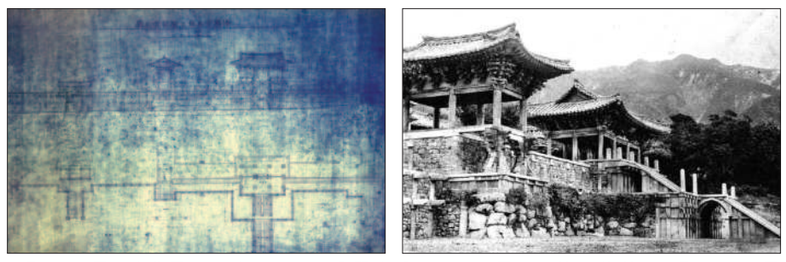
국가기록원은 9월 23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근대 건축도면 아카이브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 포럼에서 최근 복원한 불국사 청운교 · 백운교 실측도와 수선공사 변경설계도 원본을 일반에 공개했다.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는 일제 강점기에 수선공사를 거쳤는데, 일제는 이 과정에서 실측도와 수선공사 설계도 등 도면을 작성했다. 공개된 도면들은 모두 1918년 만들어진 것으로, 수리 전 절의 평면도 얼개를 보여주는 '경주군 불국사 경내 실측도'와 정면 얼개도인 '불국사 석원급계단 실측도', 수리를 위해 만든 설계 도면인 '불국사 수선공사 설계도'와 이를 수정한 '불국사 수선공사 변경 설계도'다.

이 도면들은 불국사가 보수 과정에서 원래 모습과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일제는 보수 전 불국사 정면 하단 석축의 돌난간 기둥과 청운교 백운교 등의 돌계단 난간 등을 없애려 했으나 수정 설계도를 보면 석축과 계단의 돌난간을 대부분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자하문과 그 왼쪽 건물 범영루 사이에 회랑을 복원한 것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수선공사, 실측도면등 본 모습 유추…보존 자료 의미 커
인터넷 아카이브 통해 공유 가능
근대문화재 183건 기록화자료 포함



변경 전 불국사 석원급 계단 실측도(사진 왼쪽)와 일제시대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전경(사진 오른쪽). 불국사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김양희 국가기록원 연구관은 "실측도와 수선공사 변경설계도는 불국사 수리계획, 수리방식 등 일제의 불국사 사지(寺地)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자료"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불국사 실측도와 수선공사 변경설계도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불국사 관련 근대 건축도면 총 36점 가운데 일부로 대한의원(사적 248호), 경성제국대학(사적 278호), 조선총독부, 경성 광화문 통 관유지 일람도 등 건축도면 원본 총 10점도 최초로 일반에 공개됐다.

포럼에서는 전봉희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의 '근대 건축도면 아카이브 현황과 국가기록원 소장자료의 의미'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이규철 동경대 연구원의 '근대적인 측량기술의 도입과 건축도면의 제작', 주상훈 건축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의 '국가기록원 소장 건축도면을 통해 본 1910년대 관립시설' 등이 발표됐다.

주상훈 건축문화유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근대 건축과 근대의 보수공사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는 연구자료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1910년대 전국적인 건축상황을 보여주는 국가기록원의 곤축도면 가치는 매우 크며, 이를 통해 다양한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도 문화재청 시설사무관은 '근대 건축문화재 기록화 현황 및 활용'을 통해 "전통 건축분야에 비해 연구자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술적 연구성과가 취약한 분야인 근대건축 분야에 대한 기록화 자료는 그 부족한 공백을 채우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도면자료는 그 원형을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기록화 사업은 물론이고, 문화재 수리시에 사용하기 위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영국사터에 지어진 도봉서원 복원 중단

서울시, 도봉사 명문 등 고려

국보급 불교문화재가 대량 출토된 도봉서원의 복원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최근 "서울시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도봉서원 복원 사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서울문화유산연구원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용역을 통해 지난 8월 21일 국보급으로 평가받는 금강저와 금강령 등 77점에 달하는 불교문화재를 발견한 바 있다. 또 도봉서원이 영국사 기단을 재활용했음이 드러났다.

조계종은 8월 27일 문화재청, 서울시 등에 도봉서원 복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서울시는 회의를 열고 복원사업을 부결시켰다.

서울시는 이어 향후 도봉서원 복원사업 재개시 영국사 및 문화재 출토 당시 유물에 명시된 도봉사에 대한 관계도 조명할 것을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는 "도봉서원보다 국보급 문화재가 발굴된 영국사가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복원사업이 조선 초기 불교와 유교의 관계, 사찰터와 사원터의 관계 등을 밝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제14교구 범어사도 교구신도회 결성

26일 만장일치로 추진 결의

조계종 제14교구 부산 범어사는 9월 26일 경내에서 제14교구신도회 창립을 위한 교구신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다대사, 봉정사, 원각사, 장안사, 수공선원, 반야선원 등 제14교구 수말사 사찰 20여개의 주지 스님을 비롯해 각 사찰 신도회장 및 임원, 종무직원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포교부장 송묵 스님, 신도국장 덕산 스님, 범어사 총무국장 유정 스님을 비롯한 본사 주요소임의 스님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14교구는 만장일치로 교구신도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빠른 시일 내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교구신도회의 창립 후에도 종단과 지역사회의 현안 등 공동의제를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앙신도회는 "오는 10월 1일 제5교구 법주사와 8일 제8교구 직지사 등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미결성 교구신도회의 원인을 파악하고 창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나란다 축제가 9월 20일 동국대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3000여 대중에게 자장면 공양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세대·국경 초월한 불교 교리 한마당

조계종 포교원 · 은정재단, 9월 20일 제6회 나란다축제

불교계 대표 문화축제 중 하나인 '나란다 축제'가 9월 20일 동국대 일원에서 펼쳐졌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과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3000여명이 참가,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K댄스 경연대회 백일장 및 사생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 전통문화체험마당, 회향마당 등 풍성한 프로그램은 물론 참가자 전원에게 짜장면 보시가 이루어져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외국인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원어민 교사와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이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1:1 결연을 맺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300여 참가자와 자원봉사자 330명이 참가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외국인 부문 우승자는 몽고에서 온 폭피콤 씨(부산 동아대 교환학생)로 캄보디아 프놈펜 로얄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다. 폭피콤 씨는 "그냥 축제를 즐기러 왔는데 뜻밖에 일등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불교 신자로 불교 상식을 묻는 문제가 많아 유리했던 거 같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폭피콤 씨는 이날 대상으로 상금 100만원을 수여받았다. 도전 범종을 울려라 일반인 부분은 조계사 박선호 씨(상금 300만원), 초등부는 한국불교대관음사칠곡도량 정송현 학생(200만원)에게 각각 돌아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세계가 주목한 韓 템플스테이의 위상

문화사업단, 9월 18~20일 순례 국제회의 참가

한국 대표 전통문화관광 콘텐츠인 템플스테이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조명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UN WTO 관광과 성지순례 국제회의(First UN WTO International Congrass on Tourism and Polgrimages)'에 종교관광의 우수사례로 참가, 스페인 산티아고 델라 콤포스텔라에서 템플스테이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

WTO와 스페인 관광청의 공동 주최로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국제회의는 관광분야에서 종교가 갖는 중요성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관광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종교 지도자, 관광업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성지 순례 관광과 문화유산, 자연환경, 순례 관광의 지속성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우용진 UN WTO 사무총장 특별 자문위원은 "종교 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 · 무형의 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를 밝히고 문화와 관광, 종교계의 협력을 특히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9일 〈순례관광의 지속성〉세션에서 종교 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템플스테이의 역사 및 운영현황, 프로그램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했다.

발제자로 나선 명법 스님은 "전통사찰에 머물며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명실상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관광자원으로 발전했다"고 템플스테이를 소개했다. 또한 정신적 치유와 사회 통합 기여 부문에 관한 템플스테이의 성과를 공유하여 호평을 이끌어냈으며, 특히 템플스테이의 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9월 18~20일 'UN WTO 관광과 성지순례 국제회의'에 종교관광의 우수 사례로 참가했다. 발제자로 나선 명법 스님이 한국불교 템플스테이의 우수성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박사는 "현대인들에게 종교적 위안이 더욱 절실해진 만큼, 국가지원정책으로 체계화된 우리의 템플스테이가 국제 사회에서 종교관광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평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를 계기로 템플스테이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향후 템플스테이 시즌2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논의의 장에 참석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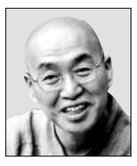
사찰도서관 불서기증식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9월 30일 거창 행복한 절에서 '부처님 글사랑, 행복한절 사찰도서관 불서기증식' 을 봉행했다.



아프리카학교건립 후원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9월 23일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했다.



정토회 천일결사 진행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10월 12일 장수 죽림정사에서 8-3차 천일결사를 진행한다.



성보박물관 보존관리교육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범 스님은 10월 15~1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성보박물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량 유물소장처 보존관리교육을 실시한다.



522km 마라톤 장정

구미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은 9월 1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삼보사찰에서 팽목항까지 달리며 베트남 농촌학교 해우소 신축을 위한 모금 레이스에 나선다.



후원의집 장학금 전달식

이계영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장은 9월 25일 동국대 원효관에서 자영업체 대표들이 후학을 지원하는 '후원의집'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무료 불교인문학 강좌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는 10월 1일부터 '불교인문학강좌-눈부처학교 1기' 를 진행한다.

송강 · 선응 스님, 단나학술상 수상



송강 스님



선응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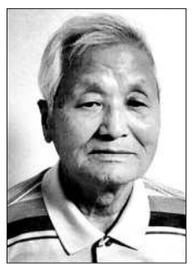
중앙승가대 단나학술상에 송강, 선응 스님이 선정됐다. 중앙승가대는 9월 29일 승가대 자비관에서 송강, 선응 스님에게 학술상을 시상했다.

개화사 주지 송강 스님은 '부처님의 생애' 로 우수저서 부분에, 동국대 불교학박사 선응 스님은 '불교학연구' 제34호에 게재했던 '원오 심요에 나타난 선사상 고찰' 로 우수 학술논문 부분 수상자로 선정됐다.

단나학술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성우)가 선정하는 단나학술상은 중앙승가대 부설 연구기관, 전임교원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우수저서 및 우수학술논문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군·장애인포교 분야서 전법을"

제19회 포교사 고시 최연소·최고령 합격자 송택규 · 홍현승 씨



송택규 씨



홍현승 씨

"비록 나이가 많지만 '아직 나도 할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을 얻어서 좋고 앞으로 군포교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송택규 · 86)

"장애인 불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 장애인들이 불교를 쉽게 접하고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승 · 24)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주최한 제19회 포교사 고시에 최연소 · 최고령 응시자가 나란히 합격했다.

최고령 합격자인 송택규 거사(봉은사 불교대학)는 "나이 많은 저를 합격시켜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포교활동을 위해 꾸준히 불교공부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연소 합격자인 홍현승 씨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것도 장애인 포교지만 불교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거사는 30여 년 간 약사사 · 봉은사 · 금강선원 등을 다니며 불교와 인연을 맺어왔다. 불교방송, 불교TV에서 진행하는 선지식 법회 등은 늘 챙겨 듣고 불교 관련 서적을 섭렵할 정도로 신심이 깊다. 그러다 송 거사는 제12회 포교사 고시에 합격한 딸을 보고 용기를 얻어 포교사 고시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송택규 "딸 합격보고 발원" 홍현승 "장애딛고 작곡 전념"

먼저 송 거사는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기초불교대학 3개월 과정을 이수 한 뒤 봉은사 · 조계사 불교대학을 거쳐 불교교리와 습의 과정 등을 익혔다.

송 거사는 "청년들을 포교해야 불교가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6 · 25 참전용사로서 4년 8개월간 전시 복무를 한 경험을 살려 군포교 분야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현승 씨는 출생 시 호흡곤란으로 뇌성소아마비 1급 판정을 받았다. 평소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 신행활동으로 많은 불자들의 귀감이 된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포교사의 원을 세웠다. 홍 씨는 "절에 다니다보니 장애인들이 많이 없었고 '무슨 업이 있길래' 하며 부정적이고 측은하게 바라보는 불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며 "부처님도 장애인 제자를 두셨고,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했다. 내 주위 도반들로부터 왜곡되지 않은 관점으로 장애를 바라보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화계사 포교사회 포교사 고시반에 출석하며 10여명의 예비 포교사님들과 필기 준비를 했고 연수기간 중 화계사에서 목탁 교육을 받았다.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고 있는 홍 씨는 "제 전공을 살려 불교를 주제를 한 글과 찬불가 작사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포교라고 생각한다"며 포교사로서의 의지를 밝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제 23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개최



제 23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이 9월 23일 강남구 대려도에서 진행됐다.

재단법인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이 주최하는 제23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이 9월 24일 강남구 대려도에서 열렸다. 올해는 유나방송 정목 스님(특별상)과 성의신 마하연 단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별상 수상자인 정목 스님은 "출가승으로 불법을 알리는 일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떨떨하고 먹먹했다. 사실 이 상은 불교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된다. 출가 승려에게 내리는 죽비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예술상 수상자 성의신 마하연 단장은 "불교 음악을 숙명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그동안 고난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니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 시대에 맞는 불교음악을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예술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금300만원이 각각 수여되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행원문화재단 주영운 이사장, 심사위원인 동명 스님(전등사 주지), 최정희 본지 편집이사,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 하춘생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정혜숙 기자**

"24교구 신도들 역량 결집에 최선"

박승규 조계종 24교구신도회장



석전기념관 건립과 불교회관 건립사업에 불자들의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21일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열린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교구 신도회 창립법회에서 초대 회장에 취임한 박승규(65세, 정읍 박병원 원장 · 사진)의 취임 일성이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9월 21일 경내 지장보궁에서 본말사 대중스님들과 관음회, 선사모, 거사림, 합창단, 청년회의 신행단체 임원들과 24교구 말사 신도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신도회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박 회장은 "교구 신도회의 창립은 종단의 역점사업이자 교구의 숙원사업"이라며 "조계종 신도의 일원으로 포교와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무엇보다 선운사의 역점사업인 석전기념관 및 고창불교회관 건립에 신도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광주본존지장회원의 일원으로 철야정진을 이어오고 있는 박 회장은 30여 년전 선운사 종무원의 뇌수술을 한 인연으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정읍시에서 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승규 회장은 1989년 개원 후 선운사 스님들의 건강을 무료로 책임져왔다. 박 회장은 스님은 물론 신부, 수녀, 목사 등 종교인들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박 회장은 광주서중, 광주일고, 조선대 의대를 졸업한 뒤 광주고등법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충대종사 21주기 열반대재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 중흥을 이끈 대충대종사의 21주기 추모 열반대재가 엄수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대충대종사 21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열반대재에는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해 원로원장 운덕 스님,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몽골포교당 주지 바토얀 스님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지역민과 함께 하는 화합한마당



서울 관악구 원각사(주지 연호)는 9월 17일 경내 앞마당에서 '제2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효행잔치 한마당' 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악구 남현지역 예촌경로당, 관수경로당과 지역 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식사와 소리꾼 이효덕 명창의 문화공연 등을 제공했다.

원각사 주지 연호 스님은 "어려운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효행잔치 한마당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해인사승가대 동문 中 서안 순례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는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서안 불교를 순례했다. 사진은 법문사 선원에서 참선을 하고 있는 스님들.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정우)는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세계 4대 고도로 꼽히는 서안지역을 순례했다.

4박 5일간 스님들은 현장 스님이 역경을 진행했던 대자은사를 비롯해 법문사, 초당사, 정업사, 지상사, 흥교사 등 사찰을 순례하며 신라의 원측, 의상스님 등 구법승들의 발자취를 돌아봤다. 특히 지상사 방장 스님은 총동문회장 정우 스님에게 화엄경 10질을 선물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 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 정부는 2014년 6월 15일 발표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4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사 1부
- 최종석적증명 1부(영문) • 여권용사진 10매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10월 31일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천상의 왕국을 찾아서, 부탄
행복한 나라 1순위 부탄,
부탄국왕초청 혜인스님과 함께
네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기도드리는 신도들



▲룸비니동산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룸비니동산 입구

◆날 짜 : 10월 예정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연회국사


보우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기율사


영암 스님


석주 스님


9월 24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린 '역대조사다례재' 모습

'천년의 전통 천년의 미래'

봉은사 1220주년 개산대재

불자·시민, 가을 문화 축제에 젖다


불자들이 봉은사 개산 1220주년을 맞아 마련한 국화축제의 국화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봉은사와 추사 김정희' 전을 둘러보고 있다.


다례재에 이어 판전 화엄경을 이운하는 정대불사가 진행됐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만개한 국화꽃들이 봉은사를 찾은 시민들을 반겼다. 시민들은 일주문 앞 국화 법성도를 돌고 대웅전까지 이어진 국화길을 걸으며 불교의 향기를 느꼈다.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로 시민과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봉은사(주지 원학)가 개산 122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었다.

먼저 국화꽃이 도량을 장엄한 가운데 개산대재를 알리는 역대조사다례재가 9월 24일 봉행됐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의 집전 하에 24일 오전 11시 경내 법왕루에서 열린 역대조사다례재는 창건주인 연회국사를 비롯해 보우 국사, 서산 대사, 사명대사 등 7명의 역대 조사 진영을 영단에 모시고 예를 올리고 그 사상과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법왕루를 가득 메운 1000여 불자들은 지금의 봉은사를 있도록 한 수많은 불자들의 노력을 이어가며, 봉은사를 새로운 불교중흥의 터전으로 만들자며 서원했다.

원학 스님과 최정수 신도회장 등은 다례재에 이어 역대조사들의 사리가 봉안된 부도전을 참배하고, 포교와 전법, 수행의 사찰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이날 봉은사 개산대재에서는 지구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제4회 행복나눔 바자회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봉은사 경내 곳곳에는 마련된 국화길에는 12지상으로 장식된 소원을 비는 공간이 마련됐으며 '전통 차 시연회'와 '신도 사진전' 등도 함께 열렸다.

바자회에는 홀몸어르신 반찬 봉사 연등조직인 작은보시큰자비의 김치 판매,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아나바다 물품나눔 등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국화꽃에서 퍼져 나오는 향기에 봉은사로 향한 시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뜻깊은 행사에 삼삼오오 동참했다.

인근 회사에서 점심시간 봉은사를 찾은 김은경 씨(32)는 "무심코 찾았는데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 행사에 동참했다. 물품들이 다양하고, 특히 유기농 음식 등이 다양해 좋았다"며 참가소감을 밝혔다.

봉은사 신도회는 행복나눔바자회를 통해 지난 2011년 미얀마 제따원 학교 건립 후원을 시작으로 2012년 삼흥학교 기숙사 건립 및 음악회 후원, 2013년 아프리카 탄자니아 조계종 농업학교 건립을 후원한 바 있다.

이날 바자회 수익금과 신도사진전 사진 판매 수익금은 모두 국제구호단체 월드머시를 통해 베트남 학교 건립 기금으로 사용된다.

오후에는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도 바자회 행사장을 돌며 자비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신도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오후 봉은사 보우당에서는 '봉은사와 추사 김정희'를 주제로 특별강

다례재 시작으로 다채로운 행사
국화축제·바자회 등 인기
추사 김정희 불교 유품 공개
가요, 풍물 어우러진 음악회도

연회가 이어졌다. 강연회에는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봉은사의 역사와 사격'을, 김현권 세종대 교수가 '추사 김정희의 꿈, 판전'을 각각 발표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학교 교수와 김현권 문화재청 감정위원는 강연에서 수많은 역사의 부침 속에서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았던 봉은사 역사와 말년에 봉은사에 머물던 김정희의 인생이 어떻게 '판전'이라는 명필로 승화될 수 있었는지 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또 26일에는 봉은사 판전에 보관된 국내 유일의 화엄경소초판 인경본을 정대하는 정대불사가 진행됐으며 이날 저녁에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특히 봉은사 개산대재의 백미는 봉은사 특설무대에서 열린 산사음악회 였다. 과거와 현재의 화합을 보여주는 KBS2 음악프로그램인 '불후의 명곡'을 콘셉트로 삼아 신·구세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열렸다.

산사음악회에서는 인기가수 정동하와 서문탁, 클래지콰이(호란), 포맨, 소리아, AUX, 봉은사 풍물단 및 무용단 등이 음성공양을 올리고 식전영상 상영을 통해 봉은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물론 미래의 비전도 함께 제시됐다.

한편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추사 김정희의 작품과 봉은사 성보를 선보이는 특별전이 문을 열었다. 특별전은 12월 14일까지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역대 조사 다례재 귀중한 문화유산"

인터뷰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1220주년 개산대재에 대해 "봉은사는 억불숭유의 조선시대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의 노력으로 불교의 맥을 이어온 곳"이라며 "봉은사의 개산을 축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선풍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학 스님은 "역대조사 다례재는 큰 스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중한 정신적 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길을 우리가 답습해 가야한다는 다짐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학 스님은 "봉은사 개산을 축하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계기로 삼고자 불자들은 물론 서울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한국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주제로 마련했다"며 "한국불교를 새롭게 바꿔하는 원력의 도량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봉은사는 선종 수사찰이자 조선 불교의 중흥 도량으로 일컬어지는 곳으로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사찰이지만 대웅전을 비롯해 법왕루, 천왕문, 일주문 등을 갖추고 있는 고찰이다.

특히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된 선불당은 조선 중기 이후 승려가 되기 위해 치러졌던 시험인 승과가 시행되던 곳으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도 이곳에서 배출됐다. 이번 개산대재에는 생애 마지막을 봉은사에서 지낸 추사 김정희 선생과의 인연도 대중에 알려졌다.



매월 도반과 3천배 정진한 지 10년

아비라 카페 창립 10주년… 9월 20~21일 백련암서 정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매월 3천배 정진을 해온 '아비라' 카페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제주 등 전국에서 모인 400여 아비라 카페 회원들은 9월 20~21일 해인사 백련암에서 3천배 정진을 회향했다.

20일 토요일 전국에서 온 회원들은 한 달 만에 만나는 도반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맡고 좌복을 배치했다. 저녁공양을 한 뒤 예불을 올리고 고심원 2층 법당, 1층 장경각, 적광전, 관음전 등으로 흩어져 정진을 시작했다.

"지심귀명례~ 보광불~ 지심귀명례~ 보명불~ 지심귀명례~ 보정불~…"

날이 어둑해진 저녁 7시, 해인사 백련암 경내에 예불대참회문을 독송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백련암 법당 곳곳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앉아 지심귀명례에 이어 한 분의 불보살을 부르며 절 1배를 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예불대참회문을 10번 독송하며 천 배를 마쳤다. 30분간의 휴식을 갖고 4회에 걸쳐 500배를 이어갔다. 회원들은 땀에 법복이 흠뻑 젖을 정도로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다. 저녁에 시작된 3천배 정진은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계속됐다. 3천배를 마친 사람들은 다음 달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산을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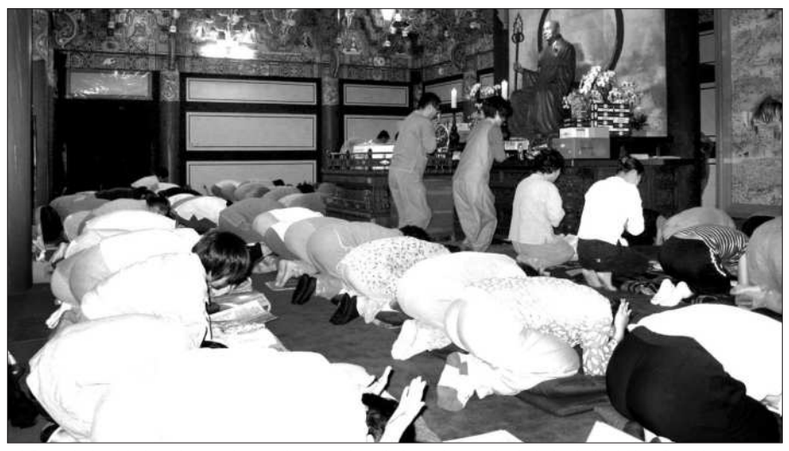
이번 참여가 9번째라는 김수연(34 · 수원) 씨는 "처음에는 내가 3천배를 마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3천배를 하고 나서 마음의 잡념과 불안이 사라지고 온전한 '나'를 만날 수 있게 됨을 느꼈다.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천배 정진에 8번째 참여한다는 현상훈(21 · 남)씨를 따라 온 친구도 있었다. 전병준(21 · 남) 씨는 "상훈이가 정진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이고 활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일본으로 유학가는 상훈이와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비라 카페의 '3천배 정진' 특징은 가족단위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부모님을 따라 온 가족 단위가 100여 명이 넘었다.

경북 경산에서 온 정동승(47 · 남) · 김희숙(47 · 여) 부부는 예린(8) · 용담(6)이와 함께 3천배 정진에 참여했다. 정 씨는 "가족들과 영남불교대학에서 저녁 7시 마다 300~400배 정진을 하고 있다. 아이들도 곧잘 따라한다. 절 수행은 가족을 화목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아비라 카페 회원들은 3천배 정진에 앞서 카페 창립 10년을 축하하는 케익을 손수 만들어 법상에 올리고 백련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의 격려법문을 들었다.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제주 등 전국에서 모인 400여 아비라 카페 회원들은 9월 20~21일 해인사 백련암에서 3천배 정진을 회향했다.

2004년 9월 다음 · 네이버 개설
카페 회원수 1만여 명 돌파
매월 셋째 주말 백련암서
성철 스님 가르침 새기며 3천배

원택 스님은 "10년의 세월동안 절 수행을 열심히 하는 회원들이 많이 늘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며 "1천배, 3천배 하는 것은 업장을 소멸시키고 화두참선을 할 수 있는 몸과 상태를 만들어 준다. 매월 백련암에서 정진하는 것을 '또 가야하나' 라고 말고 '벌써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비라 카페 회원들이 10년간 오직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덕도 거사(최정태 씨 · 51)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덕도 거사는 원택 스님의 〈성철 스님 시봉 이야기〉를 읽고 능엄주와 아비라기도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매일 능엄주 21독과 절 500배를 하기 시작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묘한 매력에 빠지기 시작한 덕도 거사는 수행을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 결과 생긴 것 이 '아비라(다음: cafe.daum.net/abira, 네이버: cafe.naver.com/abira)' 카페다. 2004년 9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능엄주와 3천배, 아비라기도를 적극 홍보하고 좋은 글들을 퍼 날랐다. 2004년 11월 부터는 오프라인 3천배를 시작했고, 이후부터 꾸준히 월례 행사로 자리 잡았다.

덕도 거사는 3천배 정진에 대해 "절을 하면 하심(下心)이 된다. 둘째는 절을 하면 할수록 참회가 된다. 전생부터 수많은 죄를 지어왔기에 참회를 하지 않고는 윤회를 끊을 수 없다. 셋째로는 탐진치 삼독을 제거할 수 있다"며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 절을 하기가 쉽다. 혼자 하면 3천배가 결코 쉽지 않다. 또 매달 도반들을 통해 자신의 수행을 점검해 볼 수 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는데 도반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덕도 거사는 "온라인 카페가 운영이 잘 안될 때는 오프라인 3천배 정진에 3명만 나온 적도 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의리 있는 도반들이 저를 지켜 주었고, 불보살님들께서도 알게 모르게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 같다"며 "아비라카페의 전국적인 지역 틀이 갖추어지고 안정되면, 각 지역에서도 성철 스님 법을 실천하는 가행정진신행단체가 됐으면 한다. 그렇게 해서 성철 스님의 중도 가르침을 천하며, '화두일심법' 과 '절능엄아비라방편법' 을 지속정진 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합천 백련암=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아비라 카페는…

아비라 카페는 2004년 9월 덕도 거사(최정태, 닉네임 '어질이')가 만들었다. 카페는 성철 스님 법문을 비롯해 회원들의 수행일기, 선림고경총서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9월 26일 현재 다음 8,351명, 네이버 3102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카카오톡 단체 톡방 · 네이버 밴드 등에서도 1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덕도 거사는 "2만 여개가 넘는 인터넷 불교 카페 가운데 사찰 주도가 아닌 재가자 중심의 모임으로는 최대 규모"라며 "10년의 역사 속에 20여 명에 이르는 출가자를 배출한 것도 카페의 큰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9월 20일 아비라 카페 회원들이 원택 스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불교여성硏, 글로벌 인재양성과정 개설

'제4차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젝트'…10월 11일부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 산하 불교여성연구소(소장 조은수)는 불교계 차세대 여성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젝트(GEP) 과정을 운영한다.

샤카디타 코리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GEP(Global Empowerment Project)은 20~30대 차세대 불자를 대상으로 불교영어 통번역 능력을 길러서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해낼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한 교육과정이다.

프로그램은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강하며 격주로 5개월간 진행된다. Buddhism(불교) · Women(여성) · Global(글로벌) · Leadership(리더쉽) 등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조은수 교수(서울대 철학과)가 '불교 영어 개념어 총정리'를, 조성자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교 명문 에세이 강독'을, 박선미 전문번역가는 '번역의 경험과 좋은 글쓰기', 홍연주 국제동시통역전문가는 '동시통역의 이론과 실제', 수잔 크라우더 한(미국 교환학생CIEE 재단 디렉터)이 '외국인이 본 한국의 젊은이'를, 이혜숙 객원교수(금강대 응용불교학과)가 '젊은 그대에게 불교란 무엇인가'를, 임수민 과장(페덱스코리아 교육담당)이 '여성 프로페셔널'을, 크리스틴 브링스(독일연방코치협회 코치) · 남혜경 한국코치협회 홍보국장의 '내가 설계하는 인생' 코칭을 강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박 2일 템플스테이 체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은 (재)대한불교진흥원, 불교여성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 산하 사업센터)와 샤카디타 코리아의 후원 및 소정의 참가비로 이루어진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2015년 6월 23~30일 인도네시아 요기야카르타(Yogyakarta)에서 열리는 제14회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대회에 참가해 발표문 통번역 봉사 기회가 제공된다.

불교여성연구소는 "한국불교의 미래는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달려있다. 그들의 잠재역량을 키워 세계무대에서 실험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불교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 소양을 키우고자 하는 20~30대 여성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02)722-2101

이나은 기자



불교여성연구소는 10월 11일부터 5개월간 불교계 차세대 여성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젝트(GEP) 과정을 운영한다.

3박 4일간 금강경 독송으로 자유찾자

바른법연구원 10월 9~12일 용평리조트서 금강경 수련회

3박 4일 동안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토론하는 수련회가 열린다.

〈금강경〉 연구 및 수행모임인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이사장 김원수)은 10월 9~12일 용평리조트 그린피아 콘도에서 '제3회 금강경 연수원 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는 매일 〈금강경〉을 7독하고 조별 연구 및 분임토의를 통해 〈금강경〉의 사회적 실현 방편을 모색하는 공부모임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수련회 기간 동안 매일 오전 3시 금강경 3~4독을 시작으로 조별로 금강경 독송정진과 토의를 통해 금강경의 뜻을 새기게 된다. 또한 8개 조별로 4차례에 걸친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대중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각 조는 '금강경 공부의 필요성과 당위성' '현대 인문학의 위기와 금강경' '금강경 사구게를 통한 삶의 전환' '위대한 인생을 실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기경영 실천법' '금강경식 리더십과 성공의 노하우' '현행 교육에서 바라본 금강경' '글로벌 리더 인재 양성을 위한 금강경 연수원 커리큘럼' '아인슈타인이 반할 금강경식 공부법' 등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다. 수련회 기간동안 1일 2식을 실천해야 하며 10월 3일까지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제3회 금강경 수련회는 매일 〈금강경〉을 7독하고 조별 연구 및 분임토의를 통해 〈금강경〉의 사회적 실현 방편을 모색하는 공부모임으로 마련됐다.

바른법연구원은 "금강경을 공부하게 되면 안식처라고 생각한 현실은 부처님 말씀처럼 모두 불타고 있는 불안한 곳임을 깨닫게 되며 비로소 각종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롭고 청량한 본가(本家)를 발견하게 된다"며 "단 3박 4일만이라도 금강경을 7독해 업보에 끌려다니는 바쁜 마음을 바꾸는 금강경 연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031)963-2872 이나은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시 읊고 왈츠추고…10월은 노인문화축제의 달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가 열린다. 시낭송회, 탁구대회, 걷기대회 등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새로운 노년상 정립을 위해 축제 역시 젊어지고 있다. 어르신뿐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관련 행사를 모아봤다.

시낭송과 함께하는 문화축전

가을, 넘치는 감수성을 함께 나누는 문화의 장이 열린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일운)은 9월 27일 부터 10월 16일까지 '10월 노인문화축제' 를 진행한다. 시낭송, 라디오방송, 사진전시 등이 어우러진 '낭만축제' 다. 올해 4회를 맞는 행사는 '사람을 그리다. 사람을 이야기하다. 사람을 어우리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복지관 문화학교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재능을 선보이며 지역주민과 소통한다. 개막식은 9월 27일 성남 분당 율동공원 야외무대에서 진행됐으며, 어르신 시낭송회와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 이라는 주제로 사진작품이 복지관 1층 로비에 전시된다. 이어 10월 10일에는 어르신 라디오 방송 '28청춘 82청춘' 이 12시부터 열린다. 그린나눔장터, 티아트(Tea-Art), 가훈써주기도 진행된다.

송판깨기 · 걷기대회 등 활력마당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 걷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굵직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10월 15일 개최되는 '신노인문화 인식개선 걷기대회' 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노인 이미지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노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된다. 총 1천여명의 어르신들이 자신의 바람을 적은 풍선을 들고 조계사에서 광화문을 돌아온다. 이와 더불어 송판격파와 다트 등 노인인식깨기 이벤트도 열리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밴드인 상상밴드가 축하공연을 펼친다.이날 대회에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이벤트도 준비된다. 노인생애체험은 시력이 감퇴하고 청력이 떨어지는 등 노인이 되면 겪게 되는 신체 기능의 저하를 도구를 통해 미리 체험해봄으로써 노인에 대한 이해폭을 넓힐 수 있다. 행사기간에는 건강검진, 교양강좌, 나눔장터 등이 이어진다. 복지관 내 1층로비에서는 국화화분을 나눠줄 예정이며 10월 14일에는 골밀도, 우울증, 청력, 구강, 손청결 등 5대질환에 대해 무료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이어 10월 1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복지관 강당에서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 '인간관계탐구 나 그리고 너 이해하기' 란 주제로 교양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 '풍성'
노인체험 이벤트 · 공연 · 장터 등
지역주민축제로 발돋움 중



지난해 10월 일산 호수노인문화축제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고 있다.

복지관 연합 탁구대회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에서는 10월 10일 제8회 호수노인문화축제 및 서울 · 경기 · 인천 노인복지관 탁구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복지관 잔디마당과 경기영상과학고 미디어파크에서 나뉘어 진행된다. 잔디마당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노인문화축제가 열리며 각종 축하공연이 오후 4시까지 이어진다. 또한 올해로 팔순을 맞으신 어르신들과 가족, 친지를 모시고 진행하는 팔순잔치도 열린다.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선보이는 특별공연이 선보이며 캐리커쳐 그리기, 수지침 놓기, 재미로 보는 사주, 궁금하다 스마트폰, 반짝반짝 네일아트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된다. 미디어파크에서는 서울 · 경기 · 인천 노인복지관 회원을 대상으로 탁구경기가 펼쳐진다. 남녀단식, 복식, 혼합 복식 등 총 5개 부문으로 경기가 나뉘어 진행되며 총 30개 기관에서 5백여명이 참석해 경쟁을 펼친다.

복지관별 노인문화축제

기관명	내 용	일 시	장 소	전 화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사물놀이, 예능경연대회	10.2	복지관 야외무대	02-385-1351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걷기대회, 화분나눔	10.13~16	복지관, 조계사 일대	02-742-9500
쌍문노인복지센터	축하공연	10.8	복지관 내	02-900-4641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축하공연, 네일아트	10.2	강북문화예술회관	02-992-6783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시낭송, 라디오방송	9.27~10.16	복지관 내	031-731-5520
일산노인종합복지관	탁구대회, 공연	10.10	복지관, 미디어파크	031-919-8677

춤 · 노래 어우러진 축하공연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에서는 10월 2일 '시니어 樂(락) 축제' 를 연다. 행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며 복지관내 예술동아리인 심동예술단 어르신들이 파소도블레, 왈츠, 한국무용, 민요 등을 선보이며 막을 올린다.

이어 서울여대 치어리더팀과 플라맹고, 비보이 댄스팀이 출연해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돋운다. 트로트 가수의 무대도 준비돼 있다. 여성 어르신들은 메이크업과 네일아트를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추억의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 신나는 놀이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 참석 어르신을 대상으로 행운권을 나눠주고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간도 가진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에서는 10월 2일 10시부터 복지관 야외무대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은평구내 노인복지관인 역촌, 불광, 갈현, 응암, 신사복지관과 은평시니어클럽이 공동주관하는 대규모 행사다. 총 2천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돌아온 청춘악단 공연과 '울력' 사물놀이팀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제1회 은평어르신예능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은평노인복지관 댄스스포츠팀의 공연이 이어진다. 모범어르신 및 어르신복지기여자에 대한 표창수여와 장수어르신 격려 시간도 예정돼 있으며 2부에는 가수 장미화씨가 축하공연을 가진다.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은평어르신 예능경연대회가 진행돼, 은평구 관내 7개 노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13개팀이 대상을 놓고 끼와 감성을 선보이는 무대도 마련된다.

쌍문노인복지센터(관장 지현)는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쌍문동노인복지센터 강당에서 관련 기념식을 개최한다. 어린이집 원아들의 깜찍한 공연으로 문을 열고 이어 타악그룹 타고가 출연해 국악공연 '얼씨구 한마당' 을 1시간 동안 진행한다. 이날 참가한 어르신에게는 점심식사와 기념품이 제공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몽골 마을공동체 건립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준공한 몽골지역 주민공동체센터.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지난 9월 16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에서 차로 9시간 떨어져 있는 몽골 중부지역 우브르항가이 아이막 아르바이헤르 지역에 공동체센터를 준공했다.

이번에 지어진 우브르항가이 아이막 공동체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마을회관 및 공동작업장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의 '두레', '계' 와 같은 주민자조그룹을 형성해 소득증대사업과 같은 마을 공동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몽골 현지NGO인 'CHRD(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와 협력해 지어진 이 곳은 앞으로 200여명의 우브르항가이 자조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다양한 경제 · 연대활동을 해나간다.

우브르항가이는 칭기스칸이 몽골 수도로 삼았던 '카라코룸' 이 있는 지역이며 몽골에서 가장 존경받는 불교 지도자이자 예술가인 '자나비자르' 스님이 30년간 수행과 작품활동을 했던 '틉흥사원' 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브르항가이 도청의 행정담당관 바타르씨는 "마을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최초 공동체센터 건립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 고 재단측에 인사를 전했다.

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소련이 몽골을 지배한 지난 70년간 몽골내에서는 모든 종교활동이 금지되면서 700여개의 사찰이 파괴되고 스님들이 학살당하거나 강제노동소에 끌려갔다. 그러나 여전히 몽골 대다수 인구는 불교를 신봉하며 천막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 며 "재단은 몽골에서의 사회복지사업을 확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08년부터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 외곽의 빈민촌 바얀주흐르구 동에서 다목적복지시설 '드림센터(Dream Center)' 를 건립해 청소년들 대상 방과후공부방, 도서관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다. 또한 올해 2월부터는 몽골 현지NGO인 CHRD와 협력하여 울란바토르시 빈민촌에서의 주민저축그룹 구축을 통한 자활사업과 우브르항가이에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펼쳐기 시작했다.

배현진 기자

승가원 행복나눔 바자회

10월 16일 이천시복지타운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희광)과 승가원자비복지타운(원장 묘전)에서는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이천시종합복지타운 주차장에서 '승가원 행복나눔 바자회' 를 개최한다.

전문 브랜드의류와 생활용품 등 여러 물건이 마련되며 다양한 먹을거리를 맛볼 수 있는 장터도 개설된다.

바자회를 통한 판매 수익금은 전액 이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바자회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주관하고, 이천시장애인복지관과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이 주최한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바자회 진행을 위한 물품 후원을 받고 있다. (031) 637-6720

배현진 기자

참가비 무료… 가을소풍 떠나요

선암호수노인복지관(관장 이성호)에서는 가을 정취를 느끼며 복지관 회원들이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10월 22일 가을소풍을 떠난다.

목적지는 거제도와 구미 금오산이다. 각자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며 참가자 모집은 10월 2일까지다.

이와 함께 복지관에서는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 '마음을 여는 대화'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은 자신과 타인의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대화법을 강의한다.

10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8회기로 진행된다. (052)268-6080

천원으로 배우는 행복 강좌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완)에서는 천원의 행복 강좌 시리즈를 10월 한달 동안 다양하게 진행한다.

10월 14일과 21일 2회에 걸쳐 진행되는 강좌에서는 엄마 손길이 깃든 토끼 인형을 만들 수 있다. 완성작도 63cm로 제법 크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재료비는 3만5천원이다.

이어 10월 15일에는 생활 속 화학물질 줄이기 및 부동산 피해예방에 대한 특강이 열리며 20일에는 경락마사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에는 천연세탁가루비누 만들기 강좌가 열린다. 재료비는 5천원이다. (02)376-4141

화엄경 강좌 모집
원조각성 대 강백 큰스님 직강

귀의삼보하옵고
한국불교의 대 강백이신 원조각성 큰스님의 직강으로 그간 4년 동안 대반열반경을 마치고 다시 화엄경을 개설하였습니다.
〈화엄경〉은 화엄부의 대표적인 경전으로서 한국불교의 수행과 신앙형태에 영향을 끼친 경전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대승사상의 진수요 광대무변하게 우주에 편만해 계시는 붓다의 만덕(萬德)과 갖가지 꽃으로 장엄된 진리의 세계를 설하고 있는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성큰스님께서 생전에 마지막 화엄경 강의를 통해 후학들에게 전수한다는 마음으로 화엄사상의 핵심만 정리된 내용의 대 강좌입니다. 먼저 법성게 화엄일승법계도, 핵심적인 게송과 화엄경약찬게, 입법계품의 53선지식, 십지품 등 화엄경요지를 요약해 강설하십니다.



• 강의일시 : 2014년 10월 21일 첫 강의 셋째주 화요일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문화관2층) 학명세미나실
• 수 강 료 : 1년 스님 70만원, 재가자 80만원
• 대 상 : 비구, 비구니, 재가자
• 구비서류 : 이력서
• 접수기간 : 2014년 10월 20일까지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90401-04-043930 (예금주 : 최재동)
• 전화문의 : 010-4242-7070 / 경남부산 전화문의 010-8563-9377 범철스님 / 사무장 010-5311-5150

주최 _ 동국대학교 정각원 원장 중화법타 합장 주관 _ 통화불교 전강원 경전연구회장 화영법경 합장

봉 행
소년소녀 가장돕기 제5회 산사음악회
화순동복 모후산 도원사 개원 10주년 기념 1080연등불사 불자 노래자랑

• 1부 : 내외귀빈 축사, 장학금 전달식 (소년 · 소녀 가장)
• 2부 : 문화공연, 신도 노래자랑, 경품추첨(푸짐합니다)
• 3부 : 초청가수 공연 – 사회 (장훈), 품바, 특별출연 (현진우, 신동),
가수 (정현, 정주호, 현주, 허승자, 김자운, 박동운, 이진숙), 광주난타

※ 식전행사 : 모후산 풍물단 지심밟기

■ 행사장 오시는 길 : 화순군 동북면 한천리 한천농약 전수관 (네비 찍고 오십시오.)

◆ 장소 : 모후산 도원사 야외음악단
◆ 일시 : 2014년 10월 5일(일요일) 오후 2시



– 주관 :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각종 총무원
– 주최 : 도원사 거사림회, 방생회, 신도일동 – 스님 모임 달마회
– 협찬 : 선각종 전국교구본사, 불교TV광주방송, 광주일보, 호남일보, 현대불교신문, 화순군[illegible]회, 삼천불교상사, 광주사랑모임, 영진골재중기(화순읍), 신세계약국, 한일리모델링, 금호타이어, 한우곰탕, 금강민물식당, 오리꿀꿀, 금성식당, 맛갈샘식당, 우진관광, 동복하나로마트, 동복청초목장, 매실내떡방앗간, 사평맛고을식당, (주)천하산업, 해남 장성제재소, 부안(유)산불농산 등

대한불교 선각총림 전남교구원장 도 원 사
주지 진철 신도회장 오찬열 두손모음
연락처 : 061)372-1047 / 핸드폰 010-6258-8325. 010-4433-0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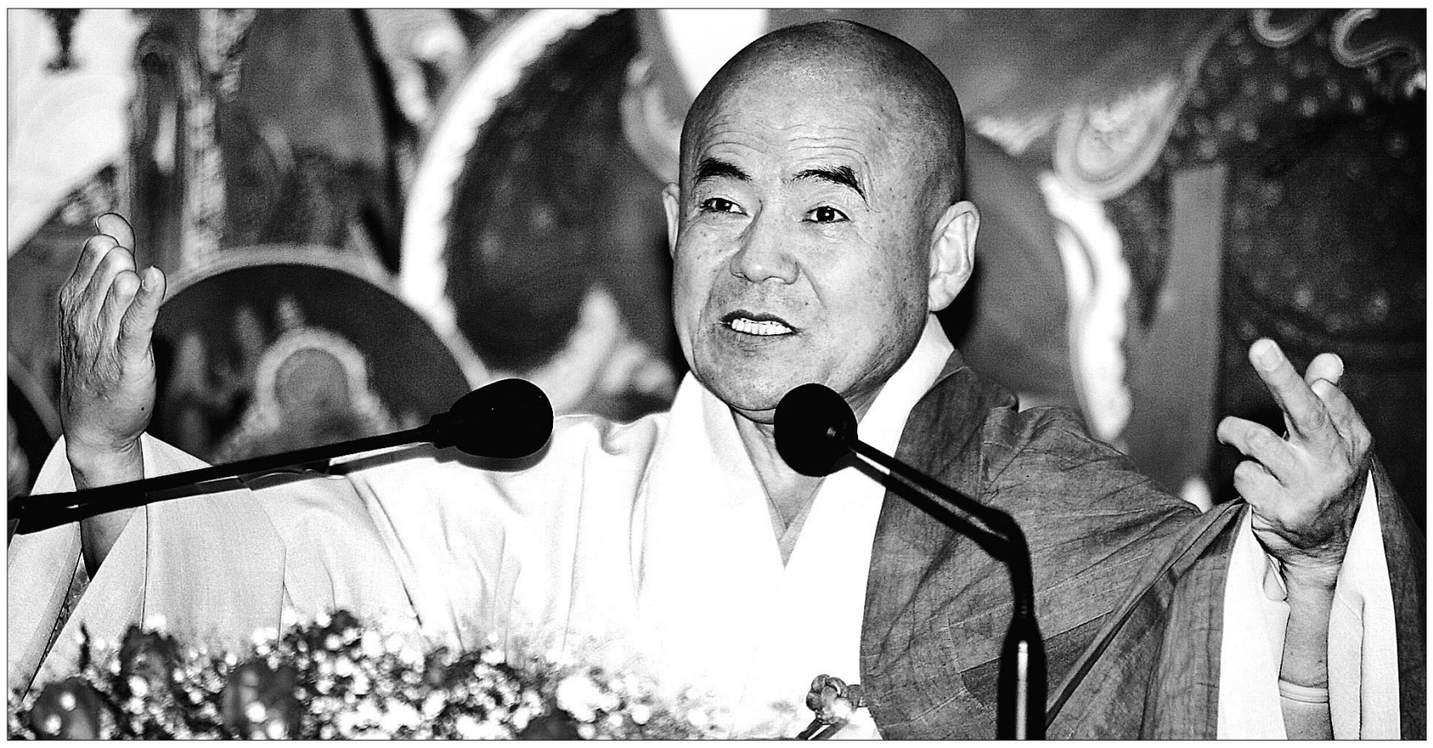
“한 번의 참기도 위해선 만 번 헛절 해야”

불광사 선지식 초청법회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당신이 눈 감는 날, 깨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인생은 감정 놀음에 요동치기만 했을 뿐 당신은 삶을 마음껏 살아본 적이 없다고요”.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혜국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수처작주하는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스님은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고통과 슬픔을 손님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한 번의 참절을 위해서는 만 번의 헛절이 필요하다며 부단히 좌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진이라고도 했다. 9월 21일 불광사 선지식법회에서의 혜국 스님을 만나본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혜국 스님은 … 1961년 일타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1970년 성불을 다짐하며 소지공양 이후 태백산 도솔암에서 2년7개월 간 장좌불와 수행을 했다. 1973년부터 1994년까지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전국 선원에서 수십 차례 안거에 참여했고 경봉, 성철, 구산 스님 문하에서 수행정진했다. 제주 남국선원, 부산 홍제사를 창건하고 현재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이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으로 살라. 오늘 법문의 주제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다들 착각하고 살지만 부처님 안목으로 보면 내 안의 못된 성질, 화나는 성질, 내 맘대로 되길 바라는 욕망에 따라 나는 감정의 노예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죠. 이렇게 본다면 눈감는 날, 여러분은 감정의 흐름을 타느라고 소중한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서 벗어나고,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49년을 길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이는 인류를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훗날에도 부처님이 걸어가신 길이 인류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인 노릇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된 성질에 빠져있고 죄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108배를 1년 동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다짐했다가도 얼마 못가서 흐지부지되고 마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자신, 주인이 맹세하는 것을 오래 지키지 못하고 업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시간만 되면 업을 따라 가고 싶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1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업따라 사느라 낭비하고 있어요.

나를 깨우치게 한 성철 스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동진출가한 후 열심히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절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 글쓰기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고백도 못해보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서 혼자서 끙끙 앓은 거죠. 마음이 하도 힘들어 해인사에 계시던 성철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희랑대를 거닐던 스님을 앞에 두고 냅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세 번했죠. 성철 스님이 단박에 알아차리시더군요. 가시나 생겼냐고. 그리고서는 저를 데리고 법당으로 가시더니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보이냐고 물으셨고 전 다시 눈으로 봅니다고 했죠. 불을 끄셨습니다. 다시 물으시더군요. “이거보이냐”. “아니요. 안 보입니다”. “아까 눈으로 본다 했는데 어두우면 왜 안 보이노. 부엉이나 올빼미는 깜깜할수록 더 잘 보는데 말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입 역시 마찬가지다.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이 몸뚱이를 끌고 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길이 주인으로 사는 길이다”.

성철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처음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것이 지난 1백년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꼽았습니다. 대개 종교는 자기 것이 옳다고만 주장하죠. 그런 교리 가지고는 세계평화는 물론 자기 가정도 평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두가 한 허공입니다. 똑같아요. 벽을 허물든 아니든 한 법신이죠. 불교 외에는 세계평화 희망이 없다는 걸 토인비는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 자기 자신 놓치지 말아야 고요 찾아
> 고요할 것 없는 본래 고요가 참모습
>
> 수처작주하기 위해서는
> 내가 바로 부처임을 믿고
> 고통을 손님 맞이 하듯 해야 돼

진리는 바로 내 코앞에 있어

불교는 이처럼 내 벽을 허물고 온 우주가 나라는 사실을 이야기 합니다. 수처작주 역시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밤은 어둡지만 태양은 그 빛을 줄인 일도 없고 장소를 옮긴 일도 없습니다. 주위가 깜깜해진 이유는 지구가 태양광명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빛이라는 마음광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내가 죄인 것입니다. 마음광명에서 돌아섰던 내가 다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는 죄가 없습니다.

주인이 되려면 먼저 믿어야합니다. 신앙과 신심은 다릅니다. 부처님법은 신앙이 아니라 신심이에요. 신심이란 과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에 끄달리는 것, 그것이 죄지 그 감정만 이겨내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부처입니다. 어두움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발심으로 이어져야합니다.

한국선방문화는 너무 수행으로 치우치다보니 삶과 하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판쪽은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수행과 따로 놀고 있어요. 전등불을 켜면 그냥 밝아지는 것이지 불과 밝음은 둘이 아닙니다. 수행도 중생구제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갈 수 있어야 수행입니다.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죄가 없다는 마음광명을 본인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날마다 운명을 바꿔나가는 것이 주인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비교하지 말아야합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당도한다

한 번은 기쁨, 한 번은 좌절, 한 번은 야비함
거기에, 약간의 찰나적 깨달음이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들을 맞아 즐거이 모시라(중략)

고통, 슬픔 등을 내 마음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우리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자식들 가운데 부모말 잘 들으려고 온 아이들이 있나요? 뭔가 자기가 받아야할 빚이 있거나 찾아먹어야 할 것이 있거나 할 때 자식들로 태어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할게 아니라 기쁨, 슬픔을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눈으로 담는 것은 나가는 손님, 귀로 들리는 것은 들어오는 손님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손님대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이영도 시인의 단풍이란 시를 감상해보죠.

너도 타라 여기
황홀한 불길 속에
사랑도 미움도
넘어선 정이어라
못내 던
그 청춘들이
사뤄 오르는 저 향로!

단풍이 지는 것이나 새싹이 돋아나오는 것이나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손님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를 잘 살피면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걸음걸음 진실을 밟으라

제가 소지공양을 하고 태백산 도솔암에가서 장좌불와하며 공부를 하려는데 공부가 잘 안되더군요.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자살시도를 했는데 낙엽 위에 떨어져 살아났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다고요.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공기를 만들어 내 코에 넣어준 공덕으로 살고, 물이 내 입에 들어와 갈증을 해소해주는 등 우주전체가 나를 왕자처럼 떠받들어 주기에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자연과 나는 하나였습니다.

부처님 법을 깊이 믿어보면 우리는 희망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절을 안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하루를 살되 깨어있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 방법을 실천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아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눈으로 나가는 손님과 귀로 들어오는 손님을 쥐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홧병이 되는데도 말이죠. 마음에 붙들고 있으면 상처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모든 세계가 공적함을 믿어야 합니다. 옛 어록에 어떻게 수행해야하는지를 묻는 제자와 이에 대해 답을 하는 스승이 나옵니다. 스승은 ‘오직 걸음걸음 진실을 밟으라’ 고 답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루하루 내 감정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 부처를 기쁘게 하느냐 이것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감정에 끌려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항상 자기자신을 놓지 않으면 자기 고요를 찾게 됩니다.

더 이상 고요할 것이 없는 본래 고요가 여러분의 마음고향, 본모습입니다. 좌절대신 희망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의 집입니다. 그것을 위해 내 본래 인격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 하기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참절을 하려면 만 번의 헛 절을 해야하고 한 번의 참된 기도를 위해서는 만 번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안에 망상이 일어날 때 내안에 찌거기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차리고 그 모습을, 자기 단점을 싫어하지 마세요. 자기의 못된 성질을 사랑하세요. 내 안의 단점이 그래도 날 이끌고 와서 이렇게 부처님법을 만났구나하고 생각하세요. 이 단점을 기도로 바꿔 관세음보살로 이뭣고로 바꿔 수처작주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종단 차원 찬불가 제정위 설립 시급"

'불교음악발전 토론회'서 발제자들 한 목소리

박범훈 "대중 찬불가 보급위한 찬불가집 편찬 지원"
정부기 "전문인 부족이 불교음악 발전 저해"
박상진 "해외서 통용가능한 글로벌 찬불가 개발"

"우리 역사에 살아 숨쉬는 불교음악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 감각을 적용한 불교음악을 개발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불교음악 제정위원회가 종단차원에서 설립돼야 합니다. 불교화음을 엄격히 적용한 의식곡부터 랩, K팝 등을 차용한 생활찬불가까지 다양한 불교음악 장르의 육성이 종단차원에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범패 등 전통불교음악과 더불어 1920년대 백용성 스님의 찬불가 보급 이후 발전해 온 찬불가와 같은 불교음악을 보다 대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불교음악발전 토론회'가 9월 25일 조계종 문화부 주최로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박범훈 중앙대 명예교수, 정부기 중앙대 교수, 박상진 동국대 교수 등 관련 학자들은 종단차원의 불교음악 제정위원회의 설립과 불교의식곡 연구, 생활찬불가집 편찬 장려책 등을 강조했다.

박범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먼저 불교음악의 장르가 전통불교음악과 현대불교음악으로 나뉘며, 현대불교음악에서 의식곡과 생활찬불가로 나뉜다고 분류했다.

박 교수는 "생활찬불가는 '보현행원송', '관세음의노래' 등 이름을 되도록 불러 대중들이 친숙하게 느끼게 해야 한다. 이와함께 찬불가집 보급에도 전불교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명예교수는 전통불교음악은 옛 모습을 그대로 전승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의식곡은 불교전통을 반영, 생활찬불가는 K팝 등 다양한 장르를 차용해 대중에게 널리 불려지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박 교수는 전통불교음악, 의식곡, 생활찬불가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제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박범훈, 정부기, 박상진 교수가 모두 연단에서 청중들과 불교음악 발전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찰합창단 단장, 불교음악작곡가, 출판사 대표 등 불교음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기 중앙대 교수도 토론에서 제정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밝히며 현재 불교의식곡에서는 기독교 찬송가의 색채가 강하기에 불교전통을 강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먼저 불교전통을 계승하는 불교음악 보급에는 조계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 양성을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의 공통의식 도입 등을 통해 전통불교음악을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불교음악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함과 동시에 의식곡이나 찬불가를 가르치는 전문인이 부족한 점이 불교음악의 발전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지원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진 동국대 교수는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소녀시대의 노래 등 K팝에는 한민족 특유의 리듬이 있음을 지적하고 불교음악도 이같은 전통을 살려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요소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이면의 휘몰이장단은 우리 불교음악 속에도 녹아있다"며 "글로벌한 불교음악을 통해 해외 불교국가에서 함께 합송하는 등 불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불교음악의 전통성과 대중성 강화에 대한 방안이 논의했다. 사찰 합창단 단장, 불교음악 작곡가 등 토론자들은 개신교계에서 찬송가를 쉽고 대중적으로 만들어 발전시킨 것과 예배에서 참석 대중이 모두 함께 합송하는 점 등을 예로 들고, 불교법회에서의 변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죽음 공평하다는 당위성 지닌 공동체가 행한 것이 수륙재"

진관사 9월 23일, 수륙재 무형문화재 지정 1주년 기념 시연

"국행 수륙재는 조선 초 왕조교체 과정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의 원혼을 달래는 국가 차원의 행사였습니다. 이같은 수륙재의 의미를 되살려, 수륙재 재연이 세월호의 아픔으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와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는 9월 23일 서울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1주년을 맞아 기념 시연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행사에 앞서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오늘 행사는 계층간, 세대간 배려와 소통의 부재로 드러나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다양한 사건 사고로 희생된 국민들을 위로하는 의미가 크다"며 "수륙재가 종교영역을 넘어 한국불교문화, 그리고 한국전통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대독을 통해 "수륙재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불교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인정받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1주년을 기념해 다시금 당시의 수륙재 의미가 되살아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진관사수륙재보존회 어장(魚丈)인 동희 스님과 어산(魚山)인 진성, 동환, 무비, 법밀, 일구, 혜월, 기범, 지운 스님이 직접 국행수륙재를 시연했다.

제2부 학술세미나에서는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불교민속과 진관사 국행수륙재(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불교철학과 진관사 국행수륙재(신규탁 연세대 교수) △한국문화와 진관사 국행수륙재(황루시 관동대 교수)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연행과 의례 또는 민속적 의의(홍태한 중앙대 대우교수) △진관사 국행수륙재 범패의 의식 음악적 기능(양영진 국립국악원 학예예연구사) △진관사 국행수륙재 의식무의 기능과 동작 분석(이애현 남서울대 교수) △조선전기 진관사 수륙사의 건축(이강근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1주년을 맞아 열린 진관사 수륙재 시연 행사에는 300여 대중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이날 축사를 위해 단상에 선 스님들과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사건 수습에 수륙재와 같은 국가위무행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황루시 관동대 교수는 "죽음은 공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닌 공동체가 범윤리적 차원에서 진행해온 것이 바로 수륙재"라며 "수륙재 설행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지속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 가장 아픈 곳은 진도 앞바다"라며 "모든 수륙재는 팽목항 바다에서 스러진 가엾은 넋을 위로하고 결코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의례"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호류지 금당벽화, 담징 아닌 백제인 제작"

이도학 교수, '백제와 고대 동아시아' 세미나서 주장

일본의 불교 수용을 논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 중 하나가 호류지(法隆寺)다. 호류지의 금당 벽화를 고구려의 담징 스님이 그렸기 때문이다. 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초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당 벽화를 그린 불모(佛母)는 담징 스님이 아닌 백제계 장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는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가 10월 1일 개최한 '백제와 고대 동아시아' 주제 학술세미나에서 호류지 금당 벽화를 그린 사람은 백제계 장인 '도리붓시(止利佛師)'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왜의 불교 수용과 백제계 사찰의 건립배경 및 성격'을 제하의 발제문에서 "일본 호류지 금당 벽화를 고구려의 담징 스님이 그렸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면서 "하지만 담징이 호류지 벽화를 그렸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일본 역사서 기록을 사례로 들며 백제계 장인 '도리붓시'를 조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반구고사편람(斑鳩古事便覽)〉에는 "금당 사방벽에 그려진 동방약사정토 · 서방미타정토도는 도리붓시가 그렸다"고 기술했고, 헤이안 시대 편찬된 〈칠대사일기(七大寺日記)〉에서도 법륭사 금당 벽화를 그린 이로 '도리붓시(止利(鳥)佛師)'를 주목하고 있다. 가마쿠라시대 저술인〈태사전사지(太子傳私記)〉에서도 "(금당 벽화의) 불국정토를 그린 '도리(鳥)'라는 회사(繪師)가 이것을 그렸다고 한다"고 기술했다.


일본 호류지 '금당벽화'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도리붓시는 아스카데라(飛鳥寺)의 석가여래상과 호류지의 석가삼존상을 제작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역사서의 기술을 보면서 도리붓시는 호류지의 금당벽화까지 그려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백제대사(百濟大寺), 백제사(百濟寺)의 존재도 주목했다. 이 같이 백제의 국호를 사용한 사찰은 개인 사찰이 아니라 왜왕이나 후대의 천황가와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백제 왕족과 왜 왕족이 연결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중국 계명대 명예교수의 '백제의 대외교류와 문화의 발전' 기조강연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신성민 기자

한일불교문화학회, '군산과 일본불교' 세미나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회장 원영상)는 10월 4일 오후 1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그리고 일본불교문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원영상 교수의 '근대 일본의 종교정책과 군산' △이치노헤 쇼코 스님의 '군산 금강사 3대 아사노 테츠젠 선사 · 타카시나 로센 선사의 전쟁과 전후' 등 논문 4편이 발표된다.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는 5월 31일 일본불교사연구소 해체 이후 관련학자들이 모여 만든 학회다.

이번 세미나 후에는 학회 회칙 및 임원 인준도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청룡사 관음보살좌상' 등 2건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좌상' 등 2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833호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金堤 靑龍寺 木造觀音菩薩坐像)'은 완주 봉서사 향로전(鳳棲寺 香爐殿)에 봉안하기 위해 1655년에 조각승 조능(祖能) 스님이 제작한 것이다.

보물 제1834호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좌상(羅州 多寶寺 木造釋迦如來三尊像 및 塑造十六羅漢坐像)'은 여러 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1625년이라는 정확한 조성 시기와 조성 목적, 제작자, 시 · 발원자 등 불상의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 이 시기 불교조각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11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소리과정(6개월 과정-매주 화요일) :** 오후 3시 ~ 4시 —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 · 무용과정(6개월 과정-매주 화요일) :** 오후 4시 ~ 5시 30분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일초스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 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4년 9월 ~ 2014년 10월 5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97(부평동) 인해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화 : 032)529-6708 /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10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꽃무릇 물결 속 펼쳐진 문화 축제

선운사 9월 19일 동백연, 20일 선운문화제 성료


9월 20일 열린 제7회 선운문화제 보은염 이운식 장면(사진왼쪽 법만 스님)


10일 열린 38회 동백연 경연대회 중 청소년 장기자랑 경연 모습

꽃무릇의 물결로 장관을 이룬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 대규모 축제 한 마당이 펼쳐졌다.

선운사는 9월 20일 선운사 경내 일원에서 제7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했다. '구름속에서 듣는 깨달음의 소리' 라는 주제로 올해 7회째 맞는 선운문화제는 혜도 스님 사진전을 시작으로 지난 꽃무릇 시화전, 서각전시회, 지장보살 특별전, 부도전 다례재, 보은염 이운식에 이어 정율스님, 슬기 둥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가 진행됐다.

선운문화제는 먼저 부도전에서 전국 차인연합회 회원 60여명이 역대 조사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육법공양과 다례재로 문을 열었다. 이어 만세루에서는 법만 스님과 일반 탐방객의 대화마당이 열렸다.

또 1500년 전 양민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일러준 선운사 창건주 검단 스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해마다 양질의 소금이 생산되는 봄과 가을이면 절에 소금을 공양한 것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보은염 이운식' 이 탐방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는 지장보살 특별전이 열려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선운사 금동지장 보살상(보물 제279호)과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보살 제280호), 참당암 지장보살(전북유형문화재 제33호)이 봉안되어 있어 삼장지장보살의 성지로 불리는 선운사에서의 지장보살 특별전은 지장보살 복장물과 지장보살원경, 석씨원류, 아미타경 등이 전시되고 있다. 이번 지장보살 전시회는 10월 16일까지 열린다.

이날 오후에는 정율 스님, 가수 김태곤, 우순실, 퓨전국악그룹 슬기 둥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려 가을밤의 정취를 더했다. 이밖에 만세루에서는 선운서각회와 제남서각회의 서각전시회가 열리고 도량 곳곳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꽃무릇 시화전이 열려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법만 스님은 "언제나 지역과 함께 해온 선운사는 이번에도 지역 주민과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문화제도 즐기고 절정에 이른 꽃무릇도 감상하면서 몸과 마음을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의 대표적 청소년 문화잔치인 '38회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이하 동백연)' 이 9월 19일 선운사에서 열렸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효행사상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동백연에는 지역학생과 학부모 1,500여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선운사(주지 법만)와 고창문화원이 공동주최하는 '동백연' 은 유치부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문화예술 부분과 민속경연부문에 참가해 자신들의 장기를 마음껏 발휘했다.

선운사와 전북체육인 불자연합회(회장 김도영)는 청소년 불자체육인으로서 탁월한 기량으로 국가체육발전에 장래가 촉망되는 임환희(축구 정읍신태인 중학교), 유도 남은영(고창 영선고), 양궁 방현주(임실오수중), 사격 곽은서 (전주 기린중), 근대오종 권성은(전북체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초의문화제, 해남 대흥사 일원서 열려

10월 10~11일 이틀간… 체험학습, 유적답사 진행

초의문화제가 10월 10일부터 이틀간 해남 대흥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초의문화제는 조선 후기 불교와 차의 부흥을 이끌었던 초의선사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공동위원장 범각, 대흥사 주지)가 주최하는 행사 첫날에는 대흥사 경내에서 지역 초 · 중학생들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통 차문화 체험' 과 '떡차 만들기 체험학습', '다산과 초의가 함께한 차유적지 순례' 등이 진행된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다기 · 다구 및 해남 특산물 전시 · 판매장 등이 운영된다. 본 행사가 열리는 10월 11일 오전 8시에는 일지암에서의 '초의선사에게 올리는 헌다례' 를 시작으로 떡차만들기 체험과 행다 시연 등 다채로운 차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오후 2시에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어린이 행다시연' 과 '창작무-초의가 차를 말하다' 공연에 이어 '23회 초의상' 과 '차학술 논문공모전' 등이 이어진다. 부대행사로 차 관련 상품 전시 · 판매, 도자기 빚기체험과 염색체험 등 일반인들이 차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제23회 초의상 수상자로는 설옥자 가예원 원장과 김종규 삼성출판사 회장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11일 기념식장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생명나눔, 소아암 환자 돕기 작은음악회



소아암백혈병 환우 치료비 마련을 위한 생명나눔 음악회가 개최됐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9월 21일 무등산 원효사 입구에서 지역 홍보가수들이 동참한 가운데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과학이 발전했지만 아직까지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곳이 많다. 고통속에 아파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생명나눔에 다함께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홍보가수 주권기, 전민균, 유미랑, 이윤호 등이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행사장에 수익사업을 위한 음식이 판매됐다. 행사의 수익금은 치료비로 사용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나누우리 봉사단 자선음악회

9월 21일 군산 예술의 전당서… 소아암환자 가족에 성금전달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가 열렸다.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와 태고종 나누우리 봉사단은 9월 21일 군산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작은나눔 큰 기쁨, 큰 행복 자선음악회' 를 개최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 진안 마이산 탑산주지 진성 스님, 흥천사 주지 법희 스님 등 스님들과 성광문 前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김승수 성흥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지역 불자 500여명이 참석해 소아암 환자 돕기운동에 동참했다.

자선음악회에 앞서 송월 스님은 군산시사회복지관에서 추천한 6명의 난치병 어린이 환자 가족에게 각각 150만원의 치료비를 후원했다.

도산 스님은 "자비나눔의 음악소리는 방방곡곡에 끊임없이 울려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선음악회에서는 온소리 예술단, 테너 이계향, 가수 김상배들이 출연해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 가족들을 위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용성 스님 오도 128주년 찬탄법회

9월 22일 장수 죽림정사서 개최, 500여 명 참석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이자 3 · 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한명인 백용성 스님의 오도 128주년을 찬탄하는 법회가 탄생지인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에서 열렸다.

9월 22일 죽립정사 용성교육관에서 열린 '용성조사 오도 128주년 기념법회' 에는 도문 스님을 비롯해 정토회 상임지도법사 유수 스님, 수승행 용성조사유훈실 현후원회장, 정토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7여래불, 70전등조사, 7대사 48선지식, 56조사 등 188위에 대한 다례재가 함께 봉행됐다.

도문 스님은 "금어산 천년의 달이요, 낙동강 만리의 파도로다. 고기잡이 배는 어느 곳으로 갔고, 갈대꽃에서 옛과 같이 자도다"는 용성 스님의 오도송을 읊고 "용성 스님께서는 오도를 하시며 대각사상을 선양하셨다. 자각, 각타, 각행, 각만의 대각사상을 실천하여 성불에 길로 나아가는 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 앞서 백용성 조사 유훈실 현에 공로가 큰 수승행 후원회장 등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공군법당 신축이전 낙성법회



한국의 첫 번째 공군비행단인 제1전투비행단에 위치한 호국 금강사(주지 성혜법사)가 9월 20일 신축법당을 이전하고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을 비롯해 500여 대중이 동참했다.

호국 금강사는 광주지역에 위치한 공군부대로 지난 2011년 화재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공군부대내 주거지역으로 이전했다. 군 예산 20여 억원과 불자들의 동참금으로 대웅전 78평, 생활동 145평의 시멘트 벽돌구조에 목조 양식으로 조성됐다.

대웅전 법당은 현대적 감각에 ??화와 단청을 통해 젊은 병사들의 취향에 맞는 시설로 꾸며졌다. 생활동에는 대중공양간, 종무소, 직감실, 어린이방, 다용도실, 북카페 등 다양한 현대적 시설이 들어서 군장병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웅전 앞 마당에는 석가탑을 모형으로 하는 3층탑이 조성됐다.

낙성법회에서는 대웅전 현판 제막식, 낙성법회, 삼층탑 제막식이 진행됐다.

정우스님은 법문을 통해 "신축법당이 원만히 건립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부대의 관계자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쾌적한 환경을 갖춘 신축 호국금강사에서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비신행회가 이날 자장면 500인분을 공양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스님 향훈 널리 알리겠습니다”

성철 스님 기념관 개관
10월 1일부터 일반에 개방





백련불교문화재단은 9월 24일 성철 스님 기념관의 세부적인 사항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 왼쪽은 기념관 전경, 오른쪽은 이사장 원택 스님이 기념관 설립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1층 법당, 2층 수행정진 공간
출가송과 오도송 3㎝로 조각
관람객 하루 4백명 이내 제한

성철 스님의 생가터가 있는 경남 산청 겁외사(주지 원암) 부지에 스님의 수행정신을 이어받은 기념관이 개관한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9월 2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성철 스님 기념관의 세부 사항을 언론에 공개했다.

성철 스님 기념관은 유물이 보관 · 전시되어 있는 타 사찰의 기념관과 달리 성철 스님을 참배하고 큰 스님의 가르침과 수행을 전파하고자 설립된 3층 높이의 현대식 기념관이다.1층은 성철 스님을 참배하는 법당으로 2층은 방문객들이 성철 스님이 살아생전 강조하던 수행을 정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이 마련됐다.

관람객이 들어서는 기념관 입구를 중심으로 양 벽면에는 성철 스님의 출가송과 오도송이 원형 직경 3m의 크기로 조각 · 설치물로 조성됐다. 또한 성철 스님의 모습들이 담긴 사진 100여장의 타일들이 성철 스님을 추억할 수 있도록 양 벽면에 구성됐다. 이 사진들은 성철 스님이 머물렀던 백련암에서 발견된 사진들을 모은 것으로 성철 스님이 함께 수행했던 스님들의 모습과 수행도량을 감상 할 수 있다.

또한 성철 스님이 평생 동안 수행한 간월암, 겁외사, 김용사, 대용사, 해인사 등 24곳의 도량에 대한 안내가 QR코드로 벽면에 새겨져 있어 본격적인 참배에 앞서 성철 스님의 행적을 방문객들이 따라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성철 스님 기념관 125평의 1층 내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석굴 성불문이다. 좌우 성철 스님의 한글법어가 새겨진 문을 지나면 흰 대리석으로 불사된 성철 스님의 설법상이 장엄하게 설치되어 있다.

설법상 뒤쪽으로는 과거세 연등불, 현재세 석가모니불, 미래세 미륵불을 모셨고 전체적인 석굴 벽면에는 금동 석가모니불 천불을 모셔 석굴 안에 영험을 더할 예정이다.

성불문 외부 벽면 좌측에는 도자기 아미타불 천불 및 관세음보살상, 우측에는 도자기 약사여래불 천불과 보현보살상을 모셔 참배객들이 원하는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님을 모셨다. 또한 금동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은 겁외사 신도들이 매월 10만 원씩 20개월 동안 모연할 예정으로 2015년 4월에 회향한다.

성철 스님 기념관의 불사는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이다. 불필 스님과 원택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이 성철 스님의 생가터가 있는 겁외사가 단순한 기념관이 아니라 불자들이 신앙생활을 정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면서 시작됐다. 2012년 말에 기념관 설계도를 완성했고 열반 20주기였던 2013년 5월에 불사에 착공했다. 총 20억 원이 소요되는 이번 불사에는 국가의 지원 없이 오롯이 불자들의 보시금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700명이 넘는 불자들이 동참했다. 현재도 부처님 봉안 등 모든 불사가 완료될 때까지 동참할 신도들을 모집 중이다.

백련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성철 큰스님의 선 수행 정신과 선 사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참배 및 수행 공간을 마련했다. 성철 스님 기념관 옆에 요사채를 마련하는 등 수행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조성하고자 한다. 많은 신도들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철 스님 기념관은 오는 9월 30일 개관식을 가지고 임시 개관하며 10월 1일부터 매일 일반 관람객 350~400명을 제한해 참배 및 수행 공간을 개방한다. (055)973-1615

김나영 객원기자

불교 무형문화유산 연구 및 계승에 ‘최선’

통도사 영축 불교문화연구소 출범



통도사는 영축불교문화연구소 출범식을 9월 24일 가졌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불교문화 연구 및 계승을 위한 연구소를 출범했다.

통도사는 9월 24일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영축 불교문화연구소 개소식을 가지고 현판을 공개하며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주지 원산 스님은 “앞으로 통도사를 이끌어 갈 젊은 스님들이 연구위원 소임을 맡은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시기가 약간 늦기는 했지만 통도사 유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운암 회주 성파 스님은 “통도사는 우리나라에서 불교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문화의 보고다. 앞으로 우리는 이 불교문화 유산을 어떻게 하면 후대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가 절실히 고민해야 한다”며 전승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한편 영축 불교문화연구소는 무형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이라는 목표를 토대로 현대적인 개발과 보급에 진력한다. 연구위원으로는 소장인 율원장 덕문 스님을 중심으로 명천, 광우, 병천, 송천 스님을 비롯한 재무, 교무, 포교 국장 스님 등 총 9명의 통도사 스님들이 활동하게 된다. 또한 영축 불교문화연구소는 경내 성보박물관과 협력하여 무 · 유형문화재 연구 및 전승에 힘쓸 방침이며 오는 개산대재를 맞아 통도사 고유의 소리와 작법을 발굴한다.

김나영 객원기자

가을밤 환희의 음성공양, 감동의 무대

제18회 울산불교합창축제 9월 25일 열려



울산불교합창축제 공연 장면.

부처님께 환희의 음성공양을 올리는 제18회 울산불교합창축제가 ‘함께 하면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9월 25일 울산KBS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조계종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회장 김복광)가 주최한 이번 울산불교합창축제는 통도사 우담바라합창단을 시작으로 법륜사 마야합창단, 정광사 바라합창단 등 총 13팀이 참가했다. 이들은 찬불가 뿐만 아니라 전래동요, 세계민요 메들리 등 다양한 곡을 선정 대중들을 즐겁게 했다. 또한 솔리스트 앙상블 등 초청공연이 준비되어 합창제의 흥을 더하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참가한 합창단들 모두가 ‘울산아가씨’ 라는 곡으로 연합공연을 선보였다.

김나영 객원기자

“선후배 한자리에 모여 미래 모색”

운문사승가대학 43차 총동문회 개최



운문사서 열린 승가대 총동문회 모습.

운문사 운문승가대학(학장 흥륜)은 9월 13일 운문사 선열당에서 43차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회장 금타)를 개최했다. 회장 금타 스님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포교와 수행에 전념하는 선후배스님과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회주 명성 스님은 “1850명 졸업생 모두를 사랑하고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모교발전을 위한 의견토론과 장학금 전달 등이 있었다. 토론에서는 사회봉사와 스님들의 노후복지 문제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어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은 “남은 주지소임 80여일 동안 사중 스님들과 상의해 총동문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나가겠다”면서 “소임을 사는 4년 동안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구니 도량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바이로차나’ 청소년 축구단 창단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서 고불법회



바이로차나 축구단 창단 고불법회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회주 우학 · 주지 밀허)는 9월 14일 옥불보전 4층 대강당에서 바이로차나 축구단 창단 고불법회를 열었다. 바이로차나 청소년 축구단은 ‘축구를 통해 중 · 고등부 청소년 법회의 활성화와 방황하는 사춘기 청소년 불자들의 심성을 계발하고 계층별 포교의 극대화’ 를 위해서 결성됐다.

축구단장 정허 스님은 고불문에서 “물려남 없는 심신과 원력으로 전념해야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주지 밀허 스님은 운영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 한 뒤 축사로 “바이로차나는 ‘온 세상 천지에 가득하다’ 는 뜻이다. 법의 진리는 내 마음속에 있으니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자기를 잘 지켜 아름다운 인생을 잘 만들어 가자”며 앞으로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배선혜 신도회장은 “진심으로 부처님 품에서 씩씩하고 건강하게 발전되어 나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주민들과 함께한 행복나눔음악회

팔공산 송림사 9월 20일 개최



제4회 송림사 행복나눔음악회 공연

제4회 칠곡군민과 함께하는 송림사(주지 혜성) 행복나눔음악회가 9월 20일 송림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송림사 신도회(회장 김한수)에서 주관한 이 행사에는 경상북도 각기관장, 대구광역시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천여명 모였다.

송림사 주지 혜성 스님은 “초가을의 시원한 바람에 모두 다 실어 보내고, 아름다운 음악 속에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더욱 강인함으로 일상을 돌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김한수 신도회장은 “지난 여름 우리 사회에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을 애도하며 칠곡군민과 한마음 되는 나눔 음악회를 열게 되어 감사하다”전했다.

2부에서 불교합창단 ‘이앤아이 앙상블’ 의 공연이 이어져 산사음악회의 정취를 더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6회 생명나눔 걷기대회 10월 11일

페이스 페인팅 · 네일 아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 마련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제6회 생명나눔 걷기대회'가 10월 11일 토요일 부산 시민공원(향기의 숲)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이식 등록기관인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주최하는 이번 걷기대회에는 환우와 가족, 부산 시민(개인 및 단체), 본회 직원 및 기증회원 등 1천 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걷기 대회를 비롯한 페이스 페인팅, 네일 아트, 바람개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참여는 전화 또는 현장 등록 후 가능하다. 한편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조혈모세포 및 장기 기증 캠페인, 자살 예방 상담, 헌혈증 지원 사업 등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051)853-0429

김나영 객원기자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기획원장 법성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송운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고불총림 백양사
불교 수석 전시관
'학봉 선석원'을 가다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이 백양사 경내의 '학봉 선석원'을 둘러보고 있다. 이 전시관에는 '나한상'을 테마로한 약 550여 점의 수석이 전시돼 있다.



선재동자가 공양을 올리는 듯한 모습을 담고 있다.



달마대사의 모습을 지닌 무늬돌



가사입은 스님의 모습을 닮은 수석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 경내에 지난 4월 개관한 '학봉 선석원' 외부 전경.



돌이 전하는 〈금강경〉의 일원상



절을하고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수석과 수행은 결코 둘이 아니다"

石中禪理(석중선리)
수석 가운데 선의 이치가 있어
繞山談禪(요산담선)
산을 거닐며 선을 말하고
繞江論石(요강논석)
강가를 노닐면서 돌을 논한다.
以石爲師(이석위사)
그러므로 한점 돌은 나의 스승이 된다.

如何是名石(여하시명석)
어떤 돌이 명석인가?
性海湧出石(성해용출석)
성품의 바다에서 돌이 솟구친다.
壽石衆藝之妙(수석중예지묘)
수석은 예술의 오묘한 이치 들어있다.

五百羅漢石無言(오백나한석무언)
오백개 라한석의 말없음이여
不如維摩士一默(부여유마사일묵)
유마거사 한분의 말없음만 못하네.
〈수석 선시, 지선 스님 글〉

백양사, '달마와 나한상' 등 불교 테마 수석관 건립
'학봉 선석원' 4월 개관… 550여점 일반에 공개
국내는 물론 세계 10여개국서 수집 및 기증받아
산중불교가 나아갈 신선한 문화 콘텐츠로 기대돼

'달마와 나한상' 등 불교를 테마로 하는 '불교수석 전시관'이 사찰 경내에 최초로 건립돼 화제다.

고불총림 전남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는 성보박물관내에 별도의 공간인 '백양사 학봉 선석원'을 지난 4월에 개관했다.

국내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학봉 선석원'은 100여 평 규모의 전시실에 '오백 나한상'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전시관 이름의 '학봉'은 고불총림 방장인 지선 스님(知詵)의 호이다. 40여 년간 1천여점의 달마석과 사유석 등을 수집한 지선 스님은 '나한상'을 테마로한 수석 작품 약 550여 점을 일반에 선보였다. 지선 스님이 처음 수석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연유는 이렇다. 천지기운과 산천 정기가 왜 하필이면 불교의 깨달음, 도에 관한 형상이나 문양 및 의미 등이 담긴 돌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만들어 냈을까 하는 화두에 천착하면서 부터다.

지선 스님은 "물아일체라 하지만 두두물물이 이와같이 법신의 화연으로 무정물들까지도 유정물들을 각성시키는 상호연기적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나도 돌이 되고 돌도 내가 되는 수없는 깨달음을 주고받으며 돌에서도 법을 구할 수 있었다"고 그간의 수집 과정을 회고했다.

그간 지선 스님이 불교 수석을 위해서 들인 노력은 구도역정과 같다. 국내에서는 남한강 한탄강 경호강 섬진강 제석산 지리산 등의 내륙 산지와 제주도 태종대 거제도 임자도 등 큰 섬은 물론 풍도 호도 등 이름모를 도서 및 해안가를 샅샅히 뒤졌다.

또한 미국 중국 미얀마 일본 네팔 대만 파푸아뉴기니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집트를 비롯한 5대양 6대주 10여개국을 직접 탐사해 채집하는가 하면 해당 지역에서 기증받기도 했다. 지선 스님과 돌과의 특별한 인연은 출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님의 할머니는 허리가 아플때마다 손자인 지선 스님에게 냇가서 돌을 주워오도록 시켰다. 할머니는 그 돌들을 가마솥에 삶아 우려낸 물을 마시고, 목욕도 하셨다. 어린 손자였던 지선 스님은 돌을 줍다가 모양이나 문양이 독특한 것들은 마당 한켠에 진열 해 놓았다. 그것이 돌 수집의 시초다.

이후 지금부터 30여 년 전, 그 어린 소년은 어느덧 자라 출가를 하고 전남 영광 불갑사 주지가 됐다. 수행자로 생활하던중 어느날 바닷가서 우연히 돌을 보게 됐다. 절 마당은 물론 지천에 깔린 것이 돌이었지만 그날 지선 스님이 바라본 돌은 어렸을 적 냇가에 가서 할머니 심부름으로 주워오던 추억어린 돌들을 연상케 했다. 순간 선방서 참선 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 후 주지로서 절을 운영하면서 사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행에 장애가 생길때마다 강과 바다로 팔을 걷고 나섰다. 이것이 지선 스님이 오늘날 1천여점에 가까운 달마석을 본격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던 첫 시발점이었다.

"수석은 위대한 자연이 만든 예술입니다. 풍마우세(風磨雨洗)를 겪은 수석은 유달리 달마, 관음상 등 우리 불교와 관련된 것이 많지요. 수석 채집에 앞서 강가의 바위에 앉아 참선에 들면 수많은 돌들이 모두 저에게는 선승으로 보입니다. 제가 나지막히 염불하면 돌들도 따라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달마석을 만나고 부처석도 친견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법을 청해듣습니다. 바로 달마석 삼매경에서 이어지는 '선석일여(禪石一如)의 경지이지요. 수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정물이라도 수많은 세월동안 한 곳에 앉아 가부좌를 틀고 세월의 풍파를 견디어 낸다면 그것도 수행인 것이지요. 왜 우리가 오죽하면 화두에 빠지듯 무슨일인가 몰두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돌부처라 하지 않습니까?"

지선 스님의 수석은 부처, 달마, 나한상 등의 형태를 갖춘 형상석과 무늬가 새겨진 무늬석이 주류를 이룬다. 이번에 선보이는 수석 말고도 대략 1천여 점이 넘는 수석이 '선석원' 뒤편 수장고와 지선 스님이 자주 주석하시는 광주 문빈정사에 빼곡히 쌓여있다.

지선 스님은 '수석과 수행'을 둘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수석에 대한 집착은 강력하게 경계한다.

"수행자가 무소유로 살아야 하는데 좋은 것을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걸리고 집착이 생기더군요. 재야활동하면서는 더더욱 시간을 내기 어려워 본의 아니게 몇 년 쉬었습니다. 수석을 놓고 보니 '돌(石)-도(道)-돈(金)-독(毒)'의 이치가 보이더군요. 잘하면 도를 알지만 잘못하면 돌이 돈이 되고, 독이 됩니다."

지선 스님의 이런 열정과 구도정신으로 선보인 백양사 '학봉 선석원'은 21세기 산중불교가 나아갈 혁신적 문화콘텐츠를 제공한 신선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장성 백양사=김주일 기자

인터뷰

'달마석' 無言 법문에 귀기울여 보세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인류가 처음 접한 것이 돌입니다. 돌은 신앙의 대상이자 생활도구였고, 죽어서는 사후의 안식처였습니다. 특히 석탑, 석등, 마애불 등 돌문화의 꽃을 피운 불교는 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애석(愛石)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물 기록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승전 법사(勝詮法師)입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당나라서 〈화엄경〉을 공부한 신라 승전 법사가 만경사에서 80여 개의 돌을 모아놓고 경전을 강독하며 아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승전 법사의 경전강독을 듣던 돌에서 꽃이 피었고 지금도 금오산에서는 '매화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선 방장 스님은 "예부터 스님들은 수석(壽石)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선석(禪石)이라하여 돌에서 법을 구했다"며 '불교의 수석관'을 역설한다. 그동안 스님은 53선지식을 찾아 구법 만행에 나선 선재동자처럼 '돌(石) 선지식'을 찾아 국내외 산과 강, 바다를 구석구석 찾아 '수석만행(壽石漫行)'에 나섰다.

이렇게 만난 달마석들이 삼삼오오 백양사 '선석당'에 모여 전시관을 이룬 것이다. 이들중에는 예술적으로나 경제적 가치가 큰 수석들이 있음에도 지선 스님은 굳이 수석전시회 등에 출품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수행자이다보니 수행과 관련없는일에 진력한다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솔직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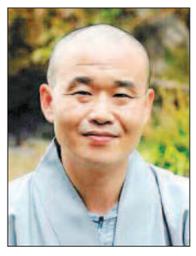
하지만 지선 스님은 "돌을 수집하다보니 이 일도 수행의 연장이고 방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숨기거나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사찰도 이제는 아름다운 자연풍광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수석전시관을 만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스님은 덧붙였다. "백양사에 오시면 꼭 선석원 달마석 앞에 서 보세요. 선지식들에게 듣는 법문 못지않게 심오한 달마석이 들려주는 무언의 법문이 마음의 풍진을 씻어주고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각지서 수집한 수석을 보면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사가 절로 솟구침을 느낄 것입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스토리텔링 있는 불교수석관 만들 것"

백양사 성보박물관장 법선 스님



"수석은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작은 돌에 삼라만상의 여러 형상이 집약돼 상징적으로 축소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돌이라도 보석, 화석, 진기석, 석공예와는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석은 자연의 수려한 경치가 돌에 축소된 산수경석(山水景石), 사람이나 동물, 집 등 물체를 닮은 형상석(形象石), 돌표면에 기묘한 문양이 새겨진 무늬석 등으로 구분되지요.백양사 선석원에 전시된 돌들은 이들중 가치가 높고 희귀한 형상석과 무늬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법선 스님은 은사인 지선 방장 스님과 함께 수석 수집을 하면서 우여곡절도 참 많았다.

"돌이 무겁다 보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운반 과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국내는 차를 이용하다보니까 수월했지만, 해외서 수집한 돌을 국내로 갖고 들어오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밀반출자로 오인돼 공항서 조사를 받기도 했고 운반하다가 돌이 무겁다보니 운반과정에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며 방장 스님과 함께 불교의 교리적 가르침이나 수행의 형상이 녹아있는 수석들이 있는 곳이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석원은 그간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결정체들의 집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선석원에 들어가 관람하다보면 자주 놀란다. 영락없는 '달마'가 있는가 하면 '불자를 괴고서 졸고 있는 노승'도 있다. 또한 부처님의 고행을 상징하는 골석도 전시돼 있다.

갖가지 다른 달마나 나한상이 자연석에 들어있는 수석을 마주 대하면 경배심에 합장반배가 저절로 나온다.

법선 스님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시실 조명이라든지, 각 수석마다의 자세한 설명안내판 등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지자체와 논의중인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선석원 안에 조그만 기도공간 마련 등 관람객들이 기도와 수석 관람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신행 공간은 물론 스토리를 통해 수석을 만끽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탑의 진화

⑲ 중국의 불탑(6) – 정각식(亭閣式)탑

중국 건축과 인도불탑의 조화로운 결합

지난 호에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정각식탑은 중국의 전통 건축양식인 정각위에 인도의 불탑이 탑찰 형식으로 올라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조성된 불탑을 말한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각식탑은 제남시 신통사(神通寺)유적지에 남아있는 일명 사문탑(四門塔)**〈사진1〉**이다.

원래 신통사는 전진(前秦)시기의 황시 원년(皇始元年: 351)에 인도에서 온 랑공(朗公)스님이 산 좋고, 물 맑은 이곳에 절을 세우고 랑공사(朗公寺)라 이름 지었다.

양(梁)나라의 혜교(釋慧皎)스님이 지은 '고승전(高僧傳)' 에 의하면, 랑공사는 아름답고 깊은 산에 웅장한 사원과 건물이 10여 구역을 이루고 있으며, 산동 불교의 발상지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고구려에 불교를 전래한 전진(前秦)의 부견(符堅)왕과 동진(東晋)의 황제가 제물을 보시하였으며, 고구려에서 금동불상을 보내왔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당(唐)나라 도선(道宣)이 지은 '속고승전(續高僧傳)' 에는 수(隋)나라의 개황(開皇) 3년(583년) 문제(文帝)가 랑공사의 부처님께 예를 표하려고 참배사절단을 보냈는데, 사절단이 절 입구에 들어서자 만물이 길한 조짐이 나타나 절 이름을 신통사(神通寺)라고 고쳐 부르게 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러한 신통사는 원(元)나라와의 전쟁에서 많은 전각이 불탔으나, 명대(明代)에 수리복원 하였고, 청조(청朝)에 이르러 다시 폐허가 되었다.

현재는 옛 절터에 불탑과 승탑이 즐비하며, 마애석상과 경당 부분의 석주와 주춧돌이 잔존한다. 특히, 이 유적지에 있는 불탑 중 신통사사문탑(神通寺四門塔)은 중국에서 현존하는 정각식탑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어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 동안 이 불탑의 조성 연대는 동위(東魏)시대인 544년으로 알려져 왔으나, 1972년 복원과정에서 수나라 대업(大業) 7년, 즉 611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밝혀졌다.

사문탑의 탑신은 청석(靑石)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벽돌처럼 쌓은 일종의 모전석탑이다. 청석은 오래된 퇴적암모래와 자갈이 결합된 일종의 사암(砂岩)으로 화강암 혹은 대리석과 비교하여 미끄럼 방지 효과와 내마모성 등의 장점이 있다. 특히 청석탑의 재료인 청석은 세월이 지날수록 고색창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탑의 중후함을 더해주는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보여주는 재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청석을 재료로 하여 탑을 조성한 예가 지금 까지도 전국에 남아있다. 김제 금산사 청석탑, 합천 해인사 원당암 청석탑, 대구 동화사 염복암 청석탑, 법주사 여적암 청석탑, 충주 창룡사 청석탑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나라 불탑의 변천과정을 다룰 때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사문탑' 의 높이는 15.04m이며, 한 변의 길이는 7.4m이다. 4개의 탑신 면에 아치형의 출입문을 두어 후세 사람들이 문이 4개라 하여 사문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붕의 층급받침은 내어쌓기로 5층이며, 지붕은 들여쌓기로 23단을 이루고 있다. 탑의 상부에는 탑찰이 조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탑 중 신라시대 때 조성된 탑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이다. 선덕왕 3년(624)에 조성된 분황사 모전석탑은 지금은 3층만 남아 있으나 본래 9층으로 추정되는 전형적인 밀첨식 불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통사 사문탑' 과 '분황사탑' 은 몇 가지 유사점이 발견된다. 그 이유는 13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 같은 시대에 조성되었다는 점과, 사문탑은 청석을, 분황사탑은 안산암을 이용하여 벽돌처럼 쪼개고 다듬어 전탑 방식으로 쌓은 모전석탑이라는 점, 탑신면 사방에 4개의 출입구가 있으며, 내부 정 중앙에 4각형의 탑심(塔心)기둥이 있다는 사실 등으로 두 탑의 상호 연관성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사문탑 탑심 기둥에는 후세사람들이 서방의 아미타불**〈사진2〉**, 남방의 환희세계 보생불 등 석조좌불의 4방불을 모셔두어 내부에서 탑을 돌며 예불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 사문탑의 외형은 청석의 빛깔만으로도 숭고한 신앙심을 자아내지만, 계곡을 건너 맞은편에는 화려한 조각으로 참배객들에게 환희심을 자아내는 용호탑(龍虎塔)**〈사진3〉**이 있다. '용호탑' 은 당나라 시대에 조성된 정각식 탑으로 탑신에 용, 호랑이 등의 부조가 새겨져 '용호탑' 이라 부르게 되었다. 기단은 석재를, 탑신은 벽돌을 사용하여 석탑과 전탑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높이는 10.8m 탑신 한 변의 길이는 4m 이다.

이 불탑의 내부 구조는 앞서 살펴본 '사문탑' 과 큰 차이는 없으나,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한 부조상**〈사진4〉**이다. 용과 호랑이 외에 나한상, 금강역사상,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는 기악상(伎樂像), 비천상 등이 새겨져,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조성된 불탑의 부조상과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불탑이다.

중국의 정각식탑의 또 다른 특징은 소수 몇 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승탑이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 이후부터 선불교와 밀교의 영향으로 업적과 수행이 훌륭한 스님들이 입적하면 승사리나 유골을 탑 속에 봉안하였다. 이러한 승탑은 불탑에 비하여 규모는 소형이며, 대부분이 단층의 정각식을 이룬다. '산서성 혼주시 불광사조사탑' , '진중시 명혜대사탑' , '운성시 범주선사탑' , '하남성 등봉의 정장선사탑' , '광동성 산두시의 대전조사탑'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사찰에 따라서는 승탑을 한곳에 집중하여 조성하는데 마치 탑이 숲을 이룬다 하여 탑림(塔林)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승탑을 '부도' 라고도 부르며, 탑림을 '부도밭'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부도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한데서 비롯된 것인데, 과하게 표현하면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의 결례(缺禮)' 이기도 한다. 그 이유는 불탑의 어원(語源)을 이해하면 알 수 있다.

불탑을 뜻하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의 수투파[Stūpa]를 중국에서는 뜻보다는 발음을 중시하여 음사(音寫)하여 솔도파(窣堵波), 솔도파(窣都波), 솔도파(窣覩波), 소두파(掃兜婆), 사유파(私鍮 ẃ, 수두파(藪斗波)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빨리어의 투파[Thūpa]에서 유파(鍮婆), 두파(兜婆), 두수파(斗藪波)등의 여러 표현이 있으나 오늘날은 통상 탑파(塔婆) 또는 탑(塔)으로 칭한다.

또,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스투파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한 의역(意譯)으로는 방분(方墳), 원총(圓塚), 고현처(高顯處), 호찬(護讚) 등의 용어가 있다.

또한 부처님을 인도에서는 [Buddha]라 하는데 이것을 음사(音寫)하여 불도(佛圖), 부도(浮屠), 부도(浮圖), 포도(蒲圖) 등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불도' , '부도' , '포도' 등의 용어가 한문으로 기록된 경전에서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불탑이나 불상을 지칭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고승들의 묘탑인 승탑(僧塔)을 '부도' 와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오늘날에는 아예 승탑이 '부도' 라는 용어로 정착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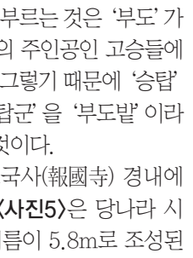
물론 사리신앙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불사리와 승사리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 할 수 있지만, 탑의 주인공이 부처님인지 부처님의 제자인지는 구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승들의 유골을 봉안한 승탑을 부도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 된 표현임에는 틀림이 없다. 더구나 훌륭하신 스님들이 입적하시면, 신앙심의 염원을 담아 온 정성을 다하여 승탑을 조성하여 그 유골을 봉안한다. 이러한 승탑을 일정한 장소에 함께 모셨다는 이유로 마치 감자 밭이나 고구마 밭처럼 '부도밭' 이라고 비하하여 부르는 것은 '부도' 가 마치 농작물로 착각되어 그 곳의 주인공인 고승들에 대한 인격모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탑' 을 '부도' 라고 표현하거나 '승탑군' 을 '부도밭'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산서성 운성시 사북촌의 보국사(報國寺) 경내에 있는 범주선사탑(泛舟禪師塔)**〈사진5〉**은 당나라 시대인 793년에 높이는 10m, 지름이 5.8m로 조성된 원형의 정각식 승탑이다. 이 탑의 특징은 기단부, 탑신부, 탑찰부의 길이가 각 1/3을 차지하고 있어 비례감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 비례는 우리나라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기준이 되는 불국사 3층탑의 비례감과 상통한다.

이 탑의 주인공인 범주선사는 백제와 고구려를 신라와 함께 연합하여 항복시킨 당고종(唐高宗) 이치(李治:628년~683년)의 손자이다. 범주선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 났으나, 권력다툼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황실생활을 버리고 20세 되던 해에 밀교사찰인 보국사에 출가하여 평생을 불도에만 전념하였다. 그가 입적하자 이 탑을 조성하였는데, 탑신의 북쪽에 탑명과 탑의 내력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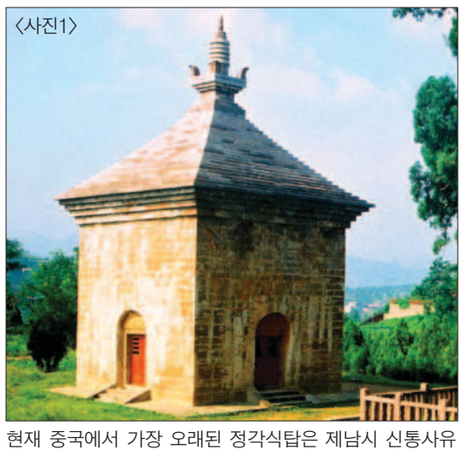
산서성(山西省) 오대현(五台縣)의 불광사조사탑(佛光寺祖師塔)**〈사진6〉**은 당나라 이전 북제(北齊) 때 조성된 것으로 전한다. 이 승탑은 높이 8m 의 6각형 2층 정각식으로, 탑신은 벽돌로 쌓고 외벽에 흰색으로 칠하여 청정심을 표현하고 있다. 하층 내부는 1개의 출입문과 함께 실내 공간이 있으나, 2층은 별도의 공간이 없다. 1층 내부에는 조사상 2분이 모셔져 있다.**〈사진7〉**

다음 호에는 탑신의 상부에 각종 꽃 장식을 하여 멀리서 보면 한 덜기 꽃다발이 연상되는 화탑(花塔)과 금강보좌식 양식의 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사진1〉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각식탑은 제남시 신통사유적지에 남아있는 사문탑이다.

〈사진2〉



후세 사람들이 사문탑 탑심 기둥에 모신 서방의 아미타불.

〈사진3〉



용, 호랑이 등 부조가 새겨진 용호탑.

제남시 신통사지 사문탑 最古
청석을 벽돌처럼 쌓은 모전탑 형식
분황사 모전탑과 연관 가능성

퇴적암 모래와 자갈 결합된 청석은
오래될수록 고색창연, 내마모성 장점

용호탑…석탑(기단)+전탑(탑신) 형태
화려한 부조상이 특징
한 · 일 부조상과 연관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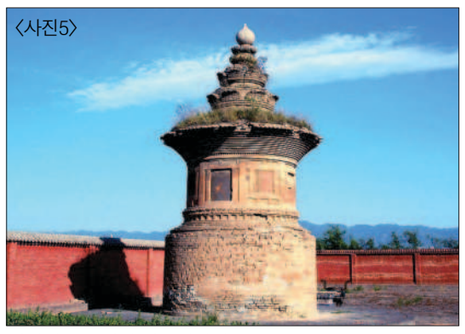
대부분 스님 사리 봉안한 '승탑'
우리의 부도와 같은 개념
'부도' 는 잘못 '승탑' 으로 불러야

〈사진4〉



용호탑의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한 부조상이다.

〈사진5〉



산서성 보국사의 범주선사탑.

〈사진6〉



산서성의 불광사조사탑.

〈사진7〉



불광사조사탑 1층 내부에는 조사상 2분이 모셔져 있다.

생전예수재 장엄 안내문



귀의삼보하옵시고!

가람수호에 정진하고 계시는 각 사암 대덕큰스님 법체 존안하시옵니까.

소승 소승은 대구시내에서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교육원을 개설하여 불교의식을 지도하고 있는 원장(동현)스님입니다. 올해 소승이 4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이 들어있는 갑오년을 맞아 예수재 장엄일체를 제작 하였습니다.

부족하나마 50년을 불교의식을 해온 것을 토대로 의식에 밝은 스님들의 고견을 얻어 장엄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예수재를 올리시는 각 사암 스님들을 위하여 올바른 재단 설치와 번 설치 순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서를 첩부하였습니다.

예수재장엄 구입방법은 전화로 접수하여 주시고 받으실 주소와 사찰명,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물품대금은 선결제입니다.
통장 입금 확인후 3일 이내에 택배로 배송해 드립니다.

- 물품구입처 : 대구불교 의식 범음,범패 교육원
- 계 좌 번 호 : 대구은행 508-11-906861-6 (예금주 : 주동주)
- 예수재 의식을 집전하실 스님도 알선해 드립니다.

대구불교 의식 범음,범패 교육원장 석 동현 합장

동현스님 장엄 (생전예수재)

상표출원번호
제 40-2014-0040849호

1 대번



2 상단,중단,하단 위패



3 시왕단



4 26위판관 / 37위귀왕



5 사자단



6 고사단



7 영단



8 금란방, 정제소



9 예수시왕도량



10 일백사위 사화



•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물2동 871-1번지 • 문의처 : 전화 053)781-4200 / HP 010-2547-4200

화엄의 꽃 절집 천정

〈11〉 천봉산 대원사 극락전

다채로운 문양의 화엄세계 수놓아



극락전 좌우협칸과 어칸 중앙에 경영한 천정장엄. 중앙을 더 높이 경영한 2층 평행층급 우물천정이다. 선학, 모란, 연화, 범자문이 심층적으로 전개되는 중중의 구조다.



맨 왼쪽 범자문은 천정중앙에 베푼 8자 준제진언이고, 달마와 백의수월관음 벽화는 동서 벽면에 그려진 것이다. 벽화 사이의 사진은 악기와 구름 영기문, 선학 문양이다.

3×3칸 건물에 경영되는 두 양식

일반적으로 불전의 천정구조는 기둥 축선으로 구획된다. 3×3칸 건물의 천정 역시 기둥 축선을 따라 구획되어 자연스레이 우물(井)자 형식의 아홉 개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井자의 한가운데 중앙은 내진주(內陣柱) 영역이고, 그 밖은 외진주(外陣柱) 영역이다. 3×3칸의 정방형 건물에서 경영되는 주요불전의 천정양식은 대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2층의 평행층급 우물천정 양식이거나, 혹은 외진주는 빗반자, 내진주는 평행 우물천정을 갖춘 일종의 궁륭형 양식이다.

앞의 양식이 반듯한 직선적인 규격 속에 단순미, 절제미, 고전적 정형미를 갖추고 있다면, 빗반자와 결합한 층급천정은 부드럽고 우아하며 낭만주의적 자유로움을 드러낸다. 2층의 평행층급 천정은 타일을 깔듯이 사각형 천정평면을 수리적 등분으로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율동적인 리듬을 갖추기가 어렵다. 반면에 빗반자 양식의 천정은 네 모서리 귀접이면을 채우는데 공정이 까다로운 대신에 널판 등을 이용해서 천정벽화와 같은 다채로운 화면을 조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남해안 불전천정 문양의 집합군

보성 천봉산 대원사 극락전은 18세기 중엽에 중건된 3×3칸의 정방형 건물이다. 맞배지붕의 건물이지만 앞뒤 벽면의 각각 기둥 사이에 주간포 2기씩 포작한 다포집이다. 안으로 뽑아 낸 포작 수는 내4출목이다. 내4출목은 연꽃, 연자, 봉오리들의 중중(重重)으로 일체형의 구조를 이루었다. 신령한 영기문이 넝쿨처럼 뻗치고 오르는 층층의 살미 위로 상벽(上壁)을 올렸다. 상벽에는 드문드문 화조도 등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천정은 상벽이 끝나는 하중도리 위에 1차로 천정을 올리고, 종보 위에 다시 두 번째 천정을 올린 2층의 평행층급 우물천정이다. 1층 천정은 외진주 영역이고, 60cm 정도 더 깊이 밀어올린 2층 천정은 내진주 영역이다. 212칸의 정사각형 우물반자로 천정을 빈틈없이 채웠다.

선학, 모란문 등 문양 수 7가지
문양과 색채… 향토적이고 서정적
모란문에 범자, 부처 세계 상징

전체구도는 바둑판처럼 전후좌우로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천정은 아름답고 다채로운 문양의 화엄세계다. 조선중후기 서남해안 다포계 불전의 천정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양의 집합 군을 보는 듯 하다. 천정에 시문된 문양의 수는 일곱 가지다. 선학(仙鶴)과 연화문, 모란문, 범자종자불(梵字種子佛)이 주류를 이루고, 구름영기문, 악기, 구름 별자리 문양 등은 몇 몇 칸에 시문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 그 대칭과 조합의 변주가 남도 땅 봄, 가을의 들녘을 보듯 향토적이고, 서정적이다.

선학,연화,모란문의 삼중 만다라

1층의 천정장엄에는 조계산 선암사 대웅전처럼 사방으로 학익진(鶴翼陣)을 펼쳐 놓았다. 학익진 밖은 마음 밖이다. 마음의 경계가 부처의 경계이고, 삼매의 경계다. 만법유심(萬法唯心)이니 마음 밖에선 법을 구할 수 없다. 천정 가장자리에 펼친 선학들은 붉은 보주를 취하려는 자세다. 붉은 해를 닮은 보주는 다르마의 증표다. 선학의 날개짓은 깨달음을 증득하려는 발보리심과 입보리행의 표징일 것이다. 선학으로 둘러친 마음의 경계 내부는 관념화된 오각형 연화문을 베풀었다.

오각형 연화문은 4중의 중중이다. 프랙탈 도형처럼 자기닮음과 복제를 거듭하고 있다.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의 화엄사상이 드러난다. 부분 속에 일체가 있으니 꽃은 보통명사의 차원을 넘어선 거룩한 화엄의 꽃이다.

붉은 꽃잎은 마치 낱낱의 촛불처럼 그라데이션으로 해무리 지으며 퍼져나간다. 범종을 통해 일승원음이 천지간에 퍼져나가는 이치와 같다. 오각형 연화의 꽃잎 하나 하나가 천지간에 매달린 북으로 다가온다. 선학의 무리들은 그 법고의 울림에 일제히 솟구쳐 붉은 다르마를 취하려 한다. 선학은 성문, 연각들의 아라한을 연상케 한다. 연화는 곧 진리의 법일 터이다. 연화문 안쪽은 모란문이다. 양 협칸의 좌우 문양은 선학과 연화문, 모란문의 띠로 삼중 나이테를 지닌 만다라 형태다. 좌우는 서로의 테칼코마니인 듯 대칭적이다. 짐짓 모란문은 깊이의 끝간 데로 보인다. 하지만 모란문은 보다 심층적인 차원으로 옮겨져서 깊이를 더한다. 어칸 중앙부로 더 높이 옮겨져서 심화된다.

천정 동심원 형상… 보현행 내포

모란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범자(梵字)가 있다. 진리의 이법(理法), 곧 부처의 세계다. 부처님의 신구의(身口意) 삼업의 공덕은 불가사의로 행하신 삼밀(三密)이다. 불가지로 행하신 신묘함이니 드러낼 방도를 찾을 수 없다. 범자와 모란과 연화는 부처께서 신,구,의로 행하신 삼밀의 조형언어다. 그 때 천정장엄의 뜻이 비로소 풀린다. 범자는 부처님의 법신이며, 연화와 모란은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이자 법이다.

그런데 의문이 있다. 왜 천정장엄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동심원의 형상으로 겹겹이, 켜켜이 내부로 깊어지는 형상을 취하는 것인가?

천정의 가장자리에서 부처님의 머리 위 중앙부로 들어가는 심오의 과정은, 마음의 경계에서 해인삼매의 무상정등각에 이르는 심행처멸(心行處滅)의 조형적 표현이다. 그것은 의상 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의 해인도와 다르지 않다. 믿고(信), 머무르고(住), 행하며(行), 하화중생으로 끊임없이 회향해서 십지(十地)에 이르는 보현원행의 바라밀의 과정을 내포한다.

십신(十信),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回向), 십지의 자리이타행(自利利他行)으로 부처에 이르는 길을 상징한다. 그 길은 보현행원을 일으켜서 자리이타의 자비행을 끊임없이 행하는 입보리행이다.

그것이 선학의 경계에서 연화문, 모란문의 무문관을 거쳐 마침내 범자문에 이르게 하는 까닭이다. 견성성불의 범자문에 이르러 큰 흰 소가 끄는, 차별없는 일승의 수레바퀴를 드러낸다. 조형에 화엄의 일승법계가 담겨 있다. 천봉산 대원사 극락전 천정에 수승한 화엄일승법계도가 심인(心印)으로 펼치었다.

생명력의 영기공간서 나투는 진언범자

극락전 어칸 천정의 중앙부 문양은 모란문 속의 범자(梵字)다. 중앙칸 중중(重重)의 자리에 범자가 있는데, 화엄일승법계도에서 210자 마지막 '불(佛)자' 가 자리한 중도의 그 자리, 법계의 옴파로스다. 베풀어진 범자는 모두 8자다. 범자조형에 구현된 구도와 색채경영은 아름답고 자비롭기 그지없다. 검은 바탕의 네 모서리에서 붉은 연꽃 형태의 기운이 뻗친다. 꽃의 화심에서 초록색 보주가 나오고, 보주에선 새싹 같은 생명력이 돋아난다. 그 한가운데에 법신인 대일여래의 붉은 빛이 큰 원으로 가득하다. 대일여래의 붉은 빛 속에 노랑, 또는 흰 색의 범자가 극적으로 나투고 있다. 〈대방광불화엄경〉 표지 변상도에서 경전이 신령의 기운 속에 나투는 장면과 고스란히 닮았다. 범자 한 자(字) 한 자(字)가 생명력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영기공간에서 거룩하게 나툰다. 그 장면은 극적인 구도와 다정한 색감이 뒤섞여 지순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한 칸 한 칸이 경전이고, 불화이고, 부처이시다.

범자 조형에 구도와 색채미 담아
화엄경 변상도 표현원리 닮아
범자진언, 불보살 생명력 부여

범자 8자는 천수경의 준제진언

범자진언을 천정에 새김으로써 천정에 베푼 조형들은 인격화된 불보살의 생명력을 갖춘다. 범자는 그 어떤 상징조형보다도 대상에 강력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힘을 지녔다. 불화나 불상을 조성하고 난 뒤 마지막 단계로 불상과 불화의 눈에 붓으로 눈동자를 점찍는 점안의식에 상응한다. 범자 8자는 밀교적 진언 다라니다. 후대에 손을 대면서 범자배치의 원형을 잃어버렸다. 범자 8자는 밀교경전 〈천수경〉에 나오는 다라니 진언인 '준제진언(准提眞言)' 으로 알려진다.

"옴 자례 주례 준제 사바하" 대비신주

준제진언은 준제관음보살의 위신력으로 모든 죄업과 고(苦)를 멸하고 일체공덕을 성취하게 하는 진언이다. 갈항사지 3층석탑에서 나온 8세기 중엽의 진언다라니가 준제진언이다. 준제관음은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의 변화신 중의 한 분으로 모든 부처의 어머니인 불모(佛母)이시다.

해남 대흥사 유물전시관에 초의선사께서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준제관음보살도가 진열되어 있다. 준제진언은 "옴 자례 주례 준제 사바하" 아홉자의 대비신주(大悲神呪)다. 그런데 천정의 범자는 8자여서 의아하다. 통도사 용화전 천정 8엽연화문에 새겨진 준제진언과 비교해보면 준제진언임에는 분명해보인다.

8자로 축약해서 새기는 것도 빈번한 전례임을 유추할 수 있을 듯 하다. 이 준제진언은 극락전 천정에 장엄된 것으로 고려할 때, 〈천수경〉에서 관음보살과 아미타부처님을 독송하기 전 자리에 청하는 계청(啓請)의 의미가 아닐까 한다. 그런데 모든 진언은 비로자나 법신불의 불가사의한 심인(心印)이다. 그러니 극락전 천정의 중앙칸에 새긴 8자 준제진언은 언제나 법당에 울려 퍼지는 진언의 독송으로서 삼라만상에 미치는 자비의 파장이며, 제불존상의 현현이라 할 것이다. 불전에 진언의 독송이 끊이지 않는다. 천정장엄을 따라가면 일승불로 가는 보살의 보현행원의 자비행이다. 보현행에 의한 보살의 삼매가 있어 부처님의 세계는 아름답고 거룩한 법이다.



대원사 극락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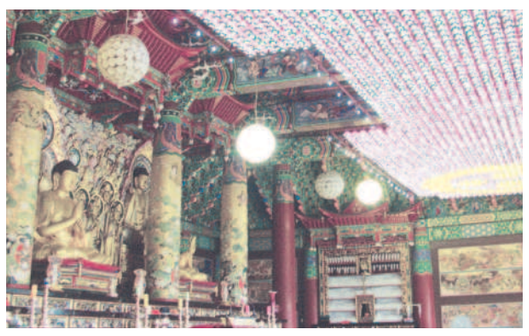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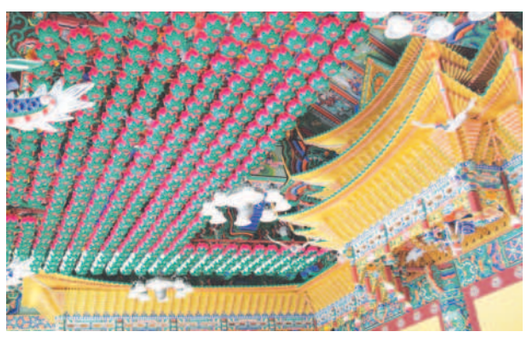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보련기획

보련기획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품전선과 LED전구를 사용하여 직접 시공 관리합니다.

자동 연등 승강 장치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인등시공





만 월 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받습니다.



공 단 등



영 가 등

바 림 등



2015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규격 : 15호 국6절 13매(305×308㎜)
29호 12절 13매(257×263㎜)

보련기획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탐진치'도 애욕심에서 나왔다

업의 당처가 빈줄 알아야한다 ①

부처님의 그 모습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엔 중생들은 그렇게 안되는 게 전부 애욕의 덩어리라. 애욕도 천층만층이에요. 그 애욕이 있는데 탐진치까지 가해졌어. 그러니까 거기서 얼굴 빛깔이 자꾸 달라져요. 애욕만 있어도 거울에 모습이 나타나겠는데 탐이 가해진다든지 성내는 게 가해진다든지 어리석음이 가해지는 데 따라서, 미련하게도 뵈고 독하게도 뵈고 어떤 때 이쁘게도 뵈고 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는 건 이유가 있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애욕의 당처가, 우리는 모두 애욕의 덩어리라 합시다. 내나 여러분들이나. 애욕의 당처가 비었다는 걸 이건 과학적으로. 그 자리 비었거든. 애욕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예요? 무슨 모습이 있어야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데. 그거 빈 거 아니라요? 아하, 애욕의 당처는 빈 거로구나. 공연히 비어 있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내 생각을 일으켜서 말이지 삼독심, 탐진치를 일으키는구나. 내 생각을 안 일으키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을 건데 내 생각을 일으키니 탐진치로구나. 공연히 없는데 내가 탐진치, 애욕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 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생각을 하면은 당장 이 자리에서 달라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욕덩어리거든요. 그러면 애욕덩어리는 탐진치, 사량 분별 모든 것이 꽉 뭉쳐 있다 말이죠. 그러나 그걸 갖다 걷어 잡을래야 걷어잡을 수 없네. 그 어디 다른 데 있는 걸 내가 갖다 쓰는 거 아니거든. 내 생각을 일으켜서 성날 때 성을 내고 웃을 때 웃고 좋아할 때 좋아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다만 내 마음자리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렇게 할 따름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 빈 거 아니에요?

그러하니 그 자리가 빈 줄만 알면은 애욕의 덩어리는 어느 사이에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리고 청정법신이 되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하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두 말할 것 없이 허공으로서의 내라 할 땐 허공에 무슨 놈의 애욕이 있던가요. 무슨 놈의 탐진치가 있던가요. 다 여기 들어가는 거라. 그러하니 우리가 어리석게 공연히 원래 없는데 한 생각을 턱 일으켰어. 일으켜서 막 부회(화)를 내고 성내고 뭐하고 해 쌓는 거, 그거 전부 쓸데없는 짓거리 아니에요? 그것이 본래 있다면 써도 좋아.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본래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탐진치가 어디 있나요. 한 번 내 보세요. 못 찾습니다. 못 찾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애욕이 어디 있나요? 애욕이란 말이 나타났다지만 애욕의 덩어리인데, 우리 몸은 애욕의 덩어리라 하고 그 뿌리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공연히 아무 것도 없는데, 텅 비어서 허공과 꼭 같은 내 몸인데 그만 내 스스로 이 생각도 일으켜. 저 생각도 일으켜. 그래서 애욕의 덩어리를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하니 여러분은 생각할 때 부처님의 몸매와 같은 몸매를 가질라면은 애욕의 당처가 비었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애욕의 당처가 비었으니까 인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 안 하면 돼. 그 말이에요. 알겠지요?

> **애욕의 당처 비어 있는데**
> **생각 일으켜 탐진치 일으킨다**
> **그 자리 비어 있는 줄 알면**
> **애욕의 덩어리 눈녹듯 사라져**

순전히 탐진치든지 애욕이든지 사량분별이든지 뭣이든지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지어낸 것이거든요. 지어 내는거 안 지어내면 되지 안 해요? 그거 아니에요? 빤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말을 들어도, 알아도 어떤 경계가 딱 닥쳐 놓으면 그만 성을 낼 때 성을 내고 웃을 때 웃고 좋다 나쁘다 이래 싸니 그것이지, 그러나 저러나 성을 내도 성을 내는 그 앞 소식이 비었다.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웃어. 웃는 그 앞 소식도 비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이건 내가 한 여김을 일으켜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따져 들어가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지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가진 것이 만 년 염불한 거보다 낫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염불이 어떻게 할것입니까. 염불했다 해서 복이 들어옵니까. 염불하는 순간에는 내가 잡념이 없어져요. 이것이 하나의 공덕이에요. 그러나 잡념이 없어진 줄 모르고 무엇을 구해서 염불을 한다는 것은 도리어 도깨비 밖에 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염불 잘하는 사람들 도깨비다 난 이래 합니다. 난 말합니다. 서울서. 부산 와서 그런 말 했어요. 어느 보살 참 염불 절 한다. 도깨비로구나. 역시 눈이 좋지 못해. 참말로 잘 한다는 사람 눈이 푸르러 그런 기운이 있어. 모습놀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서울서 설법 때 그런 말 했어요.

그러하니 여러분이 허공으로서의 내다. 탐진치 애욕,… 무엇이든지 그 당처가 전부 빈 거다. 내 한 생각을 일으켜서 애욕심을 일으킨 거다. 탐진치를 일으킨 거다. 사실을 사실대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없는 걸 우리가 억지로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을 여러분들이 참말로 한번 그 생각을 가지면은 잠깐 사이에 그 생각을 가지면은 이십 년 삼십 년, 염불한 것보다 낫습니다. 그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실리를 택해야 되지, 실다운 이익을 택해야 되지 왜 헛된 놀음을 하겠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부탁한 것 꼭 그리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가 자주 마음과 타협을 하지 마라 눈과 타협을 하지 마라 귀하고 타협을 하지 마라 늘 그러죠.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제이고. 실은 마음과 눈, 요놈 두 나가 들어서 사람을 우리 몸뚱이 병신 만들고 있습니다. 만날 눈과 타협하고 귀와 타협을 하고 코와 타협을 하고. 마 타협하는 통에 그래서 본래의 소식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이거 눈과 타협을 하고 귀와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은 이 망념, 망상, 이것이 실다운 자체가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을 낸다든지 웃는다든지 그 뿌리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만 어쩌다 경계에 닿질려서 내 마음에 좀 맞으면 웃고 내 마음에 틀리면 성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상 분별 사량 번뇌, 삼독심도 여기서 나는 겁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미타불 보는 자리가 극락정토

14-2. 십념(十念)

최고로, 가장 높아야 그 앞에서 누구나 머리가 수그러지고 숭배를 한다. 최고로 높은 것이 있는데 다음의 제2나 제3을 보고 숭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셋째는 귀취지의가 있다. 목숨을 돌이켜 여기 대해서 취향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진리를 총망라해서 갖고 있고, 또 가장 놓은 것이고 무릇 모든 사람이 모든 진리가 다 여기에 돌아가 목숨을 돌이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다 한데 겸해 있으며 종교라고 하는 '마루종' 자가 역시 이 셋을 포괄하는 점으로는 같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아미타불을 지성스럽고 깨끗한 마음으로 된다. 삼업(三業)을 맑혀, 체, 상, 용(體相用) 그러니까 그 자체나 양상이나 일체의 공용성(功用性)을 죄다 버린 완전한 무아(無我)의 경지에 들어가 모든 속된 생활을 떠나고 이러한 절대적인 지경에서 나무아미타불이라 염불하는 것이다.

여기 원효대사는 말씀하시기를 외부세계의 모든 것에 물들거나 집착해 있는 염착심(染着心)을 모조리 여의어야하고 이를 여인 지경이야말로 곧, 만덕(萬德)을 갖춘 아미타불의 보신(報身)을 보는 자리라 하였다. 아미타불을 보는 자리가 곧, 극락 정토다. 우리는 이 극락정토에 생활을 영위한다. 이에 대해서 재미있지만 그러나 좀 알아듣기 힘들고 어려운 철학이 있다.

첫째는 공상(空相)도 역공(亦空)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효대사의 말씀. '공상도 역공이라' 는 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서 공(空)이란 '이것이다' 하고 단정하는 그것을 말한다. '이것' 이란 저속하고 현실적인 것을 일체 버린 것, 진리를 가리킨다. 진리란 만인에게 통용되는 절대적인 평등성(平等性)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인에게 통용되는 평등성이 들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 이 역시 공(空)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空空)도 역공(亦空)이라는 것이다. 그대로 풀이한다면, '공을 공이라 하는 것도 또한 공이다' 이런 말이다. 이것이 무슨 소리가? 진리를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만인에게 통용되는 평등한 자리를 설정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평등한 자리가 또한 공이다 하는 것이다. 진리를 현실 속으로 끌어들어 해해 놓는 것. 이를테면 진리란 광대무변한 것인데 이를 현실의 특수한 틀에 적용시켜, 이것은 이것이며, 이런 자리다 하는 것은 평등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일단 뛰쳐나와 현실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을 설명하는데 '자리' 라는 말을 썼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평등한 자리도 역시 공이다'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함인가? 현실 사회를 놓고,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존재론적(存在論的)인 단정이나 또는 옳다 정당하다고 하는 따위의 실천 모럴의 테제가 보여 주는 차별상은 무엇인가? 옳은 것은 어디까지나 옳다, 어떠한 이유로 하여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차별상을 이것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空空)도 또한 공(空)이다. 평등에서도 공은 공인 것이다. 여기서 공공(空空)이라는 것이 현실의 차별을 나타낸

> **만인에게 통용되는 평등성 '공'**
> **평등한 자리 역시 '공' 이다**
> **진리는 속된 현실을 버리고**
> **참된 것 가려낼 줄 알아야**

말이다. 왜냐하면 공을 공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을 없도록 하면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현실은 이를 부인 하거나 무(無)로 돌릴 수는 없는 '존재(存在)' 임에 틀림없다는 차별의 분별이 되어진다. 즉 이것은 시유(是有)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다고 하는 단정과, 이것은 옳고 또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분별을 말하고 있다.

셋째는 소공(所空)도 역공(亦空)이다. '공한 바도 또한 공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진리다운 바도 또한 공이다. 이것은 무슨 소린가? 앞에서 진리는 공이다 하였고 그 다음 현실도 공이다 하였는데 이번에 셋째번으로는 '진리다웁게 하는 바' 를 또 가려내었다. 이것은 첫째번과 둘째번 테제가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셋째번 테제다. 공한 바란 진리다운 것, 그러니까 진리성을 완연히 드러내어 설명하는 것이다. 현실을 가져오거나 진리를 테마로 삼아 명제(命題)를 내어놓거나, 실상인즉 이 둘이 다 하나의 것이며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로서 역공(亦空), 또한 빈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거니와 현실과 진리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뜻하여 또한 이라는 역이 처음부터 줄곧 따라다닌 것이다.

앞에서 '진리답게 하는 바' 를 가려내었다라고 소공을 설명하였는데, '가려내었다' 는 것은 앞의 두 테제를 통해 새로운 테마를 찾아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 위의 둘과 셋째번의 소공이란 것은 앞의 둘의 종합한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진리와 현실을 종합한 그것을 진리성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또한 공이라는 것이다. 진리와 현실이 둘 다 통틀어 하나를 본위(本位)로 삼고 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일제(一諦)라, 또는 진리성 하나를 위한 것으로 일법계(一法界)라 이런 말을 한다.

첫 번째 공상역공(空相亦空)에서는 현실을 버려야 된다. 진리는 속된 현실을 버린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현실의 각계에 걸쳐 집합된 양상에 지양해야 된다는 말이었다. 둘째의 공공역공(空空亦空)에서는 우리가 현실에 즉해 있기 때문에 이에 의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타상(依他相)이다. 현실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관을 세운다. 이런 말이다. 셋째 소공역공(所空亦空)은 이 현실을 또 버려야 된다는 것이다. (원효대사 말씀으로는 속(俗)) 현실을 버려야 된다. 또는 현실에 즉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즉해야 된다, 현실 안에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 버려야 된다, 즉해야 된다, 라는 것은 두 가지 말이다. 하나는 아니면서도 이 논리에서 일관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첫째번의 버려야 된다는 말 가운데에서 속된 것은 버리고 참된 것을 가려내는 그런 뜻이 들어있고, 둘째의 현실에 즉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는 말에는 현실에 즉해서 그 현실에서 참된 것을 찾아낸다는 뜻이 설명되어 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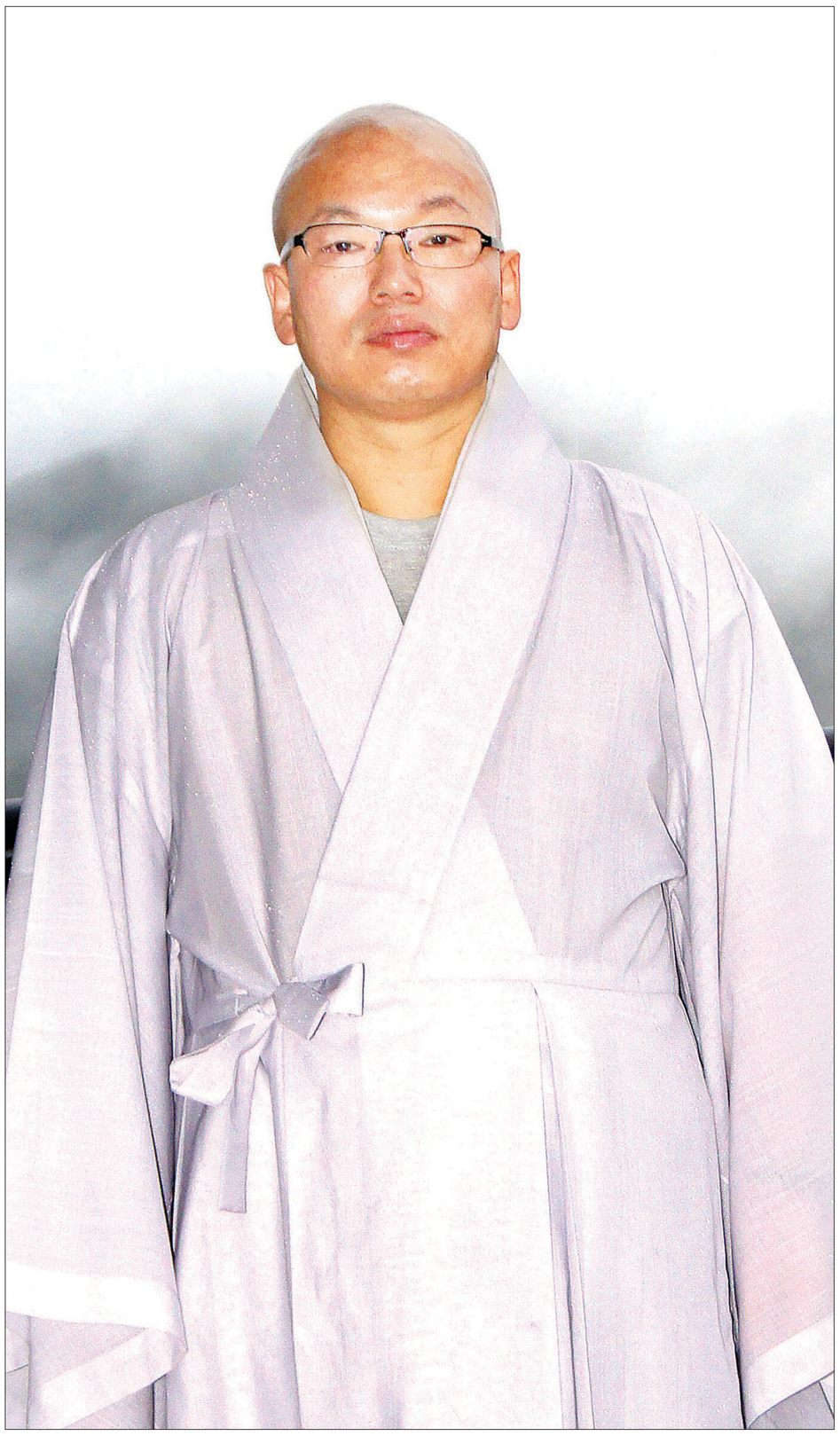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한국불교 밝은 미래는

월공 스님 남원 영선사 주지



월공 스님은 … 여섯 살 때 동진 출가한 스님은 1992년 군승법사 입대 전 가산당(伽山堂) 지관(智冠)큰스님을 은사로 정식 출가했다. 남원 대강면 약수암(현재는 약수정사로 명칭변경)에서 한글을 깨우치고 염불을 배웠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했고, 대학원을 수료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전통 염불을 가르침) 본과 어산 전문반을 졸업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청소년학과를 졸업했으며, 사회복지사 1급, 보육교사 1급. 요양보호사 1급, 1종 대형면허, 방화관리자 2급을 소지했다. 함양경찰서, 남원경찰서 경승을 역임했고 남원 함양불교대학과 사암연합회 소임을 역임했다.

전북 남원시 인월면 오봉산 가마봉 아래에는 지장도량이 하나 있다. 영선사다. 덕유산의 정기가 서려있고 정면으로 지리산의 전망대라 불리는 삼봉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 그곳에서 수행에 매진하며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는 주지 월공 스님을 만났다.

월공 스님은 영선사를 지장성지로 가꾸기 위해 정진에 또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철야정진은 200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영선사는 철야정진에 동참하는 불자들을 지장행자라 부르며 올바른 지장신앙 선양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998년 시작된 지장 철야정진은 2002년 태풍 '루사' 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와 스님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서 생사를 헤맬 때를 제외하곤 거른 적이 없다. 지장행자들은 지장보살 〈본원경〉, 〈점찰선악업보경〉, 〈지장십륜경〉의 〈지장삼부경〉을 바탕으로 정진중이다.

월공 스님은 여섯 살 때 동진 출가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절에 맡겨진 것이 출가로 이어졌다. 어린 나이에 무릎 꿇고 회초리 맞아 가면서 한글을 깨치고, 염불을 배워야했던 힘든 시절이었지만 스님은 오히려 그 시절을 큰 가피로 여기고 있다.

스님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군승법사로 입대하기 전, 총무원장을 지낸 가산당(伽山堂) 지관(智冠) 스님을 은사로 정식 출가했다.

진정한 지장신앙 의미 찾기

스님이 지장기도를 하게 된 것은 제대 후 세민 스님이 주석하고 있던 수안사에서 백중기도를 하면서 부터이다. 백중기도 기간 〈지장경〉을 의무적으로 독송하면서 지장신앙을 접하게 됐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지장기도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스님은 1997년 말에서 1998년 초까지 진행했던 남원불교대학 강의 중에 계율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다가 삼국유사의 '진표율사' 에 대한 행장을 접하게 됐다.

"진표율사는 지장행자셨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시고 대불사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때를 진정한 출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발심출가 이후 한 번도 변화를 생각해 본적도, 남을 부러워 해 본적도 없고 한 길만 걸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스님은 행장을 읽어 내려가던 중 진표율사께서 미륵불을 만나는 대목에 이르러 한없이 눈물을 쏟았다. 월공 스님은 요즘 들어 지장신앙은 영가만을 위한 기도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가에 대한 대목은 지장신앙의 일부에 불과한데도 마치 지장신앙이 잘못 알려진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한 스님은 지장신앙에 대한 의식문제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스님은 "미타신앙과 지장신앙이 혼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라지고 잊힌 지장의식을 살려내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인재 양성 위해 '등용청소년 공부방' 운영

그리고 스님은 미래 인재 국가사회 인재 양성 발원 지장행자 수행을 하면서 최근에 '등용청소년 공부방' 을 운영하고 있다. 영선사는 매일 올리는 사찰의 축원 속에 '국가사회 동량 양성불사 성취' 라는 독특한 문구를 넣어 축원을 올리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인재양성은 '지역아동센터' 로 출발했다.

스님은 "당시 까다로운 행정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인가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희망 학생이 두 달도 안 돼 160명에 이르게 되고 하루 최대 72명이 공부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후 행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청소년 공부방으로 전환하고 2010년에는 '사람과 희망' 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2008년 경, 불사와 지장기도를 하던 중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오갈 곳 없이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이 잠시나마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지장보살의 사상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작은 공부방을 마련하게 된 것이 지금의 청소년 공부방으로 발전하게 됐다.

월 3백~4백. 연간 4천 만 원에 육박하는 공부방의 운영비는 상당한 부담이지만 꾸준히 지원해주는 분들과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 힘을 얻고 있다.

30년 넘게 지장기도로 수행 정진
열악한 환경의 농촌 청소년 위해
2008년부터 '등용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방학중 용맹정진 프로그램도 개설

공부방 출신 명문고 명문대 진학
절에 청소년 많아진 게 더 큰 보람
군장병도 미래 동량, 군부대도 지원
지리산댐 반대운동 등 시민활동도

"인재의 양성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격적 수행을 통한 것이고, 둘째는 선거를 통한 것이고, 셋째는 학습을 통한 것입니다. 그 중 세 번째를 선택해 사찰이 위치한 인월에 무료 공부방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교육 여건은 대도시에 비해 농 · 산촌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청소년들이나 농 · 산촌의 청소년들이나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인 남원시 인월면에는 변변한 학원이나 도서관 같은 시설이 없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방과 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없고, 그로 인해 여가 활동은 물론 도시 아이들과 학력의 차이가 점차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스님은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 인월면에 50평 정도의 건물을 임대해 아이들을 위한 '등용 청소년 공부방(이하 공부방)' 을 만들었다. 공부방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냉 · 난방시설을 갖추고 식사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서열람실과 집단 지도실, 휴게실을 갖췄고, CCTV, 고속 인쇄기, 컴퓨터와 노트북컴퓨터, 프린터 등을 갖췄으며,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 있게 했다.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자질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청소년들의 진로가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농 · 산촌 아이들도 얼마든지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이름도 '개천에서 용 난다' 는 의미의 '등용 청소년 공부방' 으로 정했습니다."

기성 학원들의 반발도 부담이 됐지만 스님이 낮에는 절에서 수행하고 저녁이면 공부방에서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이러한 문제들도 하나하나 개선됐다. 주말이면 20~30명의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하고 시험기간에는 60명 정도가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다. 스님의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들의 학업성적 신장으로 나타났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골학교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외국어 고등학교와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탄생했던 것이다. 그러자 지역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무료 공부방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공부방은 월 3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하는 임대 시설인데, 건물주인 인월새마을금고 측이 150만원의 후원금을 전해오기도 했다. 스님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2년 전부터는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과 연세대에 입학한 학생도 배출했다. 이들 학생은 모두 학원은 가지 않고 오로지 공부방에서 스스로 공부하며 합격의 영광을 누렸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절에서 청소년을 많이 보게 됐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청소년들이 스스로 절을 찾아와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절일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생적인 커뮤니티가 생성되어 절에 큰 행사가 있으면 각자가 스스로 자원봉사자가 되어 주고 있다. 스님은 학생들에게 불교를 강요하거나 불교색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불교색을 굳이 찾는다면 공부방 사무실의 지장보살상과 연등 몇 개가 걸려있는 게 전부일 뿐이다.

스님은 아이들에게 직접 학습지도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학습지도를 하려면 스스로 아이들보다도 더 공부를 해야 한다. 기도와 수행 중에 공부를 하는 일이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지만 스님은 아이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아이들과 친구도 되고 때로는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휴대폰 문자로 아이들과 대화도 합니다." 부모들과 대화가 부족한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스님은 미소를 짓는다.

방학 동안에 도시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특별 용맹정진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절에서 숙식을 하면서 오전 9시부터 밤10시까지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시의 청소년들은 산골생활을 느끼게 하고, 산골 청소년들은 도시의 청소년들의 공부하는 모습에서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로 인해 교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등용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월 3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부담도 되지만 인재를 육성하는데 이 정도 투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미래는 인재육성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등록금 부담으로 부모들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로 불교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다

21세기의 나란다 불교대학 '영산불교대학', 560명 불자들이 신심(信心)과 정견(正見)을 연마하는 한국 최고의 불교교양대학



영산불교대학 수업장면

■ 2014년 입학생 560명 감로의 정법으로 신심을 불태우다 : 최고 교수진의 열강, 불자들의 열화같은 호응

영산불교대학은 많은 불자들의 요청에 의해 2010년 3월에 개교한 이래로 해마다 불자들의 열화같은 호응과 성원으로 매 학기마다 수강하는 불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주분원에서 불교대학을 개원하였고 2014년부터는 국내외의 불자들의 요청에 의해 통신강좌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는 학생 수는 560여 명에 달하고 앞으로 2~3년 내에 1000여 명의 불자들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대학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영산불교대학에서는 불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과목과 정법에 정통한 우수한 강사진의 열강을 통해 방대하고 심오한 부처님 법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세계불교를 이끌어갈 수준 높은 불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세계 어느 불교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불법의 정수 : 세계불교를 쇄신시킬 정법의 가르침

영산불교대학은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 경전 학습을 기초로 해서 두분 큰스님께서 저술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2〉에서 밝힌 우주적 진리인 신불교 교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32상 80종호를 갖춘 빛의 인격체로서 시공과 유무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부처님 실존론 ▶인간의 본체이며 윤회주체인 인간 영혼체의 깊은 비밀과 실체를 밝힌 인간 본체론 ▶사후에 가는 지옥 · 천상 등 윤회세계와 극락 등 해탈세계의 실존과 정확한 실상을 밝힌 윤회 · 해탈론 ▶인간과 우주만물 탄생의 지고한 비밀을 인류사상 최초로 밝힌 우주론(공아자성기론) ▶불보살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정통수행법인 타력중심의 팔정도칭명염불 수행론 등입니다. 특히 불과를 증득하신 두분 큰스님께서 전하는 부처님세계의 소식과 부처님 말씀을 불자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해드립니다.

■ 영산불교대학의 교육목표 : 세계불교를 이끌어갈 신심과 정견을 갖춘 불자 양성

지금의 세계불교는 부처님의 '무아론(無我論)' 을 잘못 해석하여 인간본체인 영혼체의 존재도 나아가 부처님의 실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불보살이 되는 정통수행법도 없는 3무불교(三無佛敎)로 왜곡되고 왜소화되어 버렸습니다. 영산불교에서는 2000년 이상 왜곡되어온 이 무아론을 바로잡아, 무아는 인간 영혼체를 부정한 교설이 아니라, '현상계의 나(我)의 실체없음' 과 '나(我)라는 이기적인 생각' 을 버리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야 함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불자 여러분들에게 '영혼체 윤회론' 이라는 신교설을 불교사상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부처님의 실존에 대해서 기존 불교의 추상적인 '불신론(佛身論-삼신론)' 을, 불과를 증득한 두분 큰스님의 수행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쉽고 구체적으로 강의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께서 '무아속 절대계(연화장세계)' 에 여여히 계심을 증명하여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禪宗)의 영향으로 '마음이 부처' 라는 잘못된 교설에 익숙해져 있고 또 방대한 8만장경의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영산불교대학은 정견과 신심을 확고하게 정립해드립니다. 영산불교대학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의 불교를 이끌어갈 수준 높은 불자들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 4학년 졸업식

■ 2600년만에 내리는 감로의 정법 : 완성된 만자(滿字)의 가르침

초기불교는 부처님 재세시의 직접 교설을 담은 아함부 경전의 가르침으로서 생천(生天) · 해탈(아라한) 중심의 기본 가르침이고, 〈열반경〉에서 말하는 반자(半字)의 가르침입니다.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구도에 따라 사바세계에 몸받아온 붓다의 화신들께서 쓰신 대승경전 중심의 가르침으로서, 초기불교 보다 한 차원 높지만 불완전한 가르침입니다. 영산불교 신불교는 현지사의 광명만덕 · 자재만현 두분 큰스님께서 불과를 증득하시고 부처님 보신불이신 노사나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아 펼치는 21세기 지금 이 시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세계불교계의 왜곡되고 왜소화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대승경전에서 미비된 교설을 보완한, 삼계를 벗어난 보살 붓다됨을 목표로 하는 완성된 만자(滿字)의 가르침입니다. 불자 여러분! 영산불교대학에서 우주적 진리인 신불교의 만자의 가르침을 만나보십시오.



졸업식 장기자랑

출가 : 청정한 수행의 길, 윤회생사를 벗어나는 길
지금 현지사로 젊은 인재들이 출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참선수행을 열심히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사를 만난 이후 염불이 정법임을 알았습니다."
– 대성행자 (00승가대학 졸업)



"저는 현지사의 스님이 되는 길이 윤회를 벗어나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 원오행자 (고려대 영문과 졸업)



"어렸을때 부터 출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 자성행자(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젊은이들 속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말로 행복해 지는 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 혜주행자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한영통역과 졸업)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젊은 인재육성에 있어



30년 넘게 지장기도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정진해온 월공 스님은 200회를 앞두고 있는 토요 철야정진 법회를 통해 지장보살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월공 스님은 군부대 지원의 공로로 군종교구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월공 스님은 열악한 교육환경의 농촌 청소년을 위해 '등용 청소년 공부방'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월공 스님(가운데).

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값 운동도 펼치고 있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 불자들을 위한 무료 장학숙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비용이 들고 힘든 일이지만 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투자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보람을 얻는 동안 건강이 많이 상했다. 기도와 수행이 본분사인 스님이다. 게을리 할 수 없는 본분사를 이루고, 공부방을 오가며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이 육체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은사 스님의 입적으로 인해 큰일을 치르다 보니 피로가 누적된 것이다. 스님은 결국 2012년 2월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뇌동맥)출혈'로 쓰러졌다. 스님은 골든타임을 훨씬 넘긴 뒤 6시간이 넘어서 전주의 큰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다. 스님은 보름가까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스님은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약간의 시력 감퇴와 기억력 감퇴 현상을 겪고 있다. 그래도 스님은 이런 모든 일들이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는 스님은 '등용청소년 공부방'이 국가 사회 동량의 심성과 자질, 불교적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포교와 논산훈련소 '불교어머니회' 지원

군승 출신이기도한 스님은 지역 향토연대 법당의 법회 지원을 요청 받고 매월 한차례 법회에 참석해 군 장병들을 만나고 있다. 남원 103연대 호국 홍제사 법당에서 장병들을 위해 법회를 열어온 것이 어느덧 10여 년째다. 스님은 군장병들 역시 미래의 국가 동량이라는 생각에 그들에게도 성심껏 마음을 쏟고 있는데,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를 후원하고 있는 '불교어머니회'를 지원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논산훈련소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교어머니회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5년 전부터 사중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영선사의 중심 신도들이라 할 수 있는 지장철야기도회 회원들과 함께 월 50~60원 정도를 후원하고 있다.

스님은 "군법사 출신으로 큰 힘이 되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후원해주는 여러 사찰 스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위한 환경관련 시민활동

영선사 위치가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접경지역이라 사찰의 신도들 역시 전북과 경남의 신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스님의 고향이 경남 함양이라서 자연히 대사회활동도 어쩔 수 없이 양쪽을 오가며 활동하게 됐다. 스님은 남원 사암연합회와 남원불교대학, 경남 함양사암연합회와 함양불교대학에도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현재는 2000년에 결성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지리산 댐 반대운동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한 동안 잠잠하던 지리산댐 건설이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의 발언으로 또다시 고새를 들고 있어 잠시 접었던 지리산 댐 반대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스님은 함양시민연대 공동대표로 공명선거 실천운동, 지리산댐 반대 운동 등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랜 활동으로 하나둘 떠난 활동가들의 빈자리를 스님은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지역 특성상 농산물 파동이 발생하면 농민들은 엄청난 타격과 함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배추파동이 발생하면 배추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럴 때면 영선사 신도들을 동원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남원시 인월면은 고냉지라서 양질의 농산물이 많이 생산돼 고가에 판매되고 있지만 역시 파동은 피해 갈 수가 없다. 이럴 때면 스님은 영선사의 도시 신도들과 연계해 농민들을 돕고 있다. 평소에는 제철에 생산되는 고로쇠, 고추, 고사리, 오미자 등의 농산물을 도시 신도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대부분 사보를 통해 공지하고 1천 여 명에 이르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법일기

여성포교는 존중으로 부터

이메일이 막 보급될 때 쯤 이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어느 보살에게서 메일이 왔다. 아니 보살이라고 하기 보다는 여자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문투와 글의 내용으로 보아 신심있게 절에 다니는 불자는 아닌 듯도 했다.

내용은 대충 이랬다. 불교에서는 여성을 차별하여 출가하여도 남자스님보다 아래고, 차별이 심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투였다.

그날부터 많은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신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면 안되겠냐며 출가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몇 가지를 묻고는 소식이 끊어졌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여성차별을 강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불교 내부의 상황을 보면 8경계법이 있어 언뜻 그 동안 불성에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가르치셨다.

부처님의 인정을 받아 당당한 수행자, 구도자의 반열에 오르자 많은 여성들이 출가 수행하였다. 경전의 많은 곳에서 아라한과를 증득한 비구니의 이야기가 당당히 실려 있다.

초기 여성수행자 대중은 사회로부터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적나나하게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였고, 사회적 기본 교육의 미비로 인해 비구니승단 자체만으로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 당시 지식인으로써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던 비구승단에 의지토록 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현재의 시각에서 남성에 종속된 분위기로만 인식하는 승단과 사회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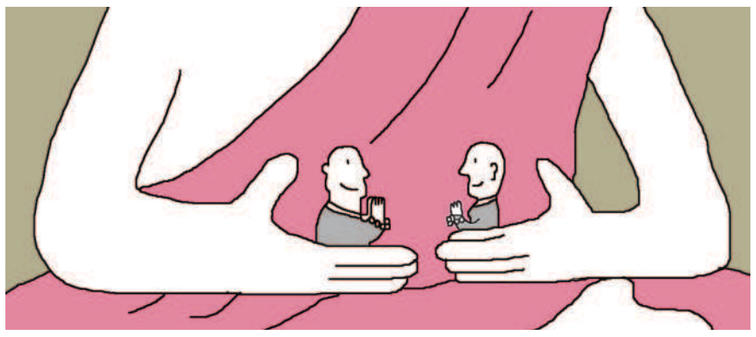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래보일지 모르지만 종교라는 테두리에서 보면 여성을 우리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진정 해방시킨 종교가 불교이다.

질문한 그 보살은 당시 불교계에 논란이 되었던 비구니 팔경계법을 보고 약간 분노 섞인 감정으로 내게 메일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난다. 여러 차례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은 여성차별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금강경에는 진리의 가르침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이것을 최상의 깨달음이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진정 불교의 평등사상의 기준이라고 본다. 비구니 팔경계법은 비구니승단의 온전한 보전과 승가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적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 할 것이다.

사실 부처님은 카스트제도 하에서 사회구성원간의 차별이 극심했던 2,500년 전 여성의 구도적 갈망과 사회적 차별구조를 극복하고 여성출가의 조화를 위해 많이 고심하셨다. 끝내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놓치지 않으시고 여성을 출가수행의 주체로 당당히 받아들이셨다.

타종교에서는 여성을 종교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종속적 부속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세존께서는 살아계시는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구니승단의 보호는 비구승단보다 잘 정비된 사회의 공권력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 또한 남녀평등이 실현된 현대사회에서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현재 대만에서는 여성 출가자들을 적극적 받아들여 사원의 중요한 직책을 맡겨 불교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우리 승단도 부처님의 근본적 가르침과 방편적 교시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재미난 말로 여성신도들을 불보살과 같은 '보살님'이라고 부른다. 여성신도를 존중해 극존칭을 쓰면서 비구니 승단을 차별해서야 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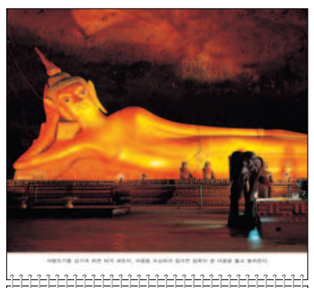
가끔 법문을 하면서 자존심 있는 한국의 여성이라면 당연히 불자가되어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그때 그 불자님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늘 진정한 구도자가 되어 차별받지 않는 승단에서 하루빨리 아라한과를 증득하기를 기대해본다.



성원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since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 농협 : 0515-8888-09 ◆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 /6절

미니달력표지

금피지 등표
• 정 가 1,000원
• 200매 이상 @700원
• 규격 : 3.5㎝×70㎝
만사대길 · 소원성취 · 학업성취
사업성취 · 삼재소멸 中 택 1
상단 뒷편에 양면테잎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부착가능하며 하단부분은 생,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 12절(벽걸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 원
이천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26.5㎝

• 6절(벽걸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 원
이천부 이상 @ 1100 원
• 200부이상 @1,200원
• 규격 : 30.5㎝×31㎝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매수:18장
• 규격 : 9.5㎝×13.4㎝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매수:16장
• 규격 : 8.9㎝×9.5㎝

발리우드에서 '훼불 논쟁' 점화



영화 'Villali Veeran'의 촬영에 앞서 나미타 프라모드(Namitha Pramod · 사진에서 '클랩 보드'를 들고 있다) 등 배우들과 스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도 불교계의 반감을 산 영화의 한 장면. 인도 불교계는 선정에서 깨어나는 부처님의 모습이 세속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도 불교계 영화 'Villali Veeran' 상영 금지 캠페인 전개

샨카르 감독, "코믹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영화적 상상력"

인도 영화의 메카 발리우드(Bollywood)에서 훼불 논쟁이 일고 있다.

〈Ecumenical News〉 지는 "인도 최고의 스타가 열연하고 최고의 배급사가 선보인 영화 'Villali Veeran'가 이번 훼불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발리우드의 스타 딜립 라오(Dileep Rao)와 나미타 프라모드(Namitha Pramod)가 열연한 이 영화는 주인공 시다르탄(Sidharthan, 딜립 라오 분)이 시공을 초월해 다채로운 삶을 경험하며 '고귀한 마음을 품은 상인'으로 성장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화에서 인도 불교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다.

문제의 장면은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딜립 라오 분)이 선정에 들고 있을 때, 네 마리의 쥐가 끄는 호박 모양의 케러번의 문이 열리며 신데렐라 옷으로 성장한 천녀(나마타 프라모드 분)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때 선정에 깨어난 부처님은 어느새 범부의 모습으로 분하고, 여신과 'Cinderella chanthame'라는 노래를 부르면 리듬에 맞춰 춤을 춘다.

〈Ecumenical News〉지는 인도 불교계의 주장을 인용, "이 장면이 불교를 폄하하는 내용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도 불교계는 지난 6일 배급에 들어간 'Villali Veeran'의 상영 금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Villali Veeran'의 제작을 맡은 수디시 샨카르(Suddheesh Shankar) 감독은 〈International Business Times〉지와 인터뷰에서 "촬영 현장에서 불교에 대해 항상 진지했으며, 부처님을 모욕하겠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종교적 이해보다는 '영화적 상상'으로 평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샨카르 감독의 말은 인도 불교계의 분노를 반감하기에 역부족했다.

"문제의 장면에 앞서 부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내 성인이 아닌 속인으로 전환된다"고 지적한 인도 불교단체는 "이 장면에서 감독의 의도와 배우의 연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로서는 부처님의 정신을 희석하는 훼불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문제의 장면이 '영화적 상상력'으로 치부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셈이다.

이에 대해 'Villali Veeran'에서 주인공 시다르탄의 연인 역을 열연한 나마타 프라모드 씨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Villali Veeran'의 주인공 시다르탄이 영화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면서 세속적인 모든 것을 여의었다는 데에 인도 불교계가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Buddhist Art News〉 지는 "영화 'Villali Veeran'는 지난 6일 발리우드 최고의 영화 배급사인 'Ramya Movies'에 의해 상영되기 시작했다."고 전하는 한편 "'Buddhettan'이라는 처음 타이틀 조차 버리고 제작을 마치고 상영에 들어간 영화 'Villali Veeran'가 인도 불교계의 '상영 금지 캠페인'에 맞서 어느 정도 흥행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맨하탄 사찰, 채식으로 주민들 관심 집중

그레이스 불교사원 주민들에게 공양 올려

일요일 아침 채식 뷔페에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Huff Post〉 지는 "브로드웨이의 한 사원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선보이는 채식 식단에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제의 사원은 브로드웨이 동쪽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불교계의 '그레이스 불교사원(Grace Buddhist temple)'이다.

"그레이스 불교사원의 일요일 아침은 조금은 부산한 느낌"이라고 전한 〈Huff Post〉 지는 "은은한 향 내음과 독경 소리와 주민들의 경쾌한 발걸음이 사원을 가득 메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레이스 불교사원에는 정토종 수계를 받은 10명의 비구니 스님이 상주하고 있다. 일요일 아침 채식 뷔페는 이들 비구니 스님들의 울력의 결과물이다. 호박, 오이, 멜론 등을 식재료로 마련한 찬에서부터 국수, 두부, 국 등까지 비구니 스님들이 손수 요리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식기 일체는 놓는 일 역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일은 우리에게 수행이자 포교 방편"이라는 진기(Jingyi · 선원장) 스님은 "이 공양으로 주민들이 건강해지고, 사원과의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스님들 모두 뿌듯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기 스님이 요리를 맡고 있는 음식은 멜론을 식재료로 한 찬과 두부 요리이다. 진기 스님에 따르면, 멜론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암을 예방하는 효능이 입증된 과일이고, 두부는 영양 만점의 식재료이다. 두부의 원료인 콩은 사원 뒤뜰에서 직접 경작하고 있다.





일요일 아침 채식 뷔페에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레이스 불교사원 선원장 진기 스님(사진 오른쪽)은 "주민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일은 우리에게 수행이자 포교 방편"이라고 말한다.

〈Huff Post〉 지는 "미국 사회에서 육식에 대한 저항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레이스 불교사원이 지역 주민에게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채식 식단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며 "이는 불살생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자비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시진핑 방문 맞춰 뉴델리 곳곳서 시위

인도 거주 티베트인 독립요구 시위 벌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인도를 방문하면서 인도에 사는 티베트인들이 뉴델리 시내 곳곳서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현지 언론은 9월 18일 오전(현지시각) "티베트 청년 한 명이 시 주석이 머문 타지 팰리스 호텔 주변 전봇대에 티베트 기를 들고 올라가 '티베트에 자유를 달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됐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회담이 열린 총리실 부근 도로에도 이날 십여 명의 티베트인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티베트 청년 회의' 소속 학생 25명은 전날 뉴델리의 중국 대사관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 통제선을 넘어 10여 명이 체포됐다.

텐징 지그메 티베트 청년 회의 대표는 "티베트의 상황은 2009년 이후 130여 명이 분신할 정도로 악화했다"며 "시 주석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주석은 인도방문에서 18일 20조원 상당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양국의 오랜 과제인 국경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인도를 방문한 기간 동안 인도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의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한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인도 방문을 환영했다. 달라이라마는 18일 뭄바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의 접근 방식은 전임 지도자인 후진타오보다 더 현실적이고 너그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 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3일간 인도를 방문하는 데 맞춰 이같이 말하며 "그의 현실적이고 너그러운 사고방식은 인도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싱가포르 제3회 국제불교영화제 성료

9월 20~27일 개최…대만 · 네팔 등 11개국서 출품

제3회 THIS 국제불교영화제가 9월 20~27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행사에서는 '나의 만다라(대만)', '삼법인(태국)', '108마리 야크(네팔)' 등 11개국에서 출품된 16개 작품이 상연됐다.

이번 영화제를 위해 100편에 가까운 영화들이 심사대상에 올라 최종 16편이 결정됐다. 장편 극영화,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은 마음 챙김과 자비라는 보편적 주제를 통해 불교의 역사 · 문화 · 사회적 측면을 조명했다.

개막작인 '관세음보살(중국)'은 불교가 시련을 겪은 당 나라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자비, 연민 그리고 진실성을 보여줬다.

다큐멘터리 '숨쉬기 위한 방(미국)'은 한 샌프란시스코 중학교의 소란스러운 학생들이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담아냈으며, 행복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 결과들을 기록한 '행복(미국)'도 선보였다.

이밖에 자아정체성, 정의, 죽음 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철학적 여정을 담은 '테세우스의 배(인도)' 등과 함께 '우주소년 아톰'으로 널리 알려진 오사무 테츠카가 자신의 만화를 토대로 제작한 만화영화 '붓다 2' 등이 호응을 얻었다.



대만 출품작인 '나의 만다라'의 한 장면.

THIS는 "이렇게 나는 보았다(Thus Have I Seen)"을 의미하는 단어로 싱가포르의 전문직 젊은 불자들의 모임 '행동하는 다르마(Dharma In Action)'에 의해 시작됐다.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이 영화제의 목적은 불교의 가르침과 가치관으로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지향하는 계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1 · 2회 영화제를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불교에 접근하려는 불자들과 비불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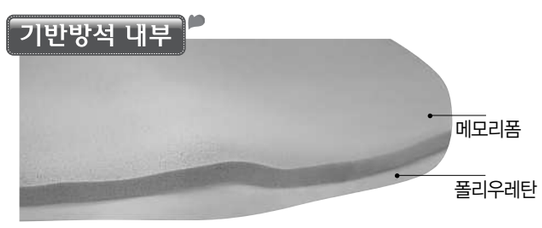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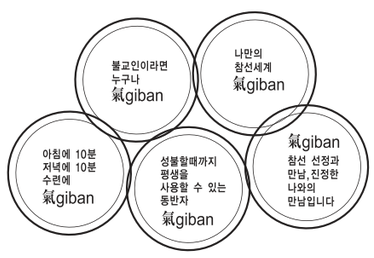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인등 불사와 법당 장엄을 한 번에...
면 자체 발광 성불원 LED 인등





발명특허

발명특허번호 제10-1350047호

- 성불원 인등 확대 모습
- 법당 크기에 따라 2가지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불화 자체가 장엄하게 빛을 발합니다.

성불원 LED 인등의 특징

1. 기존의 인등과 달리 월등한 밝기로 법당 전체가 장엄됩니다.
2. LED만의 저렴한 전기료와 긴 수명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원하시는 어떠한 배경 불화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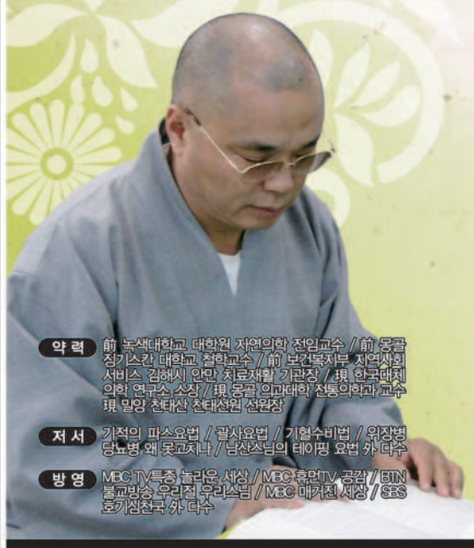
수미단, 닫집, 영단, 법상, 경탁 등 법당장엄 일체 제작
각종 법당불사 컨설팅 해 드립니다.

성 불 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전화 011-276-5251. 010-6857-0108

無碍 양학모 합장 인사 올립니다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대체의학 비법 전수 **남산큰스님**

'내 병은 내가 고친다!'



약력 前 녹색대학교 대학원 자연의학 전임교수 / 前 몽골 징기스칸 대학교 철학교수 / 前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서비스 김해시 안민 치료재활 기관장 / 現 한국대체 의학 연구소 소장 / 現 중글 의과대학 전통의학과 교수 現 밀양 천태산 천태선원 선원장

저서 기적의 파스요법 / 괄사요법 / 기혈수비법 /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나 / 남산스님의 테이핑 요법 外 다수

방영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 MBC휴먼TV 공감 / BTN 불교방송 우리집 우리스님 / MBC 매거진 시상 / SBS 호기심천국 外 다수

특별 건강친견
아무리 노력해도 잠을 못 이루는 분 / 이상한 꿈을 자주 꾸는 분 / 백방으로 치료해도 낫지 않는 분 / 병명도 없이 시들시들 하는 사람 /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분 / 우울증이나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

육신과 마음의 병까지 치유시키는 약사여래 기도법
건강문제 / 가정문제 / 자녀문제 / 부부문제 / 사업문제

일 시 **매주 토요일**

장 소 **천태산 천태사**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1003번지)

차량운행 부산역 공제회관 앞 (오전08:30)
동래지하철역 3번출구 (오전09:30)
경부선 물금역 앞 (오전10:00)

통천도량 천태산 천태사 예약전화 055-372-5517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칠성상회 현불샵 복합기 할인판매



OKI MB471 DN -흑백
소규모 사무실과 업무 그룹을 위한 4가지 기능을 하나로(복사/인쇄/칼라스캔/팩스)
- 10명이상 동시 사용가능
- 해상도 1200dpi

현대불교신문 구매가 :
435,000원(vat 별도)
- 설치비 3만원 별도(배송시 지불)

토너 별도구매 :68,000원(용량:4,000매)
임대시 : 전화상담/기간24개월



OKI MC561 DN-컬러
소규모 사무실과 업무 그룹을 위한 4가지 기능을 하나로(컬러복사/인쇄/칼라스캔/팩스)
-10명이상 동시 사용가능
-자동양면 인쇄 가능

현대불교신문 구매가 :
595,000원 (vat 별도)
- 설치비 3만원 별도(배송시 지불)

토너 별도구매 :105,000원*4색(용량:5,000매)
임대시 : 전화상담/기간24개월

구매 문의 및 상담 : 칠성상회 02-879-2007 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www.7-star.net
입금계좌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마하연 투 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 인도

▶ 인도 & 네팔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 네팔 7대성지 11일 요금문의
뉴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보드가야 – 나란다 – 라즈기르 – 바이샬리 – 쿠쉬나가르 – 룸비니 – 스라바스티 – 럭나우 – 상카시아 – 아그라

- MAI 미얀마 항공 취항 기념 단 한번의 기회

▶ 만달레이 / 양곤 5일 10월 26일 95만원
▶ 만달레이 / 바간 / 헤호 / 양곤 10월 28일 ~~특가 249만원~~ ➔ 169만원
▶ 만달레이 / 바간 / 양곤 5일 10월 27일 105만원

- 국적기 직항 KOREAN AIR ASIANA AIRLINES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전통불교 완전일주 8일 요금문의
갈레 – 누와라엘리아 – 담불라 – 벤토타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콜롬보 – 뉴델리 – 폴론나루와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중국 4대불산
▶ 구화산 & 보타산 (지장도량&관음도량)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6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순례 5일 요금문의

태국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 씨엠립 5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요금문의
서유럽 4개국 8일 요금문의
미서부 7일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佛家서 유래된 민화 옻으로 새롭게 '탄생'

성파 스님 옻칠 민화전, 10월 15일~21일 한국미술관서

"우리나라 그림의 대부분이 수묵화 담채화가 많아요. 하지만 민화 같이 강렬한 색채의 미술은 없었습니다. 민화의 역사를 180년이라고 하면 민화가 대두되었던 시기는 조선 후기라 볼 수 있죠. 이 시기는 조선 500년 동안 억불 정책이 가장 강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사를 할 수 없었던 불모나 단청장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 그린 것이 민화입니다."

성파 스님은 우리 민화가 불교에서 왔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옻염색전 옻불화전 등 전통 문화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던 성파 스님. 한국전통문화의 근원을 불교에서 찾고 있는 스님이 이번에 도전한 분야는 바로 민화다. 옻으로 그려낸 민화를 선보이는 스님의 전시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10월 15일~21일 열린다. 스님은 지난 3년간 작업한 다양한 민화 작품 200여 점을 공개한다.

스님은 특히 민화의 근원을 사찰 벽화나 수미단 등 불교에서 찾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화를 민중들이 그렸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림이 너무 전문적이며 칼라는 단청과 유사하죠. 당시 민중들이 그런 물감을 구할 수는 없었어요. 그 예로 사찰벽화의 호랑이, 수미단 아래의 물고기 거북이 등의 문양은 민화의 양식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민화는 분명 사찰문화에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실은 미술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동안 옻을 재료로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낸 스님은 이번 전시 역시 옻으로 그려낸 호랑이 혼성도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민화에는 주로 까치 호랑이 등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민화가 나오기 전 사찰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림이죠. 특히 호랑이는 민화의 대표적 그림이라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의 그림에서 그려지는 호랑이에 비해 우리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는 매우 온순하고 순화된 모습이 많아요. 이는 산신탱화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전시에도 외강내유의 호랑이를 부드럽고 친화적으로 그려냈죠."

화려한 컬러를 주로 사용하는 민화에 옻을 사용하면 색감이 떨어지지 않냐는 질문에 스님은 옻칠을 하면 색감이 더 살아난다고 전한다. "옻 역시 불교문화에서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주장자, 수미단, 바루 등 절에서 옻을 많이 사용했죠. 천년을 간다고 할 만큼 옻은 영구보존이 뛰어난 재료에요. 나무 쇠 천 어디에도 접착이 잘 되죠. 방충 방향에도 강해 내구성이 좋아 천년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옻으로 다양한 공예작품을 만들어냈고 절집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민화에 사용해도 충분히 좋을 만큼 훌륭한 재료입니다."

민화속 까치 호랑이 등 소재
사찰 미술서 왔을 가능성 높아
3년간 작업한 200여점 공개

스님은 그동안 사경, 도자, 선묵화, 천연염색, 옻염색, 산수화, 옻불화 등 다양한 예술 세계를 표현해왔다. 각각 다른 장르처럼 보이지만 이는 유기적으로 엮여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스님의 예술은 분류가 없는 탈장르를 표방한다. "수행자로서 예술혼을 불태우는 그 자체가 곧 구도요, 수행입니다. 그것은 곧 불교사상과 우리문화의 전통을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통을 복원하는 것이 제 임무이자 끊임없이 작품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성파 스님. 그래서 스님은 앞으로 그동안 갈고 닦았던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대중들에게 하나하나 공개할 것이라고 전한다. 한편, 성파 스님은 통도사 주지를 역임하고 학교법인 영취학원 이사장,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통도사 서운암에서 주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옻칠 불화전, 성파 칠화전(스페인 마드리드),성파 산수화전, 천연옻염색전 등 다수의 전시를 가진 바 있다. (02)720-1161



옻으로 그려낸 민화를 선보이는 성파 스님 전시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10월 15일~21일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민화가 불가에서 유래되었음을 알리고 싶다고 말한다.



'혼성도' 꿩 · 달팽이를 재밌게 표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기와·나무에 새긴 부처님 생애

선운사 서각전에 작품 선보이는 도정 스님



고창 선운사 만세루에서는 10월 19일까지 서각전이 열린다. 제주 제남서각회와 선운사 선운서각회의 작가들 작품 30점이 전시되는 자리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제주 남선사 주지 도정 스님〈사진〉의 서각 작품과 기와 작품이 소개되어 눈길을 끈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설산동자 구법게송, 김만덕 초상화 등의 기와작품과 빈자리 등의 서각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빈자리' 는 나무결에 따라 그림을 그려 양각과 음각으로 새겨 부처님 깨달음을 표현해 냈다.

"보리수 나무 옆으로 갠지스 강이 흐르고 그 옆으로 사슴과 코키리 등의 동물을 넣어 녹야원임을 표현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하는 모습을 담아 수행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끊임없이 바라밀행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을 부처님 손처럼 표현해서 가운데 손오공을 넣었는데 이는 아무리 신통방통해도 부처님 손을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무결을 따라 미얀마 쉐다곤 황금대탑을 넣어 부처님 열반후 불교의 전파를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스님은 부처님의 자취를 작품으로 표현한다. "제가 미얀마에서 10여년 동안 수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기와와 나무에 부처님의 생애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흥미를 갖는 것을 보고 작품이 전법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음 표현한 '빈자리' 등
10월 19일까지 만세루서



도정 스님의 '빈자리'

스님은 앞으로 부처님 일대기를 기와에 새겨 100개의 작품을 완성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처님 일대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매년 20개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작품이 완성 되면 제주도 남선사에 전시관을 만들어 상설 전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혜숙 기자

영상 스터디 '붓다 석가모니' 교계 시사회

청보리회 9월 25일 선우법당서

김재영 법사가 이끄는 '청보리' 가 10부작 영상 스터디 '붓다 석가모니(Buddha Sakyamuni)' 를 완성 9월 25일 우리함께 빌딩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교계시사회를 가졌다. 이번 시사회에서는 10개의 영상 중 부처님 출가 성도 등의 영상 4편을 공개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불교문학창작교육원 남지심 원장, 민족사 윤창화 대표, 니르바나 강형진 단장 등 교계 주요인사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붓다석가모니' 는 부처님의 생애를 현지 답사사진과 자료사진과 함께 자막으로 구성 스터디 영상으로 만들어냈다. 김재영 법사는 "교계를 이끄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상을 감상하고 소감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고 전법의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대중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찾아가 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물론, 재가단체의 법사를 선발해 각 단체별 스터디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신앙운동을 일으키길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며 소감을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불교문학창작교육원 남지심 원장은 '붓다석가모니' 는 불법이 이웃과 세상에 어떻게 스며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남 원장은 "재가단체에서 이만큼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불교를 영상으로 스터디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창작물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시발점으로 교계가 힘을 모아 내레이션 등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한 자료들을 연속적으로 완성해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보리회는 10월 2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서 대중 공개시사회를 갖는다.



붓다석가모니 교계 시사회 장면

정혜숙 기자

불교출판문화상 공모 접수 10월 10일까지

불교출판문화협회(이하 불출협)가 '제11회 불교출판문화상' 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저서 및 역서 등이다. 불출협은 공모작 중 '올해의 불서 10' 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대상 1종, 우수상 2종을 선정한다. 대상(1종)은 상패와 상금1000만원, 우수상(2종)은 상패와 상금 각 400만원이 수여된다.

공모신청 기간은 9월 29일~10월 10일 불교출판협회에서 접수를 받으며, 서류는 기본 서지정보 및 개요(500자 이내) 1부(자유 양식), 신청도서 종별 5부, 4권 이상 전집은 2질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1층 운주사 내 불교출판문화협회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발표는 11월 말 교계언론 및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2014년 12월 9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한다.(02)-2011-1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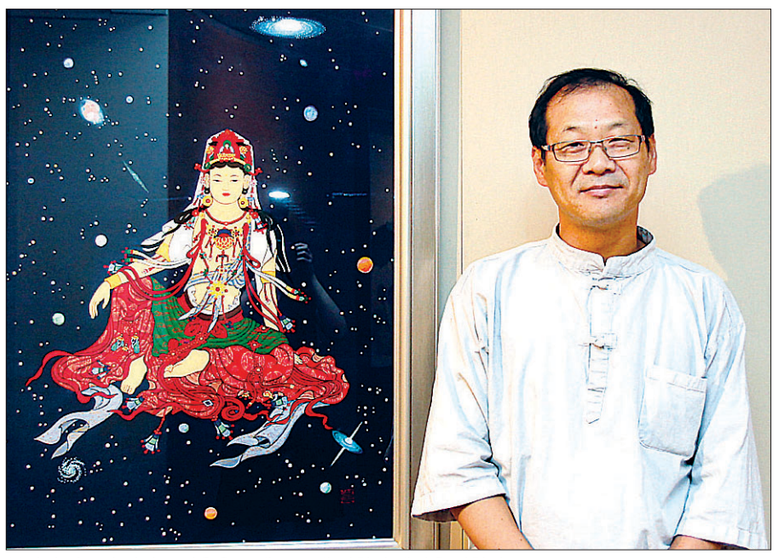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문화人

중생의 고통 어루만져주는 33관세음보살 화판에 나퉈

33관음도로 순례 마친 불화가 남종진 화백


불화가 남종진 작가는 관음을 주제로 33개 사찰 순례전을 마쳤다.

"관세음보살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이번 생 저에게 주어진 의무라 생각합니다.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관세음보살님은 그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화현하시어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져주시는 자비의 관세음보살님을 현대화된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화가 남종진 작가가 33관음을 주제로 33개 사찰 순회전을 마쳤다. 2010년 종로 법련사에서 시작해 올해 초 삼각산 삼성암을 마지막으로 서른 세 개의 전시가 마무리 되었다.

"2010년 낙산사에서 조감도를 그리기 위해 108배 기도를 하며 두 달 동안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홍련암에서 기도를 하다가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게 되었죠. 늘 관세음보살님의 존재를 그림으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야 결심을 했습니다. 33관세음보살님을 조성해 전국순회를 하자고 말이죠."

안동 신계사, 울산 정광사, 합천 해인사, 부산 범어사, 서울 조계사 등 전국 사찰을 다니며 그는 관세음보살의 존재를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왔고 70만 명이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친견했다. 그동안 남 작가는 관세음보살보문품, 법화경, 화엄경 등을 통해 관세음보살에 대한 도상적 학문적 근거를 찾아내 그만의 관세음보살을 창조해 내기도 했다. 특히 그의 대표작이기도 한 '모자관음' 은 모성의 존재를 간직한 관세음보살을 현대화된 모습으로 표현해내 눈길을 끈다.

"관세음보살은 항상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알려져 왔습니다.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나 고려의 왕건 등은 자신의 어머니를 성모로 표현해 왔고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마리아가 안고 있는 피에타는 정말 유명한 조형물이기도 하죠.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이런 존재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에 모자관음을 조성해 관세음보살의 어머니 같은 자비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삼천대천세계를 구성하는 우주적 관점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 '은하관음', 문헌에 근거한 용을 탄 관음을 표현해낸 '귀룡관음' 등도 눈길을 끈다. "절에 가면 칠성탱화가 있고 화엄경 법화경에는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 은하관세음보살로 그려보았습니다. 용을 탄 관세음보살 역시 문헌에서 찾아내어 제 상상을 덧붙여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 2010년부터 서울 법련사서 출발
> 전국 33개 사찰 순회전 마쳐
> '모자관음', 현대화된 모습으로 표현
> 10월 19일 동해 삼화사서도 전시


피에타를 떠올리며 완성한 '모자관음'

이처럼 그는 단순한 모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그만의 관세음보살을 고안해 냈다. 또한 전시기간동안 남 작가의 삶에도 또 관람객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왔다. "33개의 사찰을 돌면서 여러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유서 들고 절에 오셨던 한 거사님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했다고 하셨어요. 또 무엇인지 모를 기운에 이끌려 제 그림을 보러 오셨던 지상스님과는 좋은 인연을 맺고 생명나눔실천본부를 돕는 일에도 작게나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가정적으로 힘들었던 분들도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원만히 풀려 감사의 인사를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남종진 씨는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불교미술학을 공부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다녀왔다. "파리에서는 빛의 표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작업들이 이번 관음보살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3개 사찰 전시가 끝난 지금 그의 행보는 여전히 바쁘다. 10월 19일 동해 삼화사에서 수륙재와 함께 33관음도를 전시할 예정이며, 내년 초를 목표로 그동안의 전시를 책으로 정리한 에세이도 펴낼 계획이다.

"33개 사찰을 순회하면서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와 관음보살님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내용의 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알려 나가는 것이 이번 생에 주어진 제 업임을 알고 열심히 정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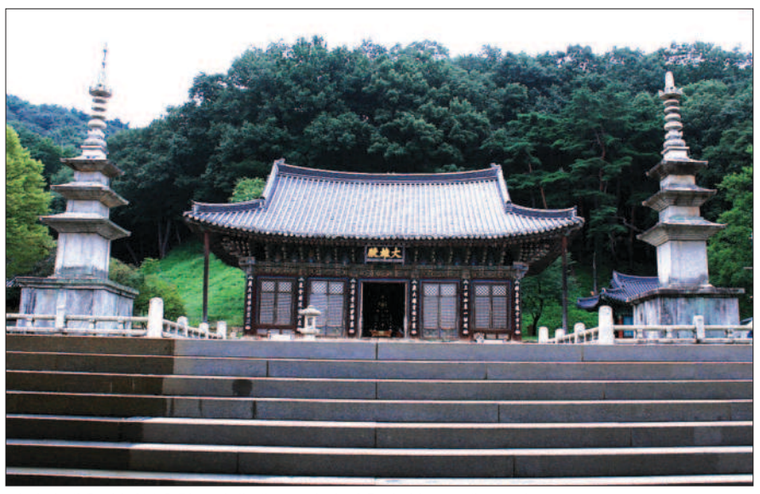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천리 멀리 글 구하는데 어찌 거절하리요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㊳ 직지사 (上)




직지사 대웅전(경북유형문화재 제215호)과 삼층석탑(보물 제606호)

선불교 정신 담은 신라고찰

김천 직지사(直指寺)는 백두대간의 웅장한 기운을 품고 있는 황악산(黃嶽山 1,111m)을 등지고 앉은 유서 깊은 도량이다. 418년 아도화상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것이 법흥왕 14년(527)이라는 점에서 그리 신빙성은 없다. 다만, 아도화상이 활동한 모례원과 도리사 등이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신라불교의 전법지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직지사라는 절 이름에 담긴 의미가 흥미롭다. 직지라는 말은 선종의 용어에서 온 것이다. '교외별전(敎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이는 말로써 가르치는 경지를 넘어서 인간의 본성을 직접 꿰뚫고 들어가 성불을 한다는 것이다. 사변(思辨)이 아닌 직관으로 인간 실체의 궁극을 잡아채는 선종의 정신을 요약한 말이다.

직지사라는 절 이름이 아도화상에서 기인한다는 설도 있지만, 어느 시대부터인가 직지사의 수행가풍이 선종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절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고려 말과 조선의 초중기의 선비들이 직지사를 주제로 지은 시들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들이 보일 뿐 선불교의 정신을 담아낸 경우는 없다. 목은 이색(李穡 1328~1395)의 시는 유학을 하는 선비들과 불교의 스님들과 교유가 깊은 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라 밝히고 있어 흥미롭다.

귀곡금거백련사(龜谷今居白蓮社)
앙려석재황악산(鴦廬昔在黃岳山)
보문운석욕복구(普門韻釋欲復舊)
목은로옹방투한(牧隱老翁方投閑)
천리구문감자외(千里求文敢自外)
제방앙풍무소간(諸方仰風無少間)
고래유석공유희(古來儒釋共游戱)
사해미천성가반(四海彌天誠可攀)

귀곡이 지금은 백련사에 기거하거니와
옛날엔 황악산의 앙려에 기거했었네.
보문사 풍류 스님은 집을 복구하려는데
목은 늙은이는 방금 한가히 있는 때라서
천리 멀리 글 구하는데 감히 거절하리요.
제방은 풍교 받들기에 작은 틈도 없으리.
고래로 유자와 불자가 함께 유희했거니.
사해와 미천을 참으로 따라잡을 만하네.

이색의 문집 〈목은집(牧隱集)〉 제21권에 실린 이시의 제목 자리에는 '전(前) 내원당(內願堂) 운 귀곡(雲 龜谷)이 백련사(白蓮社)에 있으면서 보문사주(普門社主)와 함께 장차 황악산(黃岳山)의 직지사(直指寺)를 중수(重修)하려고 노인(老人)에게 서신을 보내와서 연화문(緣化文)을 요구하다' 라는 긴 글이 적혀 있다. 목은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다.

시에 나오는 '운 귀곡' 은 스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즉 운은 공민왕(恭愍王) 때의 선승(禪僧) 각운(覺雲)을 가리키고, 귀곡은 바로 그의 법호(法號)이다. 목은은 각운 스님이 직지사 중건을 위해 모연문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감회를 시로 적은 것이다.

둘째 구절의 앙려(鴦廬)는 부부금슬이 좋아 쌍으로 다니는 원앙새처럼 마주보며 서 있는 집채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각운이 한 때 살던 직지사의 좌우 익랑을 그렇게 부른 것이다. 목은은 친분이 두터운 각운 스님의 부탁을 어찌 거절하겠느냐고 장담하며 시를 전개시키고 '고래로 유자와 불자가 함께 유희했음' 을 말하고 있다.

결구에 나오는 사해(四海)와 미천(彌天)은 중생계와 불국토를 은유하는 말이다. 미천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미타천 즉 정토세계이고 유교적 입장에서는 아주 고매한 뜻을 비유하는 단어다. 그에 비해 사해는 인간이 사는 세상, 중생계인 것이다.

모연문 부탁에 즐거운 마음목은이 이 시에서 '사해와 미천을 따라잡을 만하다' 고 한 것은 중국 진(晉)나라 때의 고승 도안(道安 312~385)과 관련된 일화를 차용한 것이다. 도안(道安) 스님이 형주(荊州)에서 처음으로 문장가로 이름 난 습착치(習鑿齒)와 서로 만났을 적에 도안이 "나는 미천 석도안(彌天釋道安)이요" 하자, 습착치는 "나는 사해 습착치(四海習鑿齒)요." 라고 하여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실제로 두 사람은 불교와 유교라는 각자의 길에서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아무튼 목은 이색은 친분이 두터운 각운 스님의 모연문 청탁을 받고 불가의 스님과 유가의 선비는 오래전부터 친근했던 사실을 드러내며 기꺼이 모연문을 쓰겠다는 마음을 시로 표현했다.

한수조개력구승(閑隨 蓋歷溝 ?)
청일훈풍맥이등(晴日薰風麥已登)
관단재오심옥판(款段載吾尋玉板)
도리요객철금승(梨邀客撤金繩)
청천입앙분신죽(淸泉入 分晨粥)
결월규렴체불등(缺月窺簾替佛燈)
삼십년전독서지(三十年前讀書地)
송삼의구벽층층(松杉依舊碧層層)

한가히 태수따라 봇도랑 밭두둑 지나노니
개인 날 훈훈한 바람에 보리가 벌써 익었네.
관단마는 나를 태워 옥판을 찾아가는데
스님은 손님 맞으려 금줄을 걷어치우누나.
맑은 샘물은 동이에 길러 새벽 죽을 나누고
이지러진 달은 주렴에 비춰
부처 등불 갈음하네.
삼십 년 전에 내가 글을 읽던 곳인데
소나무 삼나무는 여전히 층층이 푸르구나.

이 시는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작품이다. 〈점필재집(佔畢齋集)〉 제16권에 실려 있다. 제목 자리에는 '이 군수 및 최태보 삼 형제와 함께 직지사에서 노닐었는데, 이날 군수는 돌아가고 다만 최태보와 함께 자다[與李郡守崔台甫三昆季遊直旨寺是日郡守還獨與

단, 1번의 기도로
당신의 사주를 확 바꿀 수도 있다

NAVER DA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약사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중생제도하실 분
모든 기술 전수. 서울, 경기지역 포교원 원장님 모십니다.
최면술 / 퇴마술 / 기공술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 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음달길 19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천암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토곡산의 정기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부산역 상담센터
상담 / 문의 1899-8108. 010-9229-3801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7 ~ 9/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3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김영사
4	사랑이 온다(화해와 치유의 힐링 그림편지)	이영철	해조음
5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6	트라우마 사용설명서	마크 엡스타인	불광출판사
7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	여시아문
8	달라이 라마 마음의 고향을 찾아	가연숙	참글세상
9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10	불교 인식론과 논리학	카츠라 쇼류	운주사



세계 最多 표제어 한문 선학사전 출간

〈최다〉

태화선학대사전 – 전3권(한문본)

정원 스님 편찬 | 수미산선 펴냄 | 전3권 30만원

세계 최다(最多) 표제어를 수록한 한문 선종사전이 출간됐다. 천안 평심사 정원(淨圓) 스님이 편찬한 〈태화선학대사전〉이다. 사전에는 수록 표제어 33,475조, 예문 25,899, 참조 표제어 1,200여 개가 실렸으며, 전 3책(3,000쪽)이다. '태화'는 정원 스님의 당호이다.

책은 편자인 천안 태화산 평심사(平心寺) 정원 스님이 1970년 이래 대장경을 열람하고 불교 경전과 어록을 번역하고 〈현구집(玄句集)〉, 〈벽암록(碧巖錄)〉, 〈오종록(五宗錄)〉, 〈오가어록〉, 〈선문염송집표주(禪門拈頌集標註)〉 등 10여 종의 저서를 편찬 간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어휘에 각종 전등사서(傳燈史書)·선사(禪師)들의 어록(師語錄)·선종 사찰의 청규(淸規) 및 중·근세에 편찬 간행한 선학 사전인 〈조정사원(祖庭事苑)〉(宋·睦庵善卿 편)·〈선림소어고증(禪林疏語考證)〉(明·永覺元賢 편)·〈선림상기전(禪林象器箋)〉(日本·無着道忠 편) 등에서 수집한 어휘를 보태고, 이를 〈선종대사전(禪宗大詞典)〉(중국·袁賓 편)·〈불광대사전(佛光大辭典)〉(대만·佛光山寺 편)·〈선학요감(禪學要鑑)〉(일본·相澤專海 편)·〈선학사전(禪學辭典)〉(한국·불지사 편) 등 중국·대만·일본·한국 4국에서 발행한 선교사전 7종과 선어해설서 13종, 현대 불교사전류 20여 종을 대조하여 증첨하고 정원 스님이 평생 수집한 문구를 증첨하여 한문으로 편찬한 것이다.

사목(詞目)의 배열 순서는 첫째 한자부수를 따랐으며, 둘째 한글의 한글음(가나다순)을 따라 차례로 안배했다. 사목엔 한글음을 병기했으며, 한글의 두음법칙을 쓰지 않았다. 사목에 병기한 한글음은 범어 외엔 대개 원음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삼았다. 예컨대 布施(포시) 十方(십방) 南泉(남천) 遍照(편조) 呵呵(하하) 등등이다. 선적 인용 예문은 ▲號로 표시했으며, 선적 외 인용한 내외전의 예문이나 및 주해는 △號로 표시했다.

조선조 이전 해동 선종의 선사나 거사는 기록이 없더라도 편입했으며, 중화의 임제 위산 운문 법안 동산 아래의 모든 선사 거사 등은 크게 7宗으로 나누어 표시했으니 곧 임제종 위앙종 운문종 법안종 조동종 양기파 황룡파이다.

〈태화선학대사전〉은 2014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표제어를 수록한 한문 선학사전이며, 부록으로 서역·중국·한국·일본의 〈선등 계보 약도〉를 실었다. 또한 편찬, 입력, 편집, 제작 등 전 과정을 편자가 직접 수행한 자가 출판본이다. 〈태화선학대사전〉의 출간은 편집 작업에는 약 20여 개월이 소요됐지만



저자 · 정원 스님

표제어 33,475조, 3책 3천 쪽

저자 40여년 공부 집약한 역작

한글본 아닌 한문본 출간 이유는

연구 성과 · 사전 편찬역량 등

세계에 한국 선학계 위상 세우고

원문의 오역 최소화하기 위함



정원 스님 40여 년 공부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종의 어사(語詞)를 해석한 선학사전류의 국내 출간은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관련국에 비해 매우 저조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태화선학대사전〉이 한글본이 아닌 한문본이라는 점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태화선학대사전〉 출간의 취지와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 〈태화선학대사전〉은 '국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인 정원 스님은 "〈태화선학대사전〉을 한문으로 출간한 이유는 세계 선학계에 한국 선학계의 연구 성과 및 사전 편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학문적으로는 용어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선학연구에 있어 국제적으로 한문본의 효용과 수요가 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번 〈태화선학대사전〉의 출간의 의미와 취지는 결코 작지 않다. 또한 저자인 정원 스님은 언제라도 여건이 허락되면 〈태화선학대사전〉의 한글본 출간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 말 경에는 〈선문염송집표주〉 한문주석서를 '문헌보존용'으로 100권 한정으로 출간할 계획이라고 다음 출간 계획을 밝혔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저자 정원 스님은

1970년 8월 일우 스님을 의지하여 출가했다. 1980년까지 일우 스님으로부터 선교를 배웠다. 1984년 8월 천안 광덕면 매당리에 평심사를 창건하고 11년 간 칩거하며 〈고려대장경〉 〈대정신수대장경〉 〈대일본속대장경〉 〈한국불교전서〉 〈조선불교통사〉 등 내전을 두 차례 열독했다.

1994년 각종 선교의 전적, 사서, 노자, 장자, 채근담의 명구 및 구송을 모아 자필로 서사한 〈현구집〉을 출간했으며, 1996년에는 〈벽암록〉을 번역 주석하고 자필로 서사하여 출간했다. 2005년에는 1992년~2004년에 지은 시게(詩偈) 700여 수를 모아 번역 주석한 〈태화당수세록〉을 출간했다.

2005년~2009년까지 〈고려대장경〉 〈대정신수대장경〉 〈대일본속대장경〉 〈한국불교전서〉 〈조선불교통사〉 〈삼장법수(三藏法數)〉 및 각종 선교의 전적(典籍)에서 11만 장단문구(長短文句)를 가려 뽑아 직접 입력하여 〈대장사원(大藏辭苑)〉 DB를 구축했다.

2009년에는 〈대장사원(大藏辭苑)〉 〈현구집〉 〈태화당수세록〉 〈대장사원〉 〈선등세보(禪燈世譜)〉 및 십삼경(十三經), 이십사사(二十四史), 제자백가(諸子百家), 동양연표(東洋年表) 등 그 동안 구축한 DB를 공개했다. 또한 송대(宋代) 선승 목암선경(睦庵善卿)이 〈운문록(雲門錄)〉 등 20여 종의 선가어록(禪家語錄)의 난해구를 해설하고 오자와 탈자를 교정한 〈조정사원(祖庭事苑)〉을 석자역주(釋字譯註)하여 출간했다.

2010년에는 선가(禪家)의 각종 어록·등록(燈錄)·승전(僧傳)·송고(頌古)·염송(拈頌) 등에서 장단송구(長短頌句) 6,300여 항목을 가려 뽑아 역해(譯解)하고 그 출전(出典)을 밝힌 〈선림송구집(禪林頌句集)〉을 출간했다.

2011년에는 임제(臨濟), 위산(潙山)·앙산(仰山), 운문(雲門), 동산(洞山)·조산(曹山), 법안(法眼) 등 선문(禪門) 5종(五宗) 7조사(七祖師)의 어록을 집대성한 〈오종록(五宗錄, 통칭 五家語錄)〉을 집주역해(集註譯解)하여 출간했다.

2013년에는 고려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이 편찬한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의 출전·인명·어구 등을 주석한 〈선문염송집표주(禪門拈頌集標註)〉를 CD로 간행했으며, 2014년 6월에 〈태화선학대사전〉을 한문본으로 출간했다.

"정도전의 '불교비판' 피상적이고 소략해"

정도전의 불교비판을 비판한다

고상현 지음 | 푸른역사 | 1만9천원



"과연 불씨(佛氏)의 설처럼 사람의 화복과 질병이 음양오행과 관계가 없이 모두 인과의 보응에서 나온다면, 어찌하여 우리 유가의 음양오행을 버리고 불씨의 인과보응설로서 사람의 화복을 정하고 사람의 질병을 진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불씨의 설이 황당하고 오류투성이여서 믿을 수 없음이 이와 같거늘, 그대는 아직도 그 설에 미혹되어 있는가?" 조선왕조 건국의 일등공신인 정도전의 〈불씨잡변〉의 '불씨인과의 변' 중 일부분이다. 책은 정도전의 불교 사상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은 없는지, 정도전의 불교 비판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정도전은 개혁주의자이자 한 시대를 주도했던 탁월한 정치가요 사상가였다. 계급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봉건시대에 민본주의를 부르짖은 그의 혁명적 성향은 만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진적 사고이며 실천의지를 보여준 예다. 정도전의 민

성리학 중심 왕조 건설 위한

정도전의 '불교 과도 비판' 비판

15항목으로 불교 비판한 〈불씨잡변〉에

담긴 문제점 경전 중심으로 고찰

본사상은 고려 말에 유입되어 조선왕조 500여 년간 지배이데올로기서 기능한 성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도전은 성리학이 조선왕조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정도전은 성리학 중심의 왕조 건설을 위해 이전까지 우리나라 사상의 중심이었던 불교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우를 범했다. 이는 정도전 사상의 결집서 〈불씨잡변(佛氏雜辨)〉에 그대로 담겨 있다. 책은 그의 개혁사상의 핵심인 성리학의 안착을 위한 사상투쟁의 일환으로 불교를 비판한 내용에 대해 살피고 있다.

〈불씨잡변〉은 정도전의 벽불사상을 집대성한 것으로 불교 교리를 윤회, 인과, 심성, 작용시성(作用是性), 심적(心迹) 등 15항목으로 구분하여 비판했다.

저자는 이 저술들에 담긴 정도전의 불교 비판 논리를 심성론, 윤회인과론, 사회윤리적인 면, 신앙적인 면, 역사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피고, 각각의 비판에 담긴 문제점을 불교 경전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첫 번째, 정도전은 마음과 본성을 분리해서 보는 성리학의 관점에서 마음과 본성을 동일하게 보는 불교의 심성론을 비판한다.

둘째, 정도전은 윤회설을 불교의 세계관 혹은 인생관의 핵심이자 불교 교리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많은 양을 할애하여 비판한다. 세상의 모든 일과 업이 인과관계로 전개된다는 불교의 인과설 또한 성리학의 관점에서 비판한다. 정도전은 사물의 탄생이나 운명에 있어서 보응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어떤 사람의 운명이나 화복, 나아가 만물의 현상 전체는 천도에 따라 음양오행의 작용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일 뿐, 전생의 과업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정도전은 인륜을 헐고 깨뜨리는 점, 실체조차 불분명한 지옥설을 퍼뜨리는 점, 승려들이 걸식을 말하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생활을 하는 점 등의 사회적 폐단을 저지른다며 사회윤리적인 면에서 비판한다.

넷째, 신앙적인 면에서는 정도전은 불교 사리신앙의 비유용성과 비실용성에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나 저자는 불교 경전을 면밀히 살피면 정도전의 불교 비판이 피상적이고 소략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정도전의 '불교 비판'을 비판한다.

첫째, 심성설. 정도전의 불교 심성론 비판은 주로 논리의 비일관성 또는 논리의 비약, 개념의 혼란 등 논리 전개 방식에 집중된다. 그러나 정도전은 불교의 심성론을 성리학적 입장에서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의 예각을 세운 것이었다. 본질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단을 배척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정당화하려는 비난이었던 것이다.

둘째, 윤회인과설. 불교의 윤회인과설은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변화 그리고 생멸의 현상에 기초한 원리다. 저자는 정도전이 이러한 불교 윤회설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거부한 듯하다고 말한다. 그에게는 불교의 가르침 자체가 아니라 당대 사회와 백성들에게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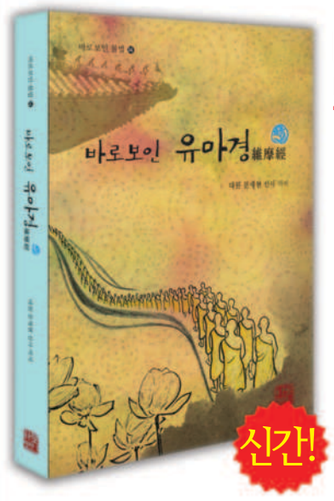
셋째, 사회윤리적인 면. 불교의 윤리관은 출가자와 재가자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정도전은 오직 출가자의 경우만을 들어 불교의 윤리관을 비판했다.

넷째, 신앙적인 면. 정도전이 비판한 사리신앙의 유행은 불교의 전통적인 사리신앙에 당대 두 고승의 입적과 사리 출현 등이 더해진 결과다. 그러나 정도전은 이를 살피지 않고 현실적, 실용적인 이유를 들어 비판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불교 경전에 근거해 〈불씨잡변〉을 중심으로 나타난 정도전의 불교관을 고찰했다. 또한 〈심문(心問)〉〈천답(天答)〉, 〈심기리편(心氣理篇)〉, 〈불씨잡변(佛氏雜辨)〉을 옮긴 부록을 통해 독자들이 정도전의 불교 사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완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인가 제자 67권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삼보양초



①원기등홈 / 원기둥 한 BOX 20개 · 가격 : 9만원 (금초출시예정 11만원)
②돈 타 레 홈 초 40개 · 가격 : 9만원 돈타레홈금초 40개 · 가격 : 11만원
③등신불홈(대) 25개 등신불홈 40개 한 BOX · 가격 : 9만원
④밀대금초 한box · 50개 95,000원 밀대 한 BOX · 50개 75,000원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공급하여,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용품상회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고 오래 탄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3) 신상품, 금초는 색상이 아름답고 금분으로 제작되어 인체에 무해하며 냄새가 없다.

주문전화 : 010-9421-0772
사업부 계좌 : 농협 301-0121-9593-41 소원사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4번길 17 (거제동)
소 원 사 주지 도명 합장

생생한 禪 그대로 포착하는 선어록 길잡이

선의어록

김호귀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 8천원



우리는 '어록' 이라는 말에 익숙해졌다. '대통령 어록' '히딩크 어록' '법륜스님 어록' 등등. 보통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들이 한 말들을 두고두고 꺼내 보고 싶을 때 어록을 만든다. 촌철살인 같은 이 말들의 집합은 늘 사람들에게 지표가 된다. 〈선의 어록〉도 역시 마찬가지다. 선사들의 언행을 기록한 선어록과 경전을 해설해 선(禪)의 이해를 돕는 책이다. 한국과 중국의 선어록, 선의 경전에 이르기까지 선과 관련한 거의 모든 선문헌들을 다룬 이 책은 어록을 남긴 선사의 생애와 법맥, 편찬 당시의 시대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해 선지식들의 활연한 깨침을 통해 감화시켜 준다. 또 선어록에 나타난 선법의 내용은 선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데도 모자람이 없다.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어록' 이라는 말 자체가 본래 선종서 직제자 등이 사가(師家)의 가르침을 필록한 책을 뜻했다. 저자 김호귀 교수(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선어록(禪語錄)은 선의 어록 또는 선종의 어록이라는 뜻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는 일반적인 선문헌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선종 개조인 달마부터 모든 선사들이 일상 담화를 통해 종지를 설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문자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학을 중시하는 교종과는 달리 좌선 수행과 직관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종은 이심전심(以心傳心)과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종지로 삼았다. 따라서 선사가 직접 저술을 펼친 것이 아니라 스승의 언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제자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기록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선어록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했다. "마조의 선풍에서는 일상생활 그 자체가 선 아님이 없었기 때문에 선의 경지를 작용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시돼 일상 모든 측면서 사용하는 보통의 언어 그대로 문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거나 편찬한 것이 선어록이었다. 따라서 선어록 자체가 선의 구체적 측면과 인격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상의 표명이기도 했다."

〈선의 어록〉에는 또한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이 상대를 꾸짖거나 각성시키는 장면도 종종 등장한다. 그 중에는 선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한 번 쯤 들어봤음 직하거나 영화나 문학 작품 속에 삽입된 장면들도 포함돼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예들은 이렇다. "인종 법사는 법성사서 〈열반경〉을 강의했다. 혜능 대사가 법성사 행랑채서 잠시 쉬던 참이었다. 밤이 되어 부는 바람에 깃발이 움직였다. 두 승이 논쟁하는 소리를 듣자니 한 승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다른 한 승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였다. 논쟁이 오갔지만 도리에는 맞지 않았다. 혜능은 곧장 바람과 깃발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움직이는 것은 실로 그대들의 마음뿐이라고 했다. 우연히 그 말을 엿듣게 된 인종은 깜짝 놀라며 기이하게 여겼다. 다음날 혜능을 조실로 맞아들여 바람과 깃발의 뜻을 물었다. 혜능이 그 이치를 설명했다. 그러자 인종은 제자의 예를 취하여 선요를 청했다." 드라마틱한 스토리다. 또 있다. "일찍이 승찬 대사는 대풍질(大風疾)에 걸렸는데 혜가 대사를 찾아가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불쑥 물었다. 저는 풍질을 앓고 있습니다. 화상께서는 저의 죄를 참회시켜 주십시오. 그대의 죄를 가져오면 죄를 참회시켜 주겠다.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되었다."라고.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의 탁월함에 탄성케 하는 이런 장면들은 읽는 재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그 뜻을 참구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선어록은 "법어(法語) 및 수시로 행해지는 제자들과의 문답상량(問答商量) 등을 기록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성격이 강해 어록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록의 당사자에 대한 생애 이해가 아울러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따라서 이 책은 어록 당사자의 일대기와 편찬을 둘러싼 시대 상황, 후대에 평창을 붙인 배경 등에 대해 풍부한 설명을 더한다. 이는 또한 "어록이 어록으로서 충분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어록 당사자에 대한 법맥(法脈)과 종파(宗派) 내지는 당시의 사회 여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 저자가 의도한 것이다. 따라서 선어록에 대한 이런 설명은 시대 · 법맥의 흐름에 따라 구성한 목차와 더불어 선과 선문헌이 걸어온 역사를 조망할 수 있도록 또한 돕고 있다.

당사자 일대기와 법맥 등 설명
직관적인 선어록 이해 도와줘
선적 사이서 펼쳐진 명장면 소개

한 일화를 보면 〈벽암록〉 출현 이후 선승들은 너나없이 벽암록의 문자공부에만 몰두해 선수행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대혜종고는 벽암록 판각과 책들을 모두 한 데 모아 소각해 버렸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 문자로 전해지는 선사들의 어록을 참구하느라 선수행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선의 참된 실천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선어록에서 '송(頌)' '염(拈)' '시중(示衆)' 혹은 '수시(垂示)' '평창(評唱)' 등 일종의 주석과 같은 것들이 중요시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이전의 선문답에 대한 후대의 응답이자, 나아가 그러한 응답에 대한 응답이다. 선은 법맥을 따라 '염롱되고 평창되며' 더욱 발전해 나간다. 따라서 어느 한 조사가 말하는 선을 선이라고 믿기보다, 선사들의 말과 기록, 그것에 대한 평창이 긴 세월 이어져 내려오면서 변화하고 발전한 선의 풍성한 모습을 참조하는 편이 진정한 선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요즘의 '어록' 유행은 낯선 현상이 아닐 수 있다. 교학을 통하기보다 이심전심(以心傳心)과 불립문자(不立文字)를 통해 깨치기를 강조했던 선종 종지처럼, 오늘날의 사람들 또한 주장자를 내려치거나 호통을 침으로써 지도하는 선지식들과 만나, 보다 생생하게 선을 경험하면서 진리를 되새기고픈 심리가 강해서 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생생한 선의 장면을 그대로 포착하는 선어록 이해를 돕는 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잘 해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지금 삶이 불행하다면 '달마' 를 만나라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웅연 지음 | 불광 펴냄 | 1만5천원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달마' 를 모르는 이는 드물것 같다.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달마야 놀자' 등 영화 제목에도 등장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길흉화복을 상징하는 '달마도' 는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이웃나라 일본서도 우리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비슷한 놀이를 할 때, '달마가 굴렀다' 라고 외칠 만큼 달마는 대중적으로 친숙한 인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달마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선종(禪宗)을 완성한 6조 혜능의 위광에 가리고 달마도 그림의 위세에 짓눌려, 달마의 삶과 말은 산산이 흩어졌다.

전설 속의 달마는 신비롭지만, 현실 속의 달마대사는 누구보다 쓸쓸했다. 참다운 자기다움을 지키려 애썼고, 혁명을 꿈꾼 죄로 죽어야 했다.

이 책은 인간으로서의 달마를 복원하며 달마의 실체적 진실을 잡아보려는 새로운 시도의 결과물이다. 한국 선불교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중국 선종을 창시한 초조 보리달마의 삶과 사상을 작금의 현실과 접목해 창조적으로 해석했다. 누구에게든 '살아있음' 이란, 자신에게는 우주적이며 절대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살아도 살아도 허기진 삶, 욕망의 부속이자 체제의 파편으로 살아가는 외로운 존재들이다. 달마 또한 1,500여 년 전 그 누구보다 고독하고 불행했던 사람이다. 달마는 삶에 대해 헛된 기대나 희망을 부여하지 않는다. 오직 무심(無心)으로 삶을 관통하며, 지금 살아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진실이자 완성임을 당당하게 펼쳐보인다. 치욕을 못 견디고 못남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완전체(完全體)' 인 자신에 대해 확신만 있다면 그따위 불행쯤, 아무렇지 않게 그러려니 받아들일 수 있는 내공이 쌓인다. 좌절과 울분, 자책과 낙담이 끼어들 틈이 없다. 오직 자족과 검약이 있을 뿐이다.

지금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아직 달마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달마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난다. 이제야 그와 말없이 햇살 바른 곳에 나란히 앉아, 이토록 명백히 처연한 삶과 마주하게 한다. 대한민국의 오늘, 하루에 40명이 자살하는 시대다. 고개를 들고 달마를 바로 보자. 그 사람도 살아냈다. 지금 여기, 달마의 독한 위로가 시작된다. "불안한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불교신문 기자로 재직중인 저자는 세상에 이로운 '글' 을 써보겠다는 일념으로 월간 〈불광〉에 '보리달마 공략집' 을 연재했다. 2년 연재 후 단행본으로 엮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손을 놓았다. 갑작스럽게 찾아든 마흔 앓이였다. 극심한 우울증을 겪는 동안, 글은 한 줄도 쓸 수 없었으며 다니던 신문사마저 휴직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온 이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달마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유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글쓰기에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산고의 고통속에서 탄생됐다.

김주일 기자

한 권에 담은 불교문화와 사찰 … 150여 그림 입체적 이해 도와

사찰의 비밀

글 자현 | 담앤북스 펴냄 | 1만7천원



탑은 10층이라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로로는 반드시 홀수, 가로로는 반드시 짝수로 세운다. 3층, 5층, 9층, 13층 석탑은 있지만 4층, 6층, 8층은 없고, 옆면이 4각, 8각은 있지만 5각, 7각은 없다. 이처럼 사찰에 있는 이것저것을 자세히,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 이나 '눈썰미' 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답사나 기도를 위해 절에 무시로 다녔어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흔하다. 불보살을 모신 전각의 기둥은 모두 둥글지만 스님이 숙식을 하는 요사채나 후원은 네모기둥으로 세운다는 건 보고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다. 건물마다 위계를 설정하기 위한 나름 계산된 의도다.

의미를 모르니 '못된 스토리텔링' 이 극성을 부리기도 한다. 지장보살이 가운데 자리잡으면 뜬금없이 등장하는 '개' 는 신라 김교각 스님이 중국 갈 때 데려간 경북 경산의 삽살개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는 학자들은 '사자' 임이 분명하다고 '추정' 한다. 또한 상원사 문수선원 앞에 놓여 있는 사자는 졸지에 고양이로 둔갑하기도 한다. 조선의 채색 전통 때문에 나한이 팥죽을 얻어먹었다는 이야기는 '애교' 에 속하는 정도다.

그런데 이런 '왜?' 라는 궁금증은 사실 불교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 땅에 자리잡은 '불교' 는 이미 2,600년이라는 긴 세월 무게를 켜켜이 쌓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에 자리잡은 무언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나온 책들은 대부분 불교 교리로만 설명하거나 양식의 변화에만 치중해 설명해 왔다. 당연히 잘못된 내용을 반복해서 생산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책은 다르다. 인도서 출발한 불교를 씨줄로, 이 땅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신선 사상이나 민속신앙 등을 날줄로 역사와 문화를 넘나들며 말없이 자리를 지켜온 사찰의 이것 저것에 대해 종횡무진 설명한다. 때로는 인도 저 넘어 그리스 · 로마 혹은 유교나 도교를 넘어 기독교와 이슬람까지 넘나들어야 할 때도 있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하마비나 일주문서 시작해 각 전각은 물론 의식에 사용된 다양한 도구까지 사찰 곳곳에 숨겨진 '비밀' 을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설명에는 양식의 변천뿐 아니라 신앙의 변천까지 모두 동원됐다. 이렇게 사찰 입구 하마비에서부터 산신각에 있는 염라대왕까지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데 동원된 키워드는 모두 33개다. 모두 너무 흔하게 하는 질문들이자만 속 시원한 답변이 없었던 것들이다.

△절은 왜 산으로 갔을까? △탑의 층수는 왜 모두 홀수일까? △법당 부처님은 왜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일까? △전각이나 탑이 만들어진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각에 붙어 있는 주련은 무슨 뜻일까? △전각 안에는 왜 그리도 동물 조각과 그림이 많을까? △부처님 앞에는 왜 쌀이나 초를 올릴까? △삼신할미와 염라대왕은 왜 절에 계실까?

저자는 이런 질문을 통해 사찰 안에 깃든 문화와 역사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불교를 신앙하는 이들에게는 더 깊은 믿음과 깨침을 주고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 깊은 역사와 이해를 준다.

이 책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산문이 열리고 이름이 생기다' 라는 제목이 붙은 첫 장에서는 사찰이 들어선 연유와 이름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일부 폐사의 과정까지 다룬다. 선종의 흥기와 조선의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해 산으로 들어가야 했던 역사 그리고 그동안 잘 몰랐던 역참이나 능침사찰 등 다양한 기능을 했던 사찰의 '역할' 등을 설명한다.

하마비서 전각 이야기까지 망라
사찰 주제 '종횡무진 크로스오버'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라는 둘째 장에서는 하바미, 부도, 일주문, 석등, 탑 등 전각 앞에 가기까지 만나게 되는 여러 유물에 대해 소개한다. 애초 불교는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나 석등은 조명 기능이 없는 장식품이었다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모든 장을 통틀어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사찰에는 전각이나 불상, 탑이며 석등 하다못해 마당 한구석에 이름도 없이 서 있는 오래된 주춧돌이나 기왓장까지 의미없이 그냥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불교문화서' 가 독자의 궁금증을 시원스레 해소해 주지 못한 데는 불교의 전개나 양식의 변천 등에만 초점을 맞춰 '사찰' 을 설명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불교가 거쳐 온 모든 지역의 문화가 하나하나 우리의 '사찰' 에 영향을 끼쳤음에 주목하며 그 전개 과정을 하나하나 탐사한다. 특히 150여 장이 넘는 도판과 그림은 독자들의 '사찰' 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돕고 있다.

김주일 기자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質的 공리주의'로 자리이타를 꿈꾸다

불교로 읽는 古典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19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그의 또 다른 작품인 〈자유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저술이다. 후자가 자유주의 사상의 영원한 고전으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했다면, 전자는 책의 제목과는 달리 밀의 공리주의적 정통성이 의심받는 다양한 빌미들을 제공한 책으로 처음부터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가 말년에 쓴 〈자서전〉에서도 〈자유론〉에 대해서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소개하면서도 〈공리주의〉에 관한 언급은 "세 번에 걸쳐 〈프레이저즈 매거진〉에 연재했던 것을 한 권으로 묶은 조그만 책"이란 서술이 전부일 정도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가 한평생 존경하고 사랑했던 부인 하리엣 테일러와의 공동저술인 〈자유론〉에 대한 찬사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 이어지는 〈여성의 예속〉과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무심결에 소홀하게 다룬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본다.

그러나 밀의 〈공리주의〉는 이후의 사태 전개과정에서 그 자신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공리주의적 가능성을 풍부하게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제레미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서설〉과 함께 고전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텍스트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가 1873년 5월 8일 67세의 나이로 숨지기 직전 양녀 헬렌 테일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나의 일은 끝났다"였다고 한다. 한 시대를 풍미한 지식인으로서 자기의 몫을 다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의 목소리였다.

공리주의의 호위무사

벤담의 〈입법론〉을 감명 깊게 읽은 밀은 '공리성의 원리'를 지식과 신념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근본원리이자 가장 바람직한 의미에서 일종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고백한다. 나아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널리 확산시키는 것을 향후 자기 삶의 주요 목표로 삼을 것도 굳게 다짐했다. 말 그대로 열렬한 공리주의자가 된 것이다.

이런 밀에게 당시 '돼지에게나 어울리는 철학'으로까지 폄하되고 있던 벤담의 공리주의는 물에 빠진 아이와 같은 긴급구조의 대상이었다. 일단 건져 놓아야 했다. 그가 서둘러 세 편의 다른 논문들을 엮어 〈공리주의〉라는 책을 펴낸 것은 이와 같은 저간의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공리주의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사실 밀의 트레이드 마크로 알려진 '질적 쾌락주의'는 이 과정에서 파생된 지적 부산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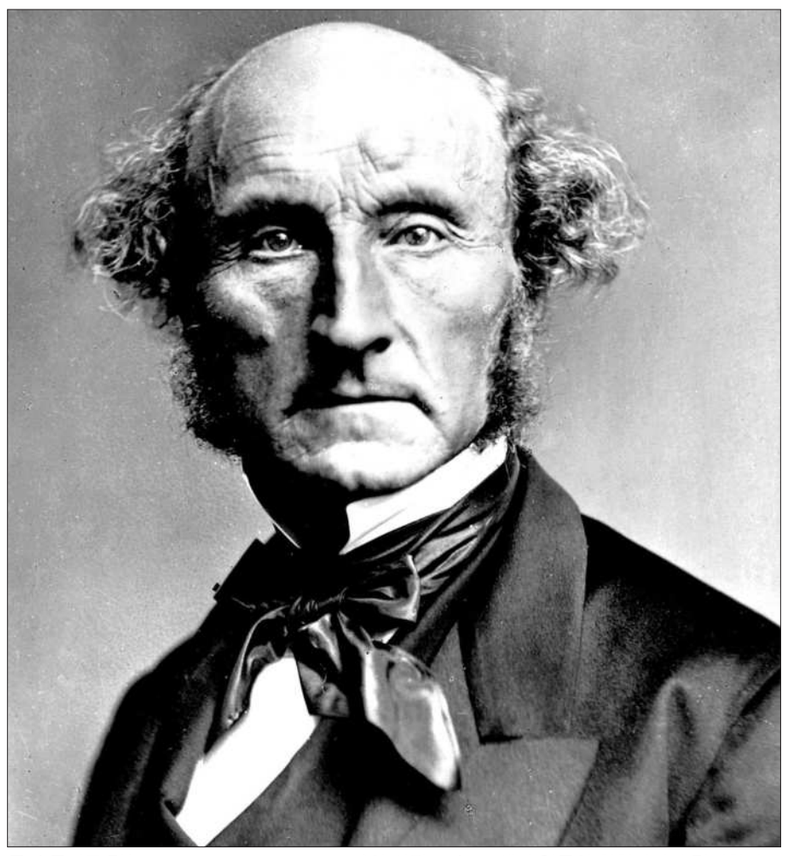
밀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거의 혹은 전혀 공리주의를 모르고 있으며 이러한 무지야말로 공리주의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첫 이유로 작용했다. 그들은 기껏해야 '공리주의'라는 이름만 들어 봤을 뿐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틈만 나면 공리주의를 헐뜯기 바빴다. 따라서 공리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편견들 가운데 몇 가지만 제거한다면 상황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먼저 공리주의의 정식을 새롭게 가다듬고 나선다. 밀에 의하면 유용성과 최대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고 있는 공리주의 이론은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행복을 증진시킬수록 옳은 것이 되고, 행복과 반대되는 것을 산출할수록 옳지 못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행복'이란 쾌락 혹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쾌락의 결핍과 이에 따른 고통은 '행복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쾌락이야말로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며, 바람직한 모든 것은 그 자체에 들어 있는 쾌락 때문에 혹은 고통을 방지하고 쾌락을 증가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리주의의 핵심명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의 원리와 어긋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자고 제안한다.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에 대해 말할 때는 오로지 양만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한마디로 말해 어불성설 내지는 자기모순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렇다면 우리는 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쾌락의 질적 차이란 무엇인가? 양이 많다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쾌락을 다른 쾌락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그의 답변은 명쾌하기 그지없다. 예컨대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 둘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의 전부 혹은 거의 전부가 도덕적 의무와 같은 것과 관계없이 하나를 망설임 없이 선호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더 바람직한 쾌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 ~ 1873)의 사진. 그는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구분되는 질적 공리주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를 통한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정치사상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벤담의 〈입법론〉에 대해 감명받고
공리주의 매료돼 새롭게 보완·수정
자기 헌신통한 공공 행복 창출 강조
밀의 '사회적 감정'은 동체대비 유사

그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커다란 불만족이 수반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그리고 비록 쾌락의 양이 적더라도 어떤 하나를 확실하게 더 원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선호되는 즐거움을 가리켜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질적으로 훨씬 우수한 쾌락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성을 가진 상식의 소유자라면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준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저급한 동물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때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격체적 의미를 갖고 있는 '품위감(sense of dignity)'이다.

그런 점에서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It is better to be a human being dissatisfied than a pig satisfied; better to be Socrates dissatisfied than a fool satisfied)"는 밀의 질적 쾌락주의 명제에 누구나 쉽게 동의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직도 품위감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전자보다 후자를 선호하는 삶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고통을 동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적 쾌락주의자의 삶이 아니라 질적 쾌락주의자의 삶을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추구해야 할 도덕적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물적인 삶을 사는 대신 고상한 원천에서 나오는 고급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은 도덕적 존재로서의 기본자세와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이성을 가진 인간은 자연적 본성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들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최대행복의 원리를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공리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최대한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환경을 궁극적 목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에만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질 따름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삶의 유형은 행위의 목적임과 동시에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인간행위를 위한 규칙이자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태도를 잘 유지한다면 최대한 많은 인류가 방금 기술한 것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밀은 여기서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각을 가진 모든 피조물 역시 그런 존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공리성의 원리는 행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불행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는 일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벤담을 넘어 자리이타의 공리주의로

공리주의를 위한 밀의 항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공리주의자들은 스토아학파나 초월주의자들에 못지않게 자기헌신의 도덕성을 강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리주의의 도덕률에서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에게 소중한 것마저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그와 같은 희생이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결과주의이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의 정식에서는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키지 않거나 증대시킬 경향이 없는 희생은 한마디로 말해 낭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공리주의는 다른 사람들, 즉 집단적 의미로서의 인류 또는 인류의 집단적 이해관계에 의해 설정되는 한계 속의 개인적 행복 내지는 그 행복에 이르게 하는 수단을 위해 헌신하는 자기부정만을 상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리주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인간행위의 옳고 그름에 관한 공리주의적 판단기준의 관건이 되는 행복은 행위 당사자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만일 행위자 본인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사심도 없는 선의의 구경꾼처럼 엄격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받는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와 공자의 황금률에서 그러한 공리주의 윤리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한 관점에서의 행복계산은 공리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개인의 행복 또는 이익은 전체의 행복이나 이익과 가능하면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사회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의 성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여론의 환기를 통해 모든 개인은 자신의 행복과 전체의 이익 사이에서, 특히 보편적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행위양식과 자신의 행복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계몽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행위를 계속해서는 완전한 의미의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직접적인 충동이 각자의 습관적인 행위동기 중의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이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밀은 이를 '사회적 감정(social feeling)'이라고 불렀다. 사회적 감정은 곧 불교에서 말하는 동체대비의 마음이자 자리이타행의 원리와 부합하는 행위동기에 다름 아니다.

공리주의 도덕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런 핵심적인 성격을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과연 공리주의가 다른 도덕이론에 비해 특별히 부족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아니 인간본성을 고양시키는데 이것보다 더 아름답거나 더 고차원적인 윤리체계가 있단 말인가? 공리주의에서는 결코 찾아 볼 수 없는 탁월한 행위원리를 갖춘 윤리체계가 과연 존재하기나 할까? 이런 물음들에 대해 밀은 단호하게 "NO"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도 복잡다단한 인간사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공리주의이론 역시 일정한 한계와 결함을 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도 했다.

밀은 대승공리주의자였다

밀의 공리주의는 벤담과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그와는 또 다른 빛깔의 매력을 발산한다. 어떤 의미에서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수정, 보완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독창적인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말이다.

모두 33권으로 구성된 〈밀 전집〉의 서문에서 프리스틀리(F. E. L. Priestly) 교수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를 가리켜 각각 소승불교(the Hinayana)와 대승불교(the Mahayana)라고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그것의 의미는 두 가지 불교입장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 이해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밀의 공리주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언제나 대승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기적임과 동시에 이타적이고 이타적임과 동시에 이기적인 차원을 함축한다. 그의 공리주의는 자리이타행의 원리와 동체대비의 품성을 함께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프리스틀리 교수의 평가는 밀 공리주의의 이런 측면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글쓴이가 보기에 밀의 공리주의는 확실히 불완전했지만 충분히 따뜻하기도 했던 휴머니즘, 즉 대승공리주의였다.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망고, 체리, 아보카도 등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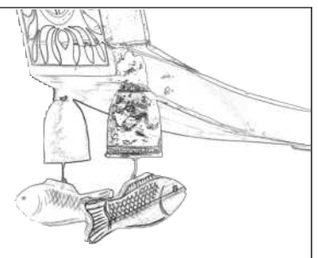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보시는 세상의 양식이 되거니 반드시 궁극적인 곳으로
가게 되리라. 착한 신장이 언제나 그를 돌보고
또 언제나 기뻐하네.

- 증일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사 찰 행 사
조상천도재, 49재,
각종점안식, 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지전무,
극락연등무, 축원무 등
영남범음범패[통범소리]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010-9909-0602

산새가 울고 물 좋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
수정사에서 암투병 환자와
요양이 필요하신 분을
모십니다
제사한 사항은
031)333-501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

스님이 없는 절이나
포교당 원합니다
무보시로 도와드리며
공양주도 구해 드립니다
연락바랍니다
(어려운 절만)
010-4882-3838

지리산에서 수만평
약초 재배로
자급자족하는 조용한
선사에 기도정진하며
생활 할 비구니스님 2분,
처사님을 모십니다
010-4924-37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수원시내)
031)253-8300
010-6604-9027

천 기 누 설
사주를 바꾸는
기도법을
전수합니다
010-9229-3801

옛부터 말편자는 사업번창,
운수대통, 소원성취를
이루어 주는 아주 귀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효험을 지닌 명마편자
개당 3만원
농협 187-02-274348 이청하
010-8561-8253

수련생 수시모집
- 건강,의료치료기공사(3-6개월)
- 손빛 氣치료
010-4611-1296
- (역학강좌) 운기명리학,점술 등
- 역학 관련 컴퓨터프로그램 무료제공
010-8477-7952
다음카페 : 일묘심 약사선원
네이버카페 : 묘심기공
1호선 지하철 신설동역 11번출구 직진 100m

최 면 공 부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715
주1~2회, 총10주 이상, 100만원
*내용 : 의학최면 중점
공부중 정신, 에너지, 영혼,
신마음, 의식, 무의식, 업,
귀신, 자아, 기 신령 등
여러 이름을 이해하게 됨
010-9609-1919
덕인 합장

지리산 청학동 산신봉 줄기
도량에 빈집 독채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참선 수행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무보시 수행 공부하실
보살님을 함께 찾습니다)
055)883-7385
011-759-0183

천도재 20만원,
제사 20만원,
49재(77재) 140만원
천도 정성껏 올려
드립니다
010-8412-7623
문수암

도심사찰
전세를
구합니다
010-2168-2800

불심이 깊은
독신자 60대
주지 보살을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1-9571-6559

관혼상례, 화환, 케이크
유능한 지점장
시,군,구 지역별 차등 등록
비. 5년계약, 성실한 분
등본,이력서,사진부착,종교
기입,신분증,건강진단서
070-8849-3011
사회적상부상조 협업

천둥 · 번개 · 벼락
• 천둥번개를 부리는 무서운 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월드기공 수련원 기공 수련반(기치유반) 모집
① 수련 일정 : 1개월 과정(주 2회 총 8회)
② 수련 시간 : (월요일) 오후 5시~6시 / (목요일) 오후 5시~6시,
개인 사정에 의해 조정이 가능함
③ 수련 장소 : 서울 동작구 사당로 30길 62(동작구 사당동 1010-33)
월드기공 수련원
④ 문의 전화 : (02)863-2351 / 휴대폰 : 010-8628-7158
자연치유(월드기공)카페 http://cafe.naver.com/754kim.cafe
(http://cafe.daum.net/creankim)에서 기공수련 및 치매,
말기암 등 난치성 불치성 질환에 대한 놀라운 치유사례를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논산)
041)741-0414

부전스님 모십니다
처사님 모십니다
불교서적(헌책) 무료로
주실 분 연락주세요
(경기도 여주)
010-8819-8988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사고 없는 軍 생활
군 입대 병사, 부모, 장교, 부대장
특별상담과 기도
- 부모님의 역할, 자녀들의 교육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건전한 군복무
010-6789-5008
꿈바위불교교육원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안양)
031)471-6675

60세이상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남 의령
대한불교조계종 유학사
055-574-2882
010-3501-0225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함께 할 종도를 모십니다
부처님의 원융평등 사상과 관음보살의 자비 보시 정신을
실천하는 모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분담금 없는 종단 * 등록비 없는 종단
* 금전과 감투싸움 없는 종단
우리 정겹게 수행하며 봉사하는 종도로 함께 합시다
불교통합조계종 054)439-4600
경북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377번지

박사학위(명예)
미국령
꼭 필요하신 분
055)384-203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바다의 땅 통영! 아름다운 편백
나무 숲으로 어우러진 조계종 사
찰에서 기도하며 가족처럼 지내실
50대 공양주 한분 모십니다
보시는 월 130만원, 개인방사,
2박3일 휴가,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기타사항은 상담 후 결정합니다
055)645-5324
(24시간 상담)

"이 게 정말 가능해?" '자아실현교실' 개강 안내

강호 현인, 기사, 이인께 알립니다.

저 고복자 효사는 지난 15년 전부터 '육임강의록' 등 육임학습서와 '육임래정비법' 등 육임활용서를 많이 써내 여러분의 호응을 받아왔고, 이를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 '효사비결' 등 육임CD 프로그램으로도 개발해 더 큰 애호를 받아오던 중 지난 2012년에 이르러 '미국동양학대학교' (고교미필자 · 대학입학인증/학사/학사단축/석사/석박통합/박사과정)를 설립해 한국, 중국, 독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번 교육당국으로부터 제가 편집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방송 진실보도 만인보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인가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자아실현교실' 을 열고, 아래 내용의 육임술을 단기간에 '진검승부적' 으로 인도해 드릴 작정입니다.

학(學)이 아닌 술(術)은 오래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래 육임항목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시면 육임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3개월에 그 진수를 충분히 인도해드릴 것이며, 여러분은 이를 매우 익숙하게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육임의 진수를 얻어 가십시오!
더도 덜도 아닌 3개월입니다!

수강신청 과목

① 육임귀신술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귀신을 보는곳
나. 작사귀와 병 귀 구별법
다. 해소시킬 개소 및 물건 지적, 또는 해소 가능여부와 수법 효과여부 판단법
라. 불제 등 제거 방법(부적/제례) 실기 시범 등

② 육임사주감정술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육임가정법으로 일생의 대별 즉각 판단술
나. 육임천장법으로 일생 행로 즉각 판단술
다. 육임기궁법으로 일생 초, 중, 말년의 복분과 육친관계 즉각 판단술
라. 육임공망법으로 일생 운명 및 육친 기복여부 즉각 판단술 등

③ 육임풍수 묘지속판단술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 묘지에 물이 찼는가? 뱀 구덩이인가? 뼈가 뒤집어져 있는가?
없어져 버렸는가? 등
나. 이 묘지가 자손에게 어떤 탈을 부리는가? 무슨 이로움을 주는 가?
다. 이 묘지의 1대, 2대, 3대, 4대, 5대의 생업과 흥망성쇠 및 그 연유는?
라. 이 묘지의 육친은 조, 부, 모 형제자매 누구며, 이장을 해야 하나?
화장을 해야 하나? 그대로 두어야 하나?
마. 육임 명당술 및 후손의 천부적 직업 교시술 등

④ 육임주식매매적기(滴期)술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언제, 어떤 종목의 주식을 얼만 큼 사면 이익이 될 것인가?
나. 지금 팔까? 언제까지 갖고 있을까? 최고로 오르내릴 시기는 언제인가? 등

⑤ 육임부동산매매시기(時期)술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내 집, 내 땅이 언제 팔릴까?
나. 지금 파는 것이 이익인가? 더 갖고 있으면 오를 것인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나? 등

⑥ 경매, 낙찰 성공술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번 경매낙찰에 성공하겠는가? 실패하겠는가?
나. 낙찰 경매에 성공할 금액은 얼마인가?
다. 현장에 누구(띠)를 지정해 보내야 할 것인가? 직접 참여해야 하겠는가? 등

⑦ 위 전체과목 수강은 200만원 입니다.

⑧ 신청 절차
검색창 미국동양학대학교 검색 / 첫 창 우측 상단 '평생교육원' 클릭 등록
입금계좌 : 외환은행 630-008387-338 미국동양학대학교
9월 1일 저녁 위 해당과목부터 개강 함.

단, 자기 자신의 방향성에 고민하는 분, 또 치열하게 습득하실 분들만 오십시오.
저와 이내각 박사께서는 위 내용에 한해서만큼은 여러분을 '프로' 로
인도해 드릴 것을 자신 있게 약속 드립니다.

강사 : 육임가 고복자 효사

☎ 02)738-8680

만인보 부설 평생교육원 '자아실현교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미국동양학대학교 1층 강당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 내어 오욕락을 탐하지 않으면 곧 신심의 힘을 성취할 것이니, 이것을 견고한 믿음이라 한다"

- 광박엄정불퇴전륜경 -

사 찰 안 내

사찰부지 및 토굴
- 위치 : 양산 물금 (국도접)
- 총부지 : 자연녹지 10,000평
- **낙농강변 전망 최고 위치**
- 가액 : 6억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양도세. 취 · 등록세 전문상담(무료)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오래된 사찰
- 위치 : 부산 사상구 • 대지 : 239평
- 건물 : 법당 (목조) 21평
- 요사채(대형) 98평
- 주차장 51평
- 최고 위치 (뒤에는 산)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17번길(만덕동 다산타워505호)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찰(급)안내

- 경주시 폭포 사찰 양도
- 단청법당36㎡. 삼성각29㎡
- 요사채90㎡.지장전.토지6,400㎡
- 전통있고주변폭포와 청정계곡사찰
- 양도금액 : 12억5천원(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 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 25평, 창고 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경전 봉안 불사중

010-3403-3355

대형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자연석 기도처 돌산 이동가능한 일급자연석
- 수백억원 가치 용바위,거북바위, 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 IC에서 5분거리 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서구 재개발 예정지
- 삼존불,신중,칠성탱화,산신,용왕
- 기도하기 좋고, 상담하기 좋은곳
-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성도 좋음
- 대지 : 약 85㎡
- 가액 : 4천 5백만원

금호부동산 연산가-13-1645(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커배로 153번길18
051)861-2233

광진 사찰 안내

◎위치 : 서울경기 ◎위치 : 경기양평
◎부지 : 220평 ◎부지 : 170평
◎법당 : 40평 ◎법당 : 30평
◎요사 : 60평 ◎요사 : 70평, 전철10분
◎양도가 : 6억 5천 ◎양도가 : 4억 7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원주 도심 부근 좋은 위치 사찰
* 목조단청법당 80㎡ 목조요사 150㎡ 산신각등
* 토지850㎡ 주자창과 교통 편리한 남향사찰
* 금액 : 6억 3천만(융자있음). 실인수가 4억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 3층 건물 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 봉안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 외 방 1, 주방 1, 화장실 1 약 30평,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77만원 시설비 2,700만원(답사후 절충 가능)

011-309-3535

사찰안내(국유지)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734평, 인법당10평 정도
- 방 8개, 화장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가능
-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4918-25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주지스님 법인 임명관계로 10억이상되는 절 불사금보다 낮게 양도합니다.

010-2772-7210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시내에서 20분거리
- 대지 및 종교용지 약 590평 건평 약 80평, 단청기와법당 15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동 약 60평
- 요사채1동 :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층 황토원룸 방1, 화장실
- 요사채1동 : 방1 거실, 다용도실, 화장실
- 가액 : 3억 (법당 집기 및 요사채 집기 일체 포함)

010-4320-8842
010-5114-0172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신대구 고속, 상동 IC에서7분, 남해고속, 동김해 IC에서 15분거리)
- 종교용지외 930평, 임야 2870평, 법당 목조 22평(단청완벽)
- 요사채 2동, 종각, 산신각, 용왕각등 100평
- 법종시설, 법당, 요사채, 모든 시설 및 집기일체 포함
- 복지시설, 선원, 연수원, 기타개발최적지
- 가액: 12억

010-3847-4705

청주시내 중심권 포교원

- 3층 건물 3층 80평, 심야전기, 차고
- 옥상 100평사용, 삼존불, 후불탱화
- 최고시설 집기, 법당, 대방스님접견실 외 큰5개, 욕실3개, 넓은 주방
- 가액 : 전세 5,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 시설집기 1,500만원
- 좋은인연스님께 싸게 보시합니다

010-5883-22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부근
- 3층 건물 중 2층 42평
- 삼존불(동불), 아미타, 약사, 소불100여불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가액: 보증금 1,500만 월 60만 시설비 1,500만

010-2656-7775

포교원안내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앞
- 4층건물에 2층, 20평 철학관도 호조건
- 삼존불, 후불탱화, 방2, 주방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1백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비품대 200만원

011-9308-085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경주 톨게이트 근처 시내 7분거리 신경주역 10분거리
- 평수 : 대지 252평, 본체4칸집, 한옥인법당
- 방 2칸, 다용도실, 화장실, 뒤쪽요사채, 방3칸, 공양간 별도, 바깥화장실, 마당잔디, 연못, 정자3평, 산신각, 마을맨 윗집, 바위에서 물 내려옴, 심야보일러, 방 따뜻하고 온수 따로 나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7천 8백만원

054)232-4853/010-8518-551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소재
- 부지 : 2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 단청)
- 요사채 : 2동 80평
- 기타 : 종무소, 대중 공양간(20평) 등
- 가액 : 7억 5천만원
- 특징 : 도심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도구성이 잘 되어있는 포교도량입니다.

- 위치 : 포항시 북구(흥해)소재
- 부지 : 3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
- 요사채 : 2동 50평
- 가액 : 2억7천만원
- 특징 : 도심외곽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교 및 기도정진 할 수 있는 도량입니다.

※ 전국소재 사찰 및 절터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대구)010-5848-0455 / 서울)010-5728-0455
동진사찰 공인중개사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78(복현동 1층)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평수 183평, 인법당 18평, 요사채 60평
-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건강상 부득이 급양도
- 가액 : 2억 6천만원

011-9330-58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교환도 가능

010-8725-3196

포교원선원

- 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강남역 인접 역삼역 3분
- 4층 중 4층. 15평
- 보증금 1000만원,월세70만원 (관리비, 부가세 없음) 시설비 5백만원(절충가능)

010-9019-381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 대지 : 302평
- 법당 20평, 주방 10평
- 요사채 2동, 창고 1동 목욕실, 화장실 1동
- 교통편리하고 주차공간 많음 텃밭도 있음
- 가액 : 3억 2천만원

011-882-289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 법당 : 40평, 총평수 80평
- 방 : 2개, 창고 : 2 개, 종무실, 최고의 시설, 시장옆, 전망
- 좋은 요충지. 오래된 포교원
- 보증금 3,000만원 / 월150만원 시설비 조금. 전화주세요

핸드폰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3억2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부근
- 대지 175평, 법당11평
- 친견실, 요사채, 방2, 거실, 주방, 텃밭, 아미타도량
- 가액 : 9,275만원(시설비 포함) 8,750만원(시설비 제외)

010-8503-5769
055) 833-5769

전원주택(한옥)

- 땅을 알고 터를 잡으시고
- 좋은환경,좋은이웃 찾아오세요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 대지 167평, 건평 30평, 목조, 기와집
- 황토방, 정자(이민관계로 양도)
- 가액 : 2억 7천 5백만원(절충가능)

010-3703-5879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2,103㎡
- 건평(법당,요사) 329.4㎡
- 창고, 기타 약 15평 약 25평은 기초공사 완료
- 석등 외 조형물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답사후 절충 요함

010-7582-009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22-37번지 사거리 입구
- 평수 23평, 집기시설 일체, 몸 만 오시면 됨
- 스님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 20만원 집기일체, 시설비 1,500만원

010-4680-9322

암 자 안 내

- 경남 하동군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아름다운 수행도량임
- 법당 1칸, 요사 1칸, 부지 220평
- 스님이 갑작스런 자리변동으로 부득이 본암자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 법당 정남향 뒤 계곡이 있으며 참선과 수행 기도는 최적지입니다
- 가액: 1억원(조정가능), 임대도 가능

010-7702-6296

사 찰 안 내

- 춘천 3,600평 3억 6천 주변시세 반값 요양원 사찰건축 가능
- 경북 영주 2,500평 18억 복지원 요양원 현재사찰운영중 모든조건 완비
- 서울상계30평 2층 포교원 8천만원 35년운영중
- 수락산역 200M

010-4880-78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1640평
- 건물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전망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12억 5천만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평시장 근처
- 약 100평, 삼존불 연등 300개, 방4개 법당용 부엌 공양간 따로 있음
- 창고 LED 등 일체 유동인구 많음
- 현재 비구니가 운영하고 있음
- 몸만 오셔도 됨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80만 시설비 3,500만

010-8754-676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쏙뜸훈증침대 6대 옷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기공 교정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573-4438

사찰(전원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마산합포구 자동차 전용도로옆 창원 마산시내 5-7분거리
- 대지 160평, 건평 80평, 1-2층 양옥기와집
- 법당 20평 아미타삼존불 주차장완비
- 1층 근린생활시설용도, 방 5, 욕실 1, 화장실 5, 철학최적
- 요사채 40평, 공양간 20평, 별도 다용도실 30평
- 가액 : 3억4천(융자1억8천포함) 가액 절충

010-8008-7913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욕실2,거실,주방,패치카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작은방 2개중 1개는 구들방임
- 가액 : 2억 7천 5백만원

010-9411-5302 (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광주 20분거리 무안 - 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 건축물 목조 대웅전 29평, 요사채20평(방4,욕실1)
- 공양간 10평 방1, 해우소3평반 3칸
- 지하수 130미터 물수량 100톤 일급수
- CC카메라 9대시설, 사찰경내지 계곡물 흐름 잔듸조경 완벽
- 사찰 진입도로 현 3m에서 2차선으로 진입 확정
- 가액 : 3억8천

010-9338-0118

명당터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신축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전망 뒤에는 산, 땅모양 좋음
- 귀농 귀촌 하실분, 사찰 암자, 휴양지 적지 아주좋은 명당터, 조경석, 잔듸마당
- 총면적 1025평, 대지285평
- 신축 건평30평 20평 10평 차고 창고 보일러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미터 암반약수
- 속리산 물줄기가 건물 (주변) 앞,뒤로 물줄기 흐름
- 가액: 3억8천만원

010-5458-2258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 최상
- 3층건물 중 2층 전체 40평
- 주불 아미,관음,지장,소불,인등설치
- 법당, 친견실, 스님방, 공양실, 실내화장실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22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비품 및 시설비 1천7백만원. 약간 절충

010-2553-8827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 2동
- 3층 건물 3층 30평
- 아담한 법당 포교도량으로 최적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포교도량으로 최적
- 시설비 2천만원

010-7740-60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임법당)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복산동 598-3
- 법당(지장보살 1분) 1층단독 방4개
- 불기 다기 다량준비
- 주차시설 완벽
- 살림도구일체준비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150만원 월세 25만원 시설비 비품 300만원

010-8789-9794

토 굴 안 내

- 위치: 중부 곤지암 IC 10㎞ (제2 영동 고속 동광주 IC 6㎞) (성남-장호원 고속국도 IC 3㎞)
- 대지 147평,
- 건물(1층 40평, 2층 20평, 복층식)
- 사진은 문자로 보내드림

010-2887-576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시청 부근
- 대지 78평(건물70) 3층 전체, 옥상전체사용
- 4존불, 보물급후불탱, 삼성각 별도 위치, 음향시설, 에어컨 4개, 방3개, 종무실1, 후원, 다실1, 옥상창고25평. 몸만오시면 됨
- 현 불교대학 명상센터 방편 있으신 분 유리
- 가액 : 전세금 2,000만원, 월40만원
- 집기 및 시설비 일체 2,500만원 시설 최고(개인용품 제외)

010-8737-458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0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2000만원

010-4855-7205
010-3036-767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 2층 건물중 2층 독채 55평
- 방3, 거실, 욕실, 화장실, 도시가스
- 인법당, 법당종, 에어컨 완비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1,300만원 절충가능

010-4056-5677

명당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오대산
- 법정스님 집필 하시던 주변 50m거리
- 좌청 우백 안산이 완벽
- 수려한 삼길육수
- 1,000평(대지 100평 포함)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십시오

010-2678-0727

사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쑥골) 동남향
- 지목 : 임야 (계획관리지역+보존임야)
- 평당 10만원 약 2,200평
-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직접)

010-2215-365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시청 2분거리 (거제시장 2층)
- 위치좋음
- 평수 : 40평, 방3, 주방, 법당, 방음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5백)

010-9421-07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
- 시설 완비
- 가액 : 3억

010-3508-771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울산시 남구 달동 874-4번지 3층 (교보생명빌딩 뒷쪽)
- 평수 50평, 법당, 방3, 주방, 화장실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100만원

010-8928-9494
010-7132-9157

생각사용 설명서

〈3〉 나를 바로보다

전현수 박사 (정신과 전문의)

“당신의 첫 기억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훑어 볼 수 있는 첫 기억

학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꽤 많은 정신 치료 전문가들이 상담자를 만나면 꼭 첫 기억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첫 기억 속에 그 사람의 문제의 핵심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기억은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어느 날 30대 중반의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회의나 모임에 참여하면 긴장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다. 또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무척 위축되어 힘들다고 했다. 이 사람에게 첫 기억에 대해 물었는데 그 기억 속에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들어 있었다.

이 환자의 첫 기억은 3~4살 때의 희미한 것이었다. 기억 속에서 그는 툇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비록 어른이 되어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적막강산’ 같았다고 말했다. 주위에 자기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외롭고 권태롭게 느껴졌다. 이 환자의 주된 문제인 자신감이 없고 위축이 잘되는 것과 직접적 관련이 있었다.

이처럼 환자의 첫 기억은 환자를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 치료를 하는 경우 거의 빠짐없이 묻는다. 단순한 기억뿐 아니라 그때의 느낌, 그리고 감정가지 같이 묻는다. 특별한 기억이 아니어도 좋으니 뭐든지 기억나는 것은 말하라고 한다. 희미한 기억도 좋고 단편적인 기억도 좋으니 뭐든지 살아오면서 생각나는 것 중에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을 말하면 된다고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첫 기억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첫 기억이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도 못 만나봤을 것이다. 환자들은 의아해하며 그걸 왜 묻지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당신이 살아온 인생을 훑어보기 위해서 묻습니다.” 하고 대답한다. 대개 5~6살 때의 기억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3~4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어렸을 때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어떤 환자는 자기가 엄마 젖을 먹는데 못 먹게 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드물긴 하지만 어떤 환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기억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첫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첫 기억이 없을 수는 없다. 태어나서 기억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이니 그것이 없을 수는 없다.

꼭 정신치료를 받는 환자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자신의 첫 기억을 알면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같이 정신치료를 하는 동료들과 가끔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동료가 이야기해주는 첫 기억이 지금 그 동료가 보이는 행동과 놀라운 일치를 보여주는 것을 보고 첫 기억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했다. 그 동료는 융통성이 많고 아주 활발한데 첫 기억에 이미 그런 행동이 보였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의 힘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환자가 있어 소개하겠다.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진료실을 찾아왔다. 아름다웠고 건강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답답해서 찾아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한참을 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장래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직장의 동료 여자가 그 남자 자신의 어머니를 연상시켜서 자꾸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이성적인 감정과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환자는 충격을 받았다. 자기 아닌 다른 여자를 이유가 어떻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난 뒤부터는 공부도 거의 할 수 없었고 그 남자도 믿지 못하겠고 회사일로 출장을 갔다 온다고 해도 공연히 의심이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하고도 이것을 의논하지 못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사이좋은 짝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큰 오점이 될 것 같았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다. 2년을 혼자서만 괴로워하다가 이러다가는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나의 진료실을 찾아왔던 것이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 가까운 친구와 툭 터놓고 의논을 했다면 쉽게 해결이 되었을 터인데 2년을 혼자서 생각만 하다 보니 생각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환자에게 “남자 친구가 동료 여자에 대해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 여자가 어머니를 연상시켰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나온 것이다. 그 여자에 대한 감정은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지 이성적인 감정이 아니다. 그것과 당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별개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주었다.

며칠 뒤 이 환자가 다시 찾아왔는데 수심이 말끔히 걷힌 밝은 표정이었다. 이제 전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치료를 더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밝게 웃었다. 상담한 첫날 상담을 끝내고 나가며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응어리진 것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이 경우처럼 가슴이 응어리진 것이 한 두 번의 상담으로 마치 오래 곪았던 종기에서 고름이 빠져 나오듯이 풀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몇 년 전에 상담했던 한 여대생은 “선생님, 이상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요.”하면서 매우 신기해했다.

실제로 쥐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쥐를 자꾸 그리게 하면 쥐를 덜 무서워하게 된다. 쥐를 그림으로써 쥐에 대한 공포심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표현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는 무척 중요한 데 일반 사람들은 표현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 자신의 첫 기억 알면
>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 돼
>
> 가슴에 응어리 진 것들을
>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 오래 곪았던 종기에서
> 고름 빠져나오듯 풀려
>
> 자기중심 · 주체성 부족할수록
> 자기 괴롭히는 사람과 닮게 돼

물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도 있다. 앞서 예를 든 여대생의 경우 남들은 자신을 아주 보기 드문 멋진 연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자가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자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까운 친구에게 조차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환자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오히려 자존심이 약해서 말을 못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존심이다.

남의 눈치 때문에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은 진정한 자존심이 아니다. 또한 말을 못하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그랬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의논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강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일은 청춘남녀 사이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것을 얼마나 슬기롭게 이겨나가느냐에 따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런 것을 통해 서로의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모든 질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정신 장애도 마찬가지다. 일단 한 번 병이 되면 치유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후유증도 생기며 병으로 인해 많은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 정신 장애를 예방하는데 자기 자신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 만큼 좋을 것이 없다. 평소 관계가 좋은 친구나 선배, 선배님이나 가까운 친지에게 자신의 힘든 점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조언을 듣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일은 거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남 괴롭히는 사람, 남에게 괴롭힘 받던 사람

내가 치료했던 한 여자 환자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가 학교에 갔다 오면 현관에서 옷을 다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오게 했는데, 그것이 싫어 자기는 커서 절대로 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런데 자기가 커서 어머니가 되어 자기 딸에게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왜 싫어하면서 닮게 될까? 안 그러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알코올 중독자인 의붓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고 훌륭하게 컸다. 또 어떤 사람은 술 먹은 아버지가 싫어 술을 평생 한 방울도 입에 안 대는 사람도 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 닮느냐 아니냐는 개인마다 갖고 있는 성격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주로 자기중심이 없고 주체성이 부족하며 자기를 괴롭히는 대상에 대한 심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과 닮게 되는 것을 앞에서 말한 대로 정신분석학 용어로는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한다.

귀신이 무서워 밤에 밖을 못 나가던 꼬마애가 하루는 깜깜한 밖을 잘 돌아다녔다. 그래서 이제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이제 무섭지 않다. 내가 귀신이라고 생각하고부터는 무섭지 않다.”라고 했다. 이것은 공격자와의 동일시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된다.

나를 괴롭히고 겁먹게 하는 공포의 대상이 있을 때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사람과 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섭고 공포심이 생긴다. 이럴 때 공포심, 불안을 없애는 길은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이다. 두려운 대상과 동일하게 될 때 거부감도, 공포심도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닮게 된다.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과 같이 되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가깝게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괴롭힘을 당하면서 억눌리고 쌓인 분노를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표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괴롭힘 당하면서 자존심 상하고, 쌓인 울분을 나름대로 푸는 것이다. 결국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과거에 남에게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이 많다. 요즘 문제되는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는 이런 속성 때문에 되풀이 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좋은 품성을 잃고 나쁜 품성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하면 공격자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를 없앨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를 읽고 공격자와 동일시돼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회적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전현수 박사의 〈생각사용 설명서〉(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마을지나 산을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량
- 법당 30평, 요사40평, 대지 465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1-503-051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 평수 : 70평, 2층
- 법당, 간사 3동 응접실, 공양간, 엘레베이터, 도시가스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050-5055

포교원안내
- 위치 : 사천 시내 중심지
- 평수 : 60평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8616-573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두 반송 2동
- 평수 : 50평, 4층건물중 4층... 정원이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 전세: 3,000만원 .. 월 20만원 또는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10-2575-9876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약 90평. 2층 공양간, 3층 법당 4층 스님 친견실
-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주방기구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856-1099

암자안내
- 위치: 경북 의성군
- 초목이 가득한 암자
- 유실수, 정원수 가득, 넓은 공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1년 350만원

010-8826-8373

별장지 및 사찰터 최적지
- 경북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 백두대간 예천테라피 자연 치유공원내
- 별장,사찰 최적지
- 사철계곡에 물이흐르는 자연경관 최적지(도로접)
- 답 1800평(평당가 33만원)
- 답 1900평(평당가 18만원) (당가 절충가능,주인직접)

010-2608-7277

절터자리로 좋은 곳
- 팔공산 갓바위 뒷편
- 사계절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음
- 토성작업이 완성된곳
- 마당까지 대형차진입
- 3천여평 외
- 가액 4억(현세에 맞지않음)

010-6253-3107

1012호 | 불자정보

TEL 02)2004-8213(直)
FAX 02)737-0696
(원고접수)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음성지 용왕 전문도량 태안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스님
10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아래와 같이 불교TV에서 경전 강의

– 아 래 –

- 경전 : 법진스님의 수행의 근본지침 –42장경
- 일시 :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9월 24일은 강의 없음>
- 장소 : 불교TV 1층 무상사 법당(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 문의 : 02)3270-3300


법진스님

무상사 법당에 오시면 직접 법진스님의 법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법진스님 〈42장경〉 강의 불교TV 방영시간 안내 *

9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 화요일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10시와
매 일요일 새벽 2시에 불교TV(BTN)로 방영됩니다.

■ 불교 TV 채널 안내
* IPTV : KT(233), SK(555), LG(185)
* 스카이라이프 : 411(전국공통)
* 케이블TV 채널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전화문의 바람(02-3270-3355)
* 인터넷(www.btn.co.kr) 및 모바일(m.btn.co.kr)에서 무료 다시보기 가능

갤러리 색즉시공



꽃들이 답을 한다

산다는 것은 답을 하는 것
간밤엔 산중의 선사가 불현듯 답을 하고
오늘은 꽃들이 답을 한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시간은
이유가 있는 모든 것들의 답변인 것을

내일 깊어진 하늘이 답을 하고나면
계절이 또 한 번 답을 할 텐데
산중의 선사가 좌복을 벗고
도량의 구절초가 하얗게 지도록
여직 수수께끼인 것은 나뿐인 듯하다

오늘은 꽃들이 답을 한다

사진 · 글=박재완 기자

당신은 '후회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Buddha in Comic & Ani

⑰ 데자키 오사무의 〈내일의 죠〉

한 남자가 있다. 애초 성격은 글러먹었고, 믿는 것은 두 주먹 밖에 없는, 그래서 사각의 링 위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밖에 없던 '권투 바보'다. 삶의 마지막 역시 자신이 가장 환희를 느꼈던 링 위에서 산화한다. "하얗게… 하얗게 재가 되도록 불태운 거야. 하얗게…"라는 대사를 남기고.

지금도 일본 스포츠 만화에서 임팩트 있는 작품을 꼽으라면 적지 않는 사람들이 〈내일은 죠(국내명 도전자 허리케인)〉를 회자한다. 원작인 만화도 수작이지만 개인적으로는 2011년 작고한 故 데자키 오사무가 연출 · 감독한 애니메이션 〈내일의 죠〉는 애니메이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수작(秀作)으로 평가한다.

사실 한창 경력을 쌓던 신인 감독인 데자키 오사무의 출세작이자 데뷔작도 바로 1970년 만든 '내일의 죠'다. 그 후 그는 〈에이스를 노려라〉, 〈보물섬〉, 〈베르사유의 장미〉까지 히트작을 내놓았고, 투과광 기법이나 하모니 기법 등 새로운 애니메이션 기법들을 만들기도 했다. 그만큼 데자키 오사무에게 〈내일의 죠〉는 자신의 청춘을 바친 역작이었고 그만큼 애착이 있던 작품이었다.

권투 바보의 이야기 〈내일의 죠〉의 스토리를 살펴보자. 주인공 이부키 죠는 천애 고아로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그야말로 동네 양아치의 표본이다. 그러던 중 복싱 프로듀서인 단페이를 만나고 복싱을 접하게 된다. 그 후 라이벌 리키히시, 카를로스 등과 접전을 벌이면서 복서로 성장한다.

천재적인 머리와 실력으로 강호들을 하나 하나 격파하는 죠이지만 평생의 라이벌 리키히시 시합 이후에는(리키히시는 시합 후 사망) 사람의 얼굴을 때리지 못하는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여기에 크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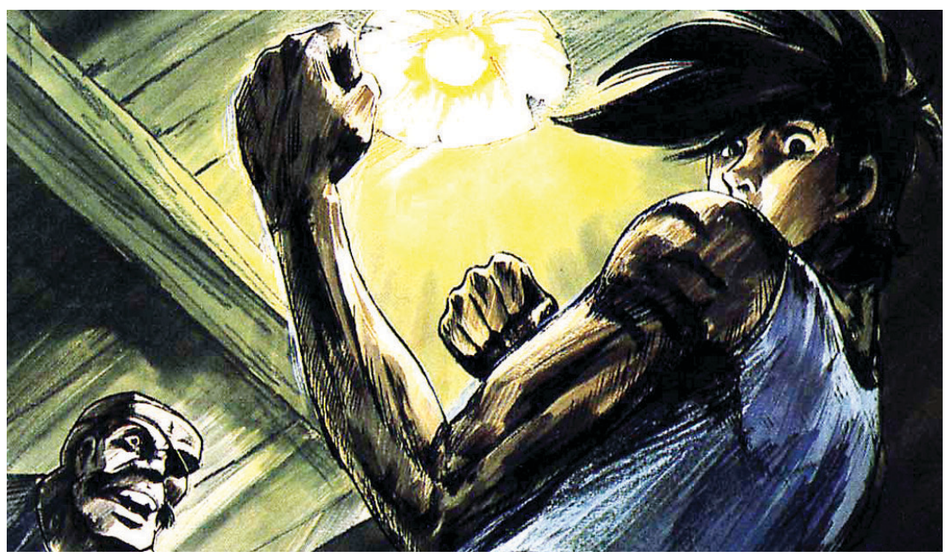
처철한 '사각의 링' 사투 속에
자신을 산화시킨 남자 이야기
"성공 떠나 오늘 살라" 화두 던져

카운터라는 필살기. 이로 인해 죠는 위력적 한방을 위해 수많은 편치를 견뎌야 하는 제로섬 게임을 해야 했다.

작품의 마지막, 죠는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몸을 이끌고 호세 멘도사와 사각의 링에서 맞선다. 처절한 15라운드 사투의 결과는 죠의 패배, 그리고 죠는 죽음을 맞습니다.

마지막 대결 직전 만신창인 몸으로 연인에게 죠는 말한다. "껍데기만 타다 꺼져버리는 식으로 어설픈 젊음은 보내지 않겠다"고. "한 순간이지만 새빨갛게 타오르겠다"고.





〈내일의 죠〉의 마지막 장면(사진왼쪽)과 일러스트(사진 오른쪽). 주인공 죠가 벌이는 사각의 링 사투에서 우리는 후회없는 삶을 살아간 청춘을 만난다.

이런 처절한 허구의 이야기가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마지막까지 관철시킨데 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녹은 쇠에서 생기는 것인데 녹은 점점 쇠를 먹는다."

삶은 살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 나가는 방법을 배운다. 세상에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인생에 군살이 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의 군살'이라는 '녹'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하나 하나 좀 먹는다.

〈내일의 죠〉에서 보여지는 사각의 링은 인생의 축소판처럼 보인다. 항상 우리는 인생에 맞서 싸운다. 그 안에서 무수한 편치를 날리며 때리기도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승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이다. 패배의 쓰라림도 마지막 공이 울릴 때까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공 이부키 죠는 승자로 기록되지 못했다. 승자와 패자라는 이분법적 성공 논리로 보자면 죠는 분명 패자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생에 충실했고, 사각의 링에서 자신을 완전 연소했다. 흘날리는 봄꽃이 짧지만 아름다운 것은 인고의 시간을 거쳐 최선을 다해 꽃망울을 터뜨려서다. 이 작품은 인생의 군살이 붙고 타성에 젖어 사는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여기, 후회없는 삶을 살고 있냐"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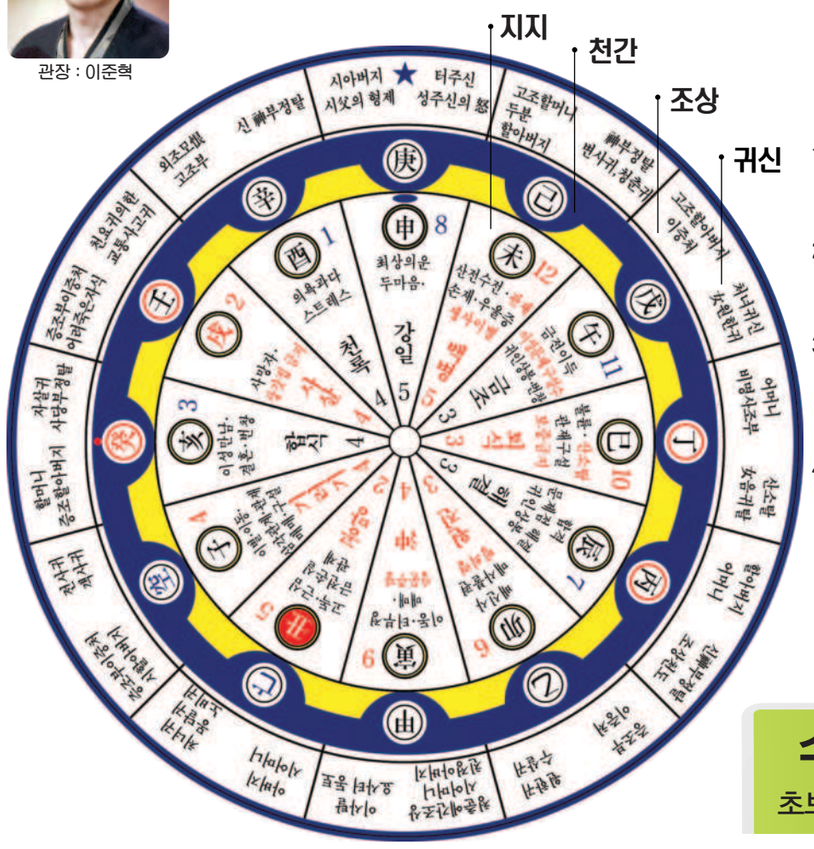
"껍데기만 타다 꺼져버리는 식으로 어설픈 젊음을 보내고 싶지 않아. 비록 한 순간일지언정. 눈부실 정도로 새빨갛게 타오르는 거야. 미련없이 불태웠을 때 남는 건 하얀 잿가루 뿐이야. 최후의 순간까지 불태워 버리겠어. 아무런 후회없이 말이야."

- 〈내일은 죠〉 아부키 죠의 대사 中



관장 : 이준혁

백발백중귀장술 쉽게 보는 백문백답 회전원판,
내 손 안의 귀장술입니다 (극비 도궁술 추가 강의)



언제까지 손으로 짚어서 상담하시렵니까?

1) 금일 일진만 맞추면 한눈에 상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庚申日 기준)
2) 굳이 손으로 짚을 필요가 없이 공망도 표시되므로 육십갑자를 외우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3) 백발백중귀장술 원판은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수작업으로 제작.
· 원판크기 지름 15.5cm
· 재질 : PC
4) · 초기원판 업데이트
· 크기확대 보기 편함
· 귀장 내용 추가

특허출원번호 : 30-0721929

※ 원판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작 배포할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교육가능 합니다.

문 의 : 010-8558-2345 / 02)2273-8557
주 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 금강빌딩 B-105호
계좌번호 : 신한 110-371-828252 (예금주 : 이민희)
(5호선, 8호선 천호역 3번출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 · 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베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현대불교신문
구 독 문 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02)2004-8200



대행 스님

보고 듣고 말하는 거 모두가 다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과 봄은 많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살기 좋은 때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덥고 춥고를 떠나서 그렇게 봄을 기다리는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한마디 얘기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원심사상(圓心思想)이란 둘이 아닌 사상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귀합된, 우주와 일체제불과 우리들이 둘이 아니게끔 된 사상입니다. 하다못해 벌레 하나도 빼놓지 않는 사상이죠. 또 법사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업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심사상으로써 이끌어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몸 안에도 나 아닌 나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럼 내 몸 하나 가지고도 원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에서부터 그렇게 진화돼서 나오면서 거듭거듭 형성된 우리들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또 나까지도 공했으니 우리가 그대로 원입니다. 원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원이 세워졌다는 얘깁니다. 우리 몸뚱이를 고정됨이 없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움죽거리게 하는 그 기둥이 있는가 하면 몸은 그 기둥을 끼고 돌아가는 수레와 같다고 합니다. 그럼 몸과 자기 근본의 기둥이 어떻게 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끌어 드리는 그 사상은, 사상이라는 말도 떼어 버려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원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법사상은 이게 틀리고 저게 옳고, 네가 나쁘다 내가 좋다 이런 것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사상은 그대로 업사상이 될 수밖엔 없다 이런 거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자기 근본이 바로 원사상이죠. 말하자면 자기 불성 기둥에 수레가 같이 끼고 돌아가니까 원심력을 기르기 위한 방편으로써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놔라 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상의 그 안되고 되고 하는 것에 대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잘된 거는 잘된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안되는 것은 '너만이 되게 할 수 있다.' 하고 또 거기 놓고, 한군데다가 집중해서 다 거기다 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사상과 원사상이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가 업을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거니와 아파 줄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깨달음을 대신 못 해 줄 것이고, 똥 누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것도 대신 못 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홀로 와서 망망대해를 지금 홀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입니다. 그래 원사상을 알아야 하겠기에 지금 둘 아닌 도리를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게, 즉 가만히 있으면 원사상이요, 생각을 하면 법사상이요, 또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수레가 돌아가듯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끝없는 진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중세계지만 하세계, 중세계, 상세계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써 그 삼세계를 다 놓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자기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놓는다면 다 놔지는 겁니다. 그게 놔질 때는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서 입력된 게 없어지듯이 그렇게 없어지면서 그 새로이 입력 들어가는 게 바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부해 나갈 때에는, 이 이름 저 이름 찾거나 이 형상 저 형상 찾지 말아야 하고,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이 저러면 저렇게 듣고, 그러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걸 듣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주인공에다가 '아, 잘못되는 것도 너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좋게 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놓는 겁니다. 책을 보더라도 내 주인공이, 즉 말하자면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을 보게 되는 거지 내 근본이 없다면 어떻게 책을 볼 수 있겠습니까. 송장이 되지.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모두가 다 그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여여하게 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만법을 자동적으로 들이고 내게 할 줄 어찌 알았으리까.' 조금 더 보탰습니다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보면 얘기하고 보면 말하고, 움죽거리면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고정됨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말했다 하면 바로 즉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 다른 말 할 때는 바로 미래로 향해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한 찰나 전, 한 찰나 후가 되죠. 우리는 찰나찰나 화(化)해서 변화하고 나투면서 끊임없이 이어 갑니다. 나투는 거는 움죽거린다는 뜻입니다. 이거 봤다가 저거 보고 하는 그 움죽거림. 나툴 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못해서 걸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로 살다가 소의 습을 놓지 못해서 도로 소로 태어나듯, 사람도 공부하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살다가 보면 회향을 잘못해서 중세계에서 살던 그 차원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철 사는 데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진리를 알아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깨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불기둥이 자기를 움죽거리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뚱이는 수레바퀴와 같이 불기둥에 중심을 끼워서 돌아가니 그 불성은 항상, 움죽거리진 않아도 힘을 배출해 줍니다. 우리는 이 옷을 벗을 때까지라도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받지 않게 차원과 모습과 삶을 높여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을 또 건져 주게도 되죠. 하여튼 마음이 지구 바깥을 벗어나야, 다른 우주 세계도, 다른 은하계 세계도, 달과 별과 해를 다 자기를 삼아서 이 세상을 골고루 둘러보며 골고루 할 것입니다.

이 법사상과 원사상을 이론으로만 들어서 행한다면 아니 되죠. 어떤 거를 막론해 놓고 잘하든 못하든, 상대가 좋든 나쁘든,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놓고 나쁜 거는 나쁜 것대로 놓되 한군데다 놔야 합니다. 우리가 나온 구멍이 그 구멍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구멍도 그 구멍이고, 더 나아간다면 그 자체도 다 없는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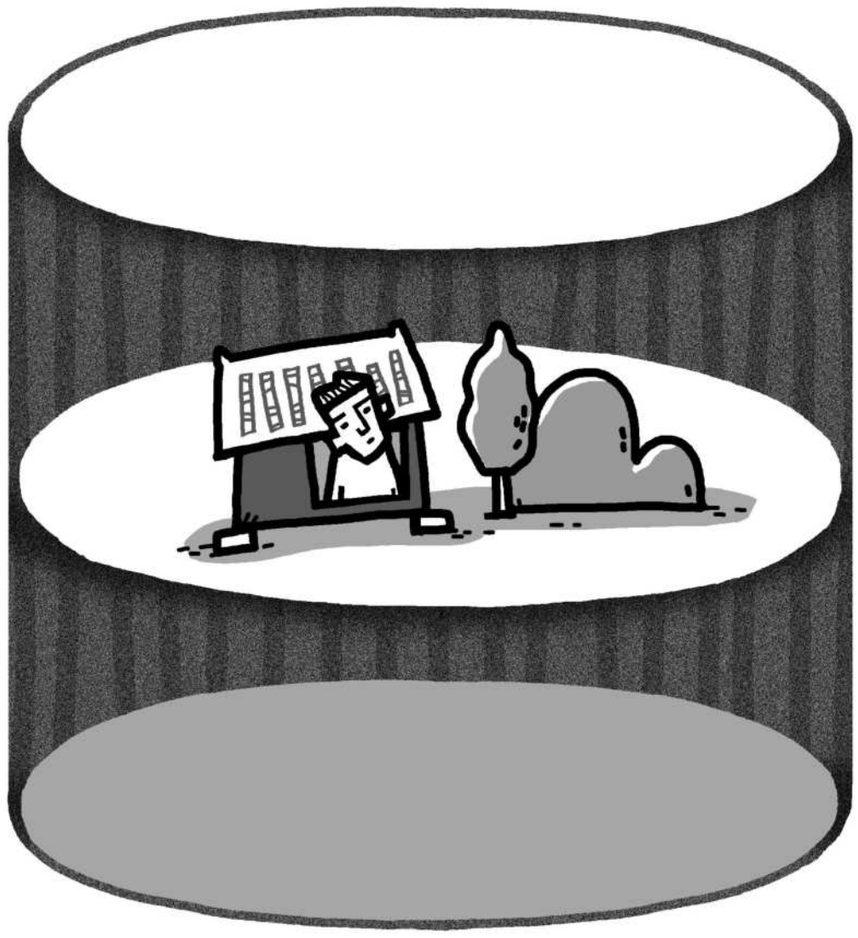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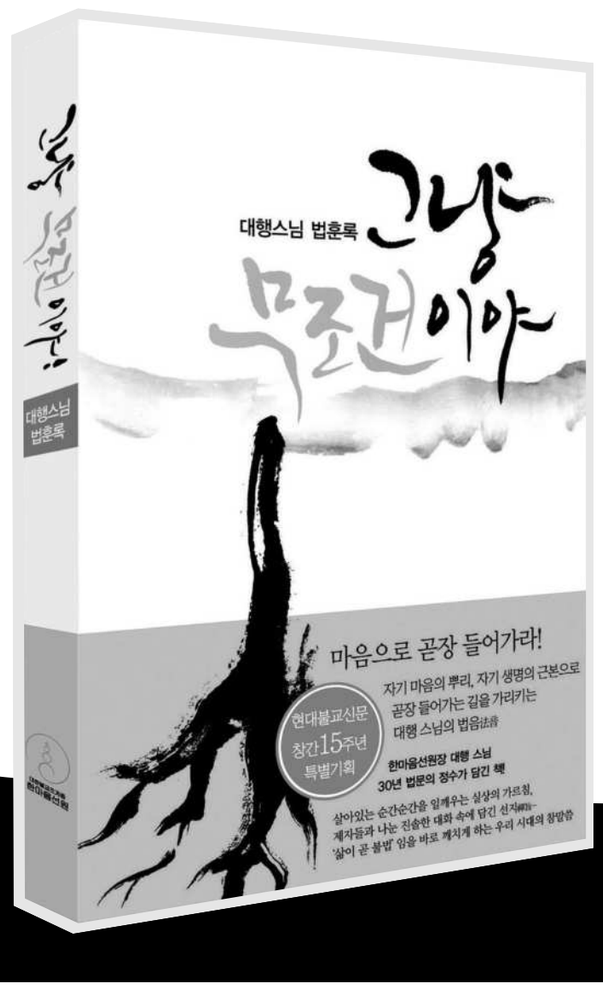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옷을 벗을 때까지라도 열심히 해서 차원 높여 나와야

☞ 29면에서 계속

자유자재권을 인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느 길을 향하고 있느냐는 요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러 나오지 못했다 하는 건 핑계입니다. 돼지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니요. 우린 하나 둘 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어떠한 꿈을 꾸더라도, 어떠한 귀신이 나오더라도, 또 산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그리로 들어가면…. 즉 말하자면 이 마음은 하나인데 내 분신을 이 허공에 꽉 차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악마라도, 악마의 왕이라도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악마의 왕이 된다면 그런 짓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보살들로 하여금, 즉 말하자면 부처님의 분신으로 하여금 천차만별의 가지가지를 건지게 하는 것이죠. 따져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잘못되고 잘된 걸 모르는 사람이나 악마에게는 무조건입니다. 남을 해하는 거를 일삼아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면 하나가 되고, 열 개라면 열이 되고, 백 개라면 백이 될 수 있는 자유자재권이, 이 공부를 하면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진리를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과학이며, 그대로 의학도 되고, 천체물리학도 되고 철학도 되고, 아니 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이 모습은 옷이기 때문에 한 철 지나면 벗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었을 때에 자유권을 가지고 이 공기 주머닐 벗어나서 들이고 낼 줄 안다면, 들고 날 줄 안다면 죽어서도, 옷을 벗고도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뿐만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원을 세운다' 하는 것과 '원심력을 기른다' 는 것에 대해 생각들이 다릅니다. 원을 세운다고 말하지만 이미 원은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을 세운다는 것은 주인공을 내가 하나 세웠다는 겁니다. 공이라고 그런 뜻은 뭡니까? (주먹 쥔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시며) 바로 몸과 그 불성의 기둥, 그렇게 말해도 되고 정신계와 물질계,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공했다! 그랬으니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일체를 내 탓으로 돌려서 다 놔라. 둘 아니게 거기다 놓아라. 오늘 왜 법사 스님과 내가 법문을 이렇게 양면으로 들려주었을까 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리로 기울어져도 아니 되고 저리로 기울어져도 아니 되는 까닭에, 이 양면을 다 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야 나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세상으로, 관 속으로 들어가는 놈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참견하고 저것 참견하고 한다면 어떻게 죽은 세상의 맛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죽으라고 했습니다, 몸이 죽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거기다가 놓고 일임하면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 세계에, 저승길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과거에 죽은 사람의 이치를 모른다면 지금 산 사람을 어떻게 건집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과거로부터 죄를 짓고 나와서 산다. 그런데 아주 고통스럽다. 이럴 때는 과거로 돌아갈 줄 알아야 그것을 지우고 다시 나오죠.

죽어야
나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세상으로,
관 속으로 들어가는 놈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참견하고
저것 참견하고 한다면
어떻게
죽은 세상의 맛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들 하는데 '비구니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러겠지만 비구니든 비구든,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습은 보지 말라. 모습은 천차만별로 바뀌는 까닭에 어떤 걸로 바뀌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여자다 남자다 따지지 말라. 모습은 각각이나 마음이야 어찌 같지 않으리." 이 문제 등등을 잘 생각하신다면 고통스럽다기보다도 이렇게 살면서도 극락으로 사는 묘미가 있다 이 소립니다. 이렇게 살아도 극락으로 살 수 있는 까닭에 옷을 벗고도 극락세계에서 또 여러분을 부지런히 건져야 하겠죠. 미생물에서부터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아님이 없었으니까요.

어떠한 걸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따로따로 보진 마세요. 모두 이 불기둥 하나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아까 육조 스님 얘기했죠.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여여하게 하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말은 조금 달라도 그전에 나도 그런 말을 하고 갔지만, 육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근래에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육조 스님과도 둘이겠습니까? 일체제불과도 둘이 아니죠. 진리는 하나지 둘도 아니요, 진리는 공한 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로써 끝마칠 테니까 질문하십시오. (질문자에게) 바짝, 편히 앉아요. 편히 앉으라니까요. 다리 안 아프게 해 줄 사람이 따로 없어요.

질문자1(남): 스님, 저는 지금 심등회 회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스님께 세 가지를 여쭤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한 2, 3년 전부터는 정신과학회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정신과학에 대해서 저희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연구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기공과학이라고 하고 인체과학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이 나와서 과학자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공계를 예로 들자면, 매일 수련하는 사람이 3백만 이상이 되는 걸 중국 십대기공이라고 말하는데요, 벌써 십대기공만 해도 중국의 3천만 인구가 매일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수행법, 기공이나 인체과학들이 도교나 혹은 불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도교에서 나온 가르침을 전하는 분들도 어디 마음의 본 자리가 하나지 둘이냐 그러면서, 불심이나 도교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리나 같은 자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초능력들을 보여 주면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과학자가 연구해야 되고 이러한 과학들을 연구하는 나라가 앞으로 강국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도 벌써 수천만 이상이 수행을 하고 있고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소림사에서 나오신 '엄신' 이라는 분이 미국에 한번 다녀가고 나서요, 대단히 많은 미국의 과학자들이 그분이 소림사에서 배운 수련법에 따라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세계적인 조류가 단순히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미래의 국력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어떤 학문으로서 자리잡고 그 나라의 국력의 척도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스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죽으라고 했습니다.
몸이 죽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인공에다 놓고 일임하면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 세계,
저승길 들어가는 길이에요.
죽은 사람의 이치를 모르고
산 사람을 어떻게 건집니까.

큰스님: 그것은 전체 무(無)의 세계에서 자유자재하는 그런 일과는 달리 한 발 내려딛고 이보(移步)의 경계로 몸을 움죽거리게 하는 겁니다. 기공이라든가 또는 무술이라든가 하는 전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지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팀들을 두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연구하는 것을 주인공에다 다 일임하면서 연구를 하되 거기서 다 연구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둘이 아니게 통할 수만 있다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뛰고 날면서 그렇게 몸으로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몽둥이를 들고 와서 때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차례차례 걸려서 나오는 자기의 운명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로케트가 다니고 이러는 시대에 그것을 그렇게 몸으로 한다고 얼마나 막아지겠습니까?

로케트가 잘못해서 우리 전체를 죽일 수 있다 이런다면 내가 로케트가 돼야 하고, 물에 들어가면 내가 용신이 돼야 하고, 어떠한 혹성이 우리 지구에 와서 부딪친다든지 이럴 때는 내가 그 혹성이 돼야 하고…. 이러한 문제 등등이 헤아릴 수 없는데, 기공 같은 것은 지금 요 몸뚱이가 사는 동안만 배워서 하는 거뿐이죠.

내가 지금 이끌어 가는 거는 세세생생에 끝없이, 우주에 발판을 두고서 과거 미래 현재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한다 못한다, 배운다 안 배운다 하는 것을 다 놔야 되죠. 부지런히 뛰어서 연구하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불성인 주인공이 바로 자기 몸뚱이를 움죽거리게 해서 하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잔뜩 들어 있는데,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가 자기가 했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수박 겉을 핥는 격이나 똑같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수박의 맛을 봤다고 하겠습니까?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선원에 나온 지는 한 4, 5년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시간을 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많지만 사무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의문 났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공부를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님의 가르침대로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느껴졌던 거는, 결국은 이 주인공을 붙잡고 가는 속에서 점점 저를 안으로 매진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이 선원에 오기 전에는 밖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사회적으로도 좀 명예를 얻고 싶고,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밖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면서 안으로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 걸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7년 10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불자 세상보기

폭력의 악순환, 가정에서부터 끊자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거의 매일 폭력 사건을 접하고 있다. 더 큰 충격은 폭력의 끝에 죽임까지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대내의 가혹행위와 사망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 학대, 노인 학대에 이르기까지 연령, 성별을 떠나 일상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느 누구도,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 모두 폭력이 난무하는 위험한 사회에서 생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폭력 가해자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얼마나 낮은지, 우리 사회가 폭력에 얼마나 관대한지를 실감하게 된다. '제대로 하지 않아 혼내주기 위해, 술에 취해서, 옆에서 하니까 동조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까지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라고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술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 이라고 핑계를 대고 성폭력은 '성적 충동을 주체하지 못해서' 라고 변명한다. 군대 내 가해자들 역시 '제대로 하라는 훈련의 의미' 로 했다는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폭력적 행동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인지, 얼마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을 뿌리뽑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폭력은 옹호되어지기도 한다. 가정폭력을 가족주의적인 입장에서 가족 내의 갈등으로 인식하거나, 성폭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적 본능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거나 군대 폭력을 위계가 강한 군대 내에서 그 위계를 세우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폭력은 힘의 차이에 의해 일어난다. 힘의 우위를 가진 사람이 폭력적 방식으로 길들이려 하거나, 훈련시키거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은 힘을 가진 이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회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 아동과 장애여성, 하급자에 대한 피해가 유독 더 많은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낮은 존엄성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존엄함' 이 부재하는 사회에서는 엄연한 폭력임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지도 않거나,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폭력이라는 이름조차 지어지지 않는다. 폭력에 익숙해진 이들은 가정이건 사회건 군대건 장소에 상관없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가정폭력은 아내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폭력도 함께 일어난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폭력행위를 학습하게 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가해행위를 낳기도 한다.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폭력은 마치 전염성 질병처럼 세대 간 에 세습되고 계층 간에 전이된다.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 폭력이 사회적 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면 사회적 개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개인적 차원의 개선은 미비할 수밖에 없다. 즉 폭력은 개인의 인권침해이며 사회적 테러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폭력의 사슬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가? 어떤 경우에라도 폭력적 태도나 방식을 거부하는 우리의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일상에서 사소하게 지나쳤던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들을 인권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으로 해결책을 돌린다. 많은 이들이 폭력적 방식을 습득했던 근거지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가정이다. 그리고 또래와 선배들이었다. 폭력적 방식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갖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며 정당화되어져왔다.

증오와 폭력의 방식으로 대하던 태도와 행동을 바꿔야 한다. 사람에 대한 믿음의 근간, 아무리 어려워도 단 한사람, 가족이 믿어줄 때 그것을 지탱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힘, 바로 가족이 가진 힘이었다.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 전반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족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가족에게 그 답을 요청해본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주어사지 복원에 대한 단상

여주지역 가톨릭계가 여주 주어사지 원형복원을 위해 설치한 연등에 대한 철거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여주 주어사지는 조선 후기 박해를 받던 가톨릭 학자들을 보호하다 폐사된 역사적 현장이다. 이에 불교계 인사들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자



성직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주어사의 복원 과정에서 흩어진 불교 문화재들을 다시 모으고 복원해 주어사와 천진암에서 희생된 불교인들의 공로를 인정해야한다. 또 국민들에게 이에 대해 올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점차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웃종교인을 보호했던 불교의 자비와 포용 정신을 널리 알리고 주어사 터를 종교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2교구신도회와 중앙신도회는 앞으로 주어사 터에 천막 법당을 설치해 부처님을 봉안하고 스님과 불자들이 계속 머물면서 천일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역사적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복원해 신유박해 때 천주학자들과 함께 수난을 당한 불제자들의 억울함을 해원하는 동시에 부처님의 숭고한 자비심이 현재와 후대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진정한 종교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주어사의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알려나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천주교계의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주어사는 종교 상생의 장소



박법수
前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조선후기 가톨릭 학자들을 보호한 천진암에도 불교계의 역사가 드러나야 한다. 사실 천진암은 주어사의 말사로 이 두 사찰은 불자들과 스님들이 서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곳이다. 정약용의 글에도 천진암과 스님들에 대한 감회가 있을 만큼 이곳은 가톨릭 신자들이 서학을 공부했던 장소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천진암은 불온사상의 근거지로 지목되어 정조 서거 이후 1802년에 대대적인 숙청을 당했고 절의 흔적마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천진암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희생당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불교가 서학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불교의 상생과 화합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가톨릭은 천진암의 이런 내용을 모두 생략하고 천주교를 성지로 지정 천진암 법당 자리에 박해 당시 순교자 5명의 묘지를 모시고 있다. 주어사가 종교성지화되는 것에 앞서 불교계의 도움을 받아 서학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먼저 가톨릭이 인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가톨릭 성지가 된 천진암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희생되었음도 알려져야 할 사실이다.

불자들 결집 계기로 삼아야



민학기
제2교구 신도회장

현재 여주시는 사지의 의미를 알려 명소로 만들고자 2012년 7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앞서 2011년에는 일반인과 순례객 등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길도 재정비해 '주어사지길' 로 명명했다.

용주사 신도회와 제2교구 신도회는 매주 주어사를 찾아 기도를 올리고 있다. 기도를 하며 지역 신도들이 이 사안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어사 복원은 단순히 불교성지를 복원하는 차원이 아니다. 제2교구 신도들은 24일 여주시에 이 같은 역사적 내용을 누락하지 말고 복원에 나서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불자들은 주어사지가 원형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리는 인근 천진암이 불교색이 배제된 가톨릭 성지로 복원된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다. 천진암 복원 과정에서 불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했다면 불교가 가톨릭을 보호한 부분이 표현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불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社說

노인 포교환경 이대로는 안된다

경로효친은 예로부터 한국적 유교 사상의 핵심이며 소중한 가치로 여겨져 왔다.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지구에서 꼭 가져가야 할 제일의 문화는 한국의 효(孝)문화"라며 아널드 토인비가 부러워했던 우리의 독보적인 문화이자 전통이었다. 10월 2일은 18번째 맞는 노인의 날이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 의 현주소는 서글프기 짝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평균(15%)보다 무려 3배나 높은 45%로 1위를 질주하고 있다.

굳이 한국적 전통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노년세대는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전쟁과 폐허와 가난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의 경제적 부를 일구었고, 멀게는 일본의 압제, 가깝게는 군사독재 속에서 피흘려 독립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주역이다. 자식 교육과 성취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자신의 행복과 노후 준비를 희생한 고귀한 세대이기도 하다. 실버푸어, 노인자살, 고독사, 독거가구 등의 신조어가 이제 새롭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노인문제는 심화되고 구조화했다. 소외계층을 위한 노인복지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노년세대 스스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와 사회의식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이런 변화에 우리 불교계도 앞장서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노년에 심신을 편안히 해드릴 수 있는 포교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행이 교계 각 복지관에서는 노인의 날을 맞이해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시낭송회, 탁구대회, 걷기대회 등 다양하다. 새로운 노년상 정립을 위해 축제 역시 젊어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각 사찰들도 포교차원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맞춤식 템플라이프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울시 '전통사찰 주간' 문화융성의 초석

서울시가 10월 시민들을 위한 불교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시와 조계종 총무원과 전통사찰 보유 종단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2014 서울시 전통사찰 Week' 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전통사찰 주간은 서울시의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행사다. 전통사찰이라는 중요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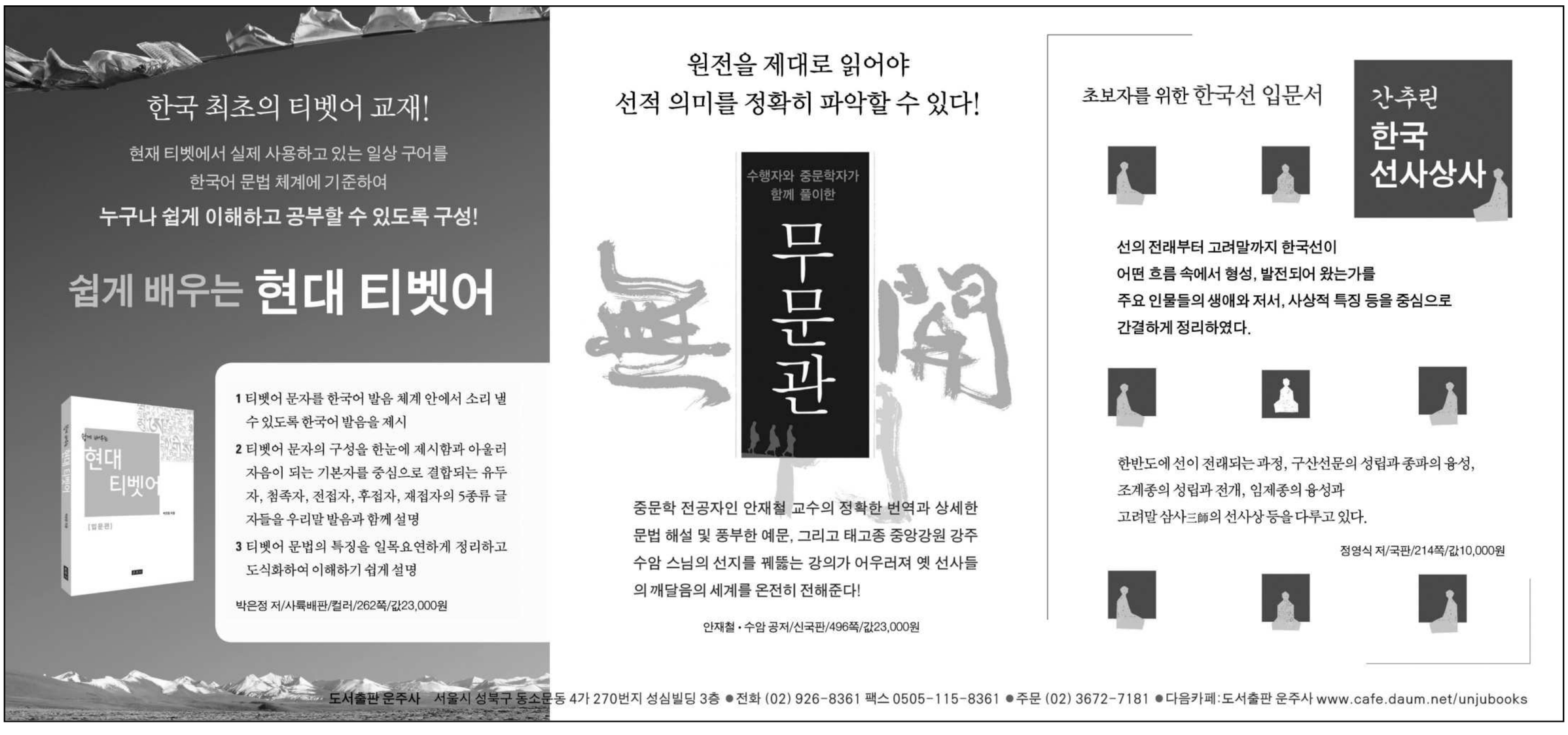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6~9월 서울 전통사찰 58곳의 현황을 점검하고 요청사항을 청취해 △전통사찰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전통사찰 관광자원화 △전통사찰 시설정비 △전통사찰 제도적 기반 구축의 4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전통사찰 주간은 전통사찰의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하고, 계승 · 발전시키는 사업의 일환이다.

개산대재 등을 맞아 다양한 행사 10월에 집중된 만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눈길을 끈다. 특히 조계사 · 봉은사 · 화계사 · 금선사 · 묘각사 등 서울시내 템플스테이 사찰 5곳에서는 1일 사찰 체험 과정인 템플라이프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주요 과제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꼽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문화 융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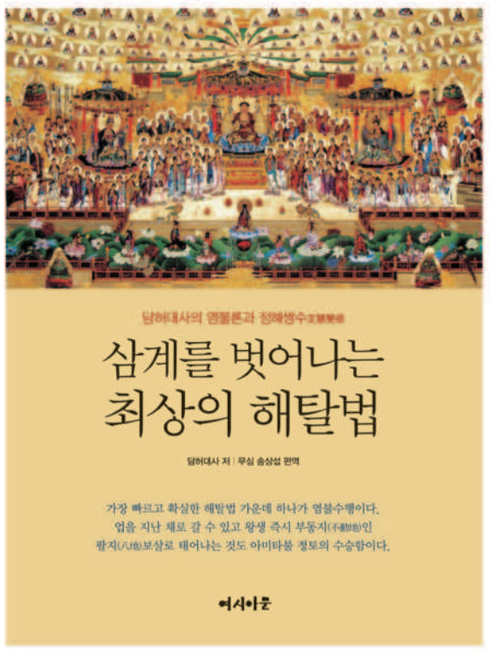
서울시의 이 같은 시도야 말로 문화융성의 기반을 놓는 일이다. 전통사찰이라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시민들의 품으로 보내 전통의 향취를 향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시민과 지자체, 불교가 서로 '윈윈(Win-Win)' 하는 것이다. 이번 전통사찰 주간이 성공적으로 회향해 불교문화의 향유층이 확대되길 바라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괴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짯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짯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 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
(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 여시아문 펴냄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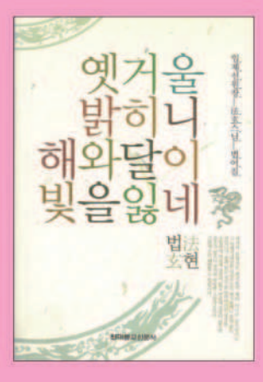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 여시아문 펴냄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화두는 분별 없는 마음거울 밝히는 공부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법현 저 | 양장 | 신국판 | 416쪽 | 15,000원 | 여시아문 펴냄

"생사에 대한 분별심은 옛거울(古鏡)의 체와 하나로 같으면서도 그 자체가 허망한 영상으로서 옛거울에는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인 줄 알아버리면 생사를 초월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으니 생사의 허망한 그림자로부터 근본적으로 해탈할 수 있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선(禪) 법어집이다.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말세의 범부라도 허다한 분별심이 본래 없는 옛거울의 지혜로 관조하여 화두를 심두(心頭)에서 끊임없이 일념으로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생사의 뿌리인 분별심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리고 의단을 타파하게 된다고 한다.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